한국레즈비언상담소
창립 15주년 기념 토론회

레즈비언 상담의 길 찾기

- 다양한 갈래의 고민들 -

2009년 11월 28일 토요일 13:00~17:30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B161호

한국레즈비언상담소

CONTENTS

1부 page 05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및 상담활동 소개 | 케이

page 09 ‖ 2005-2008 상담 통계 | 야릉

2부 page 34 ‖ 성정체성과 성별 정체성 | 소윤

page 44 ‖ 십대 레즈비언 상담 | 선의

page 57 ‖ 레즈비언의 가족 지인 상담 | 야릉

page 64 ‖ 위기 상담과 사건 지원 | 려수

page 72 ‖ 레즈비언과 “남자” 들 | 케이

3부 page 86 ‖ Bridge Over Troubled Identity | 크레아틴

page 91 ‖ 10대여성 섹슈얼리티의 모험적인 ‘놀이터’ 신촌공원에 관한 어떤 활동가의 이야기 | 잘해보지

page 103 ‖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률상담 법률지원에 대한 고민 | 장서연 변호사

* 발제문에 수록된 모든 사례는 실제 내담 사례를 일정하게 각색한 것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창립 15주년 기념 토론회

레즈비언 상담의 길 찾기 - 다양한 갈래의 고민들

일시: 2009년 11월 28일 토요일 13:00~17:3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B161호

레즈비언 상담과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부 13:00-14:00

상담소 소개, 상담 운영 소개 –
2007,2008 상담 통계 발표, –
상담카드 포맷 소개

2부 14:10-15:40

-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 상담
- 십대 레즈비언 상담
- 레즈비언의 가족 지인 상담
- 위기 상담과 사건 지원
- 레즈비언과 "남자" 들

3부 16:00-17:00

더불어 고민하는 성소수자 상담
크레아틴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잘해보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장서연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4부 17:00-17:30

종합토론

* 문의는 사무 메일, 전화로 해 주세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ttp://Lsangdam.org
사무: lsangdam@lsangdam.org / 02-703-3542
상담: lsangdam@hanmail.net / 02-718-3542

1부
상담소 소개 및 통계 발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및 상담 활동 소개

발제·글 | 케이

0. 머리말

안녕하세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소개합니다. 그저 간소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단체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해 드릴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짧게 (혹은 짧지 않게) 머리말을 씁니다.

사실, 1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의 단체 소개인만큼 주요한 연혁을 중심으로 15년사(史) 정도는 써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가 그렇겠습니까만, 한 단체의 역사를 쓰는 작업 역시 그리 단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취재와 자료 정리 그리고 활동가들 사이의 의견 교환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대표로 집필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고백하자면 현재 <상담소>의 활동 인력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의 규모를 아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5주년 기념행사라면, 그간 단체가 벌여 온 활동들을 분야별로 망라해서 소개하고 관련된 쟁점들을 추려 다양한 논쟁을 촉발하는 작업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상담소>의 사정으로는 그러한 규모의 기획을 내실 있게 꾸릴 엄두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기에 15주년 기념행사를 상담 활동 및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로 잡고 가자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건 활동가들의 현실 인식의 소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겸허하게 열심히 준비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심정이었다고 할까요. 장구한 역사보다 간소한 소개를 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상담은 <상담소>의 뼈대 같은 활동임에는 분명하나 결코 <상담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이 행사를 통해 마치 상담 관련된 내용만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2005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 <상담소>로 위상 전환을 한 뒤로, 가장 주력했던 활동이 바로 상담을 체계화 하는 작업이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상담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념행사를 여는 데 일정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이만큼 해 왔어요. 정신없이 깨지면서 스스로 배우고 일구어 온 노하우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눌게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상담 외의 기타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연대 활동, 정책 활동, 출판 활동, 캠페인 등에 대해서도 이후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활동 그 자체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역사 쓰기도 언젠가 가능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구성하여 성실히 써야겠지요. 지금 아쉬운 만큼 이후의 작업은 한결 정성스러워질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단체의 인력 사정도 차츰 더 나아지기를 바라보고요.

<상담소>는 현재 위상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2004년, 한국 레즈비언 인권 운동의 10년사를 썼습니다. 그 이전에는 1999년에 그 때까지의 한국 레즈비언 인권 운동의 역사를 쓴 적이 있고요. 한국의 레즈비언 인권 운동의 역사를 쓰면서 <끼리끼리> 활동의 궤적을 살폈던 것입니다. 거의 5주년, 10주년에 한 번씩 그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넘어갔던 셈인데, 이번에

이렇게 건너 뛰니 20년째가 될 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한국의 레즈비언 인권 운동을 총정리 한다는 마음으로라기보다 이 단체의 역사 자체를 짚어 본다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끼리끼리>의 역사가 곧 한국 레즈비언 운동의 역사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레즈비언 운동 진영은 분화, 다각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갖은 레즈비언 운동들이 저마다 제 목소리로 자신의 활동을 기록해 나갈 거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 분야를 각기 공략하고 있는 레즈비언 운동들이 공동 작업으로서의 역사 쓰기를 추진해 보아도 좋겠네요. 그 과정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경합하게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을 터이고요.

그러면 짧지 않은 머리말을 마치고 소개로 들어갑니다.

*참고 (단체 형성과 그 후 10여 년 간의 활동을 살펴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이해솔,「한국레즈비언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한국여성인권운동사』(한울, 1999)

> 끼리끼리, 「한국레즈비언인권운동10년사」,『진보평론』 제20호 (2004)

(*「한국레즈비언인권운동10년사」는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이학사, 2005)에도 실려 있습니다.
또한 http://jbreview.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4&no=443
이 링크를 통해서도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상담소> 소개

(개요와 같은 간략한 소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1994년 11월 창립한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합니다. <끼리끼리>는 한국 사회 최초의 여성 동성애자 인권 운동 모임입니다. <상담소>는 <끼리끼리>의 정신을 이어 받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를 타파하고 레즈비언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것을 단체의 기치로 삼습니다. 여성 단체, 성소수자 단체, 인권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회원 단체(이제 심지어 미등록 단체) 등의 성격이 <상담소>를 특징짓습니다.

지금 이 시점(2009년 11월 현재)에는 2인의 유급 상근자와 8명의 자원 활동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의 위계 없이 수평적으로 일합니다.) 상근자 조차 각각 한 달에 삼십 만원 정도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데다가, 자원 활동가들의 사정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상담소>의 인력 구성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회원 단체로서 회원들과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후원금으로 살림해 나가는데 그 액수가 자주 들쑥날쑥 하여 월별로는 재정이 적자가 날 때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 15년 간 <상담소>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및 대중들을 상대로 각종 교육 활동, 연대 활동, 정책 활동, 출판 활동, 캠페인 등을 벌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의 굵직한 활동들을 두서없이 그냥 떠올려 봐도 대번에 “동성애 바로 알기 강의”, “반성폭력 캠페인,” “아웃팅 방지 캠페인,”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 강좌,” “십대 이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등 여러 가지 빛깔의 활동들이 떠오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대 활동으로는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무지개행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든 아쉬웠

던 사업에 대해서든 뭐든, 일주일 밤을 지새우며 수다를 떨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상담소>의 활동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머리말에서 언급했듯 <상담소>로 전환하기 직전의 단체명은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아니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상담소>에 그간 단체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다소의 위상 변화가 두어 차례 있었으리라 금세 짐작하셨을 터입니다.

1994년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2000년 한국여성이반커뮤니티센터 끼리끼리
2001년 1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2005년 5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 글을 쓰는 이(케이)가 직접 참여한 단체의 위상 전환은 2005년도 <상담소>로의 전환뿐입니다. 2003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과 2001년의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들어오긴 했어도 낱낱이 알지는 못합니다. (역시 제대로 역사 쓰기를 하려면 조사와 인터뷰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2000년 잠시 커뮤니티 센터로의 전환을 모색했을 시기를 제외하고는 <끼리끼리> 혹은 <상담소>가 인권운동 단체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단체명과 위상의 변경에는 당시 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가 지향해야 하는 바, 그에 걸맞은 운영 방식, 그에 따라 집중해야 할 활동의 내용 등에 대한 그 때 그 때의 활동가들의 고민이 변화에 대한 모색을 추동해 내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을 바라보는 지금도 활동가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소>로의 명칭 변경 및 위상 전환이 활동가들이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내부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명칭 변경 및 위상 전환 이후 심리치료 및 장기면접상담 서비스 제공과 같은 식의 '전문성'을 기대 받는다거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들이 찾아오기보다 '상담'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많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다던가, 더 이상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나 하는 시선에 노출된다던가 하는 변화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소"라는 이름이 띠는 뉘앙스를 어느 순간 답답함으로, 굴레로 느껴온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고민인 만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상담소>,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문제에 관해 말이지요. 고민의 경과를 여러분들과도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 소개 (2009년 현재)

1) 상담 채널

① 전화: 오후 1시-저녁 8시 (월-금) (담당-유급 상근 간사)
> 회당 25분에서 35분으로 제한합니다.
② 게시판: 만 하루 안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65일 무휴)
③ 이메일: 역시 만 하루 안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65일 무휴)
> 게시판과 이메일은 요일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 주말과 연휴에는 만 이틀 안에 답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후속이 올라오면 최초의 담당자가 이어서 답변하도록 합니다.
④ 면접: 전화,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따로 약속 잡아서 진행합니다. (담당-유급 상근 간사)
(*정기상담)
(**연계: 해당 지역 1366/쉼터, 산부인과 등)
(***사건지원: 려수 님 발제문 참고)
(**** 집단상담 by 루)

2) 기본 원칙

☆ 영순위: 비밀 유지의 원칙을 엄수합니다!!! ☆
① 주요한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내용이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특정 주제들에 대한 상담 내용에 상담원들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가집니다. 즉, 상담원의 주관이 상담글에 편파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애씁니다.
> 대표적인 예: 기혼 여성 상담 (가정을 지켜야 한다, 애들은 어떡하냐,…), 사제지간의 교제(특히, 성인-십대의 관계일 경우)
② 한 명의 상담원도 빠짐 없이 순서대로 서로 수퍼비전/모니터링을 받습니다.
③ 하나의 상담도 빠짐 없이 반드시 상담카드에 기록합니다. (통계를 내는 데 활용합니다.)
④ 내담자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⑤ 내담자에게 상담원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

3) 내/외부 교육 및 모니터링

① 내부 교육 방식
(교육 담당자가) 상담 카테고리 선정>(교육 담당자가) 카테고리 별 소위 대표 사례 선정(아주 기본적인 사례거나, 아주 복잡한 사례거나)>(교육 참여자가) 상담글 작성> 상담팀원들의 코멘트> (교육 참여자가) 상담글 수정> 팀원들의 재검토> 완료

② 팀 내부 세미나
주디스 워렐 외, 강김문순 외 옮김.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울, 2004)
주디스 허먼, 최현정 옮김.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플래닛, 2007)
로라 데이비스 외, 이경미 옮김. 『아주 특별한 용기: 피해자와 가족,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동녘, 2000)
미리엄 그린스펀, 이종복 옮김.『감정 공부: 슬픔, 절망, 두려움에서 배우는 치유의 심리학』(뜰, 2008)

③ 수퍼비전, 모니터링

④ 외부 양성 교육
2008 “레즈비언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기 진행
2009 “레즈비언전문상담원 양성교육” 2기 진행
2010 “레즈비언전문상담원 양성교육” 3기 준비 중

2005.04~2008.1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 통계

이 자료는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게시판, 이메일, 전화, 면접 상담 사례를 1년 단위로 분석한 통계 자료입니다. 상담소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들에게 어떠한 신상 정보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스스로 밝히거나 내담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별, 성정체성, 나이, 혼인 여부 등의 항목에서 '알 수 없음' 으로 집계되는 수치가 상당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통계표, 2005년~2009년 상담카드]

상담 통계 분석

[상담 횟수]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는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2228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의 게시판(60%)과 E-mail(25%)을 통한 온라인 상담 비율이 전화(12%)나 방문(2%)을 통한 상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내담자의 대다수는 비혼(67%), 10대~20대(56%), 여성(91%)이었으며 성정체성은 레즈비언(48%) 이거나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는(33%)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 내담자의 나이와 직업, 혼인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하였다.

[상담 내용]

내담자들은 1회 상담 시 한 가지 고민만 털어놓지는 않는다. 상담 횟수에 비해 상담 내용은 1.5~2.2배에 달한다. 내담자들은 성정체성, 커밍아웃, 친구 및 가족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아웃팅과 아웃팅 매개범죄, 우울증을 함께 겪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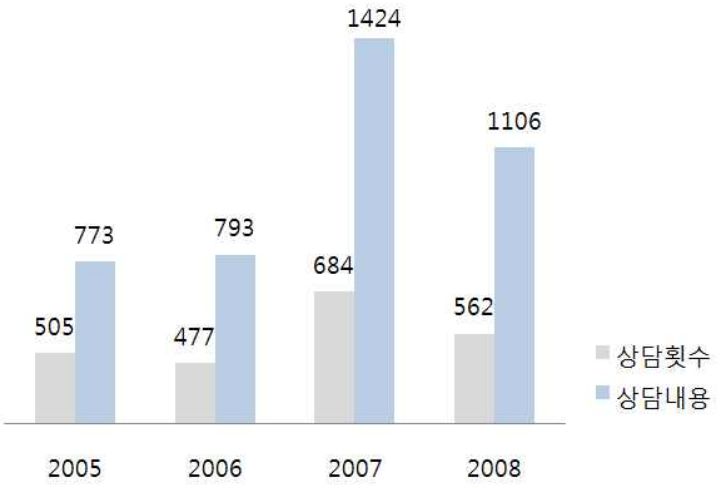


표1. 상담횟수 및 상담 내용(상담 내용은 복수표기, 단위: 건)

[상담 방법]

온라인 비공개 상담의 특성은 내담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레즈비언이거나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10대~20대라는 점을 볼 때 게시판 상담과 E-mail상담은 접근성이 높은 것 같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성애 혐오,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가 가진 동성애 혐오로 인해 내담자들은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상담원에게마저 있는 그대로 드러내길 꺼려한다. 또한 자신이 레즈비언일 수 있음을 짐작하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하며, 레즈비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담원들은 내담자에게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황정보만을 요구하며, 내담자 또한 자신의 성별과 연령대, 직업군(학생/직장인/주부 등) 등 현재 처한 상황과 직결되는 정보(학교에서의 친구`교제 관계, 직장에서의 교제, 상사와의 갈등, 기혼이면서 동성과 교제하고 있는 경우, 대학생이 되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정체성 고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의문 등)만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온라인 상담의 한계는 전화 혹은 내방 상담과 달리 내담자와 상담원 간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기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기 어렵거나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기도 한다. 따라서 상담원들은 내담자가 처해 있을 다양한 상황들을 짐작하고, 그에 따른 생각의 방향, 선택지를 제안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담소와 연락을 취하도록 내담자를 독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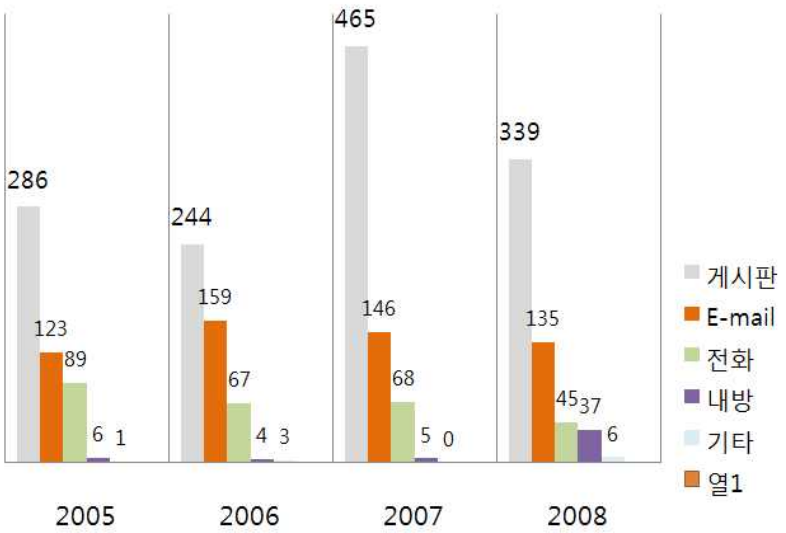


표2. 상담방법(단위: 건)

[성별]

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레즈비언 당사자,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 레즈비언 자녀를 둔 어머니 등 지인이 속하며 소수에 한해 게이 자녀의 어머니도 있다. 남성 내담자는 주로 레즈비언의 남편, 남자친구, 게이인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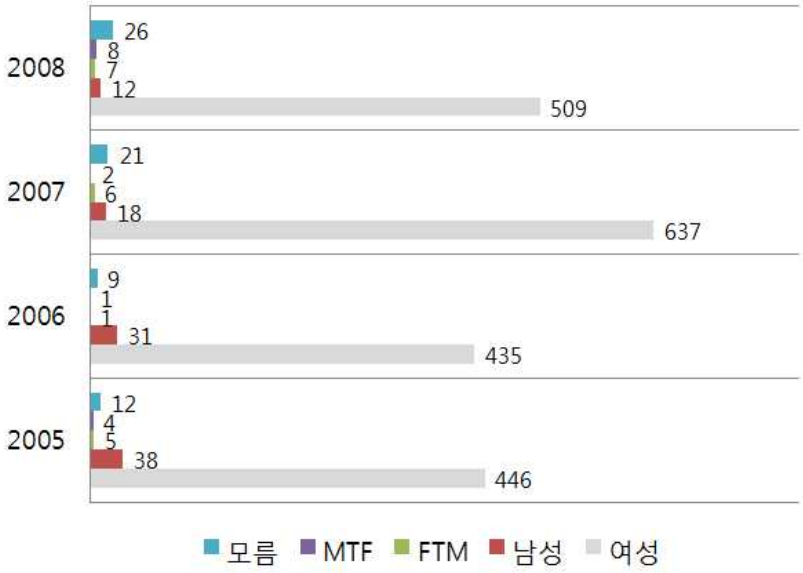


표3. 내담자 성별(단위: 건)

[성정체성]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33%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거나,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면 '이성애자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상담원이 내담자들의 성정체성 탐색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긍정하도록 자긍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경우

레즈비언의 지인이거나 단순질문 및 동성애 관련 정보문의를 한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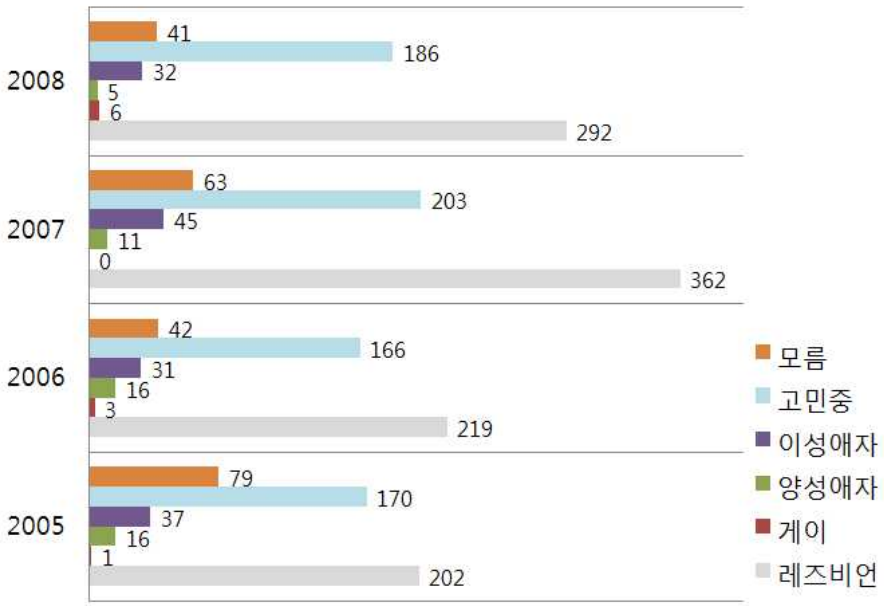


표4. 내담자 성정체성(단위: 건)

[연령]

내담자의 대다수는 10대~20대로, 이 시기에 겪은 동성과의 특별한 경험이나 동성에 대한 느낌을 바탕으로 성정체성 고민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선택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나 30대 이상의 상담도 2005년 54건(11%), 2006년 61건(13%), 2007년 62건(9%), 2008년 72건(13%)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레즈비언 경험이 "어린 시절" 의 일시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성정체성 고민은 나이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정체성과도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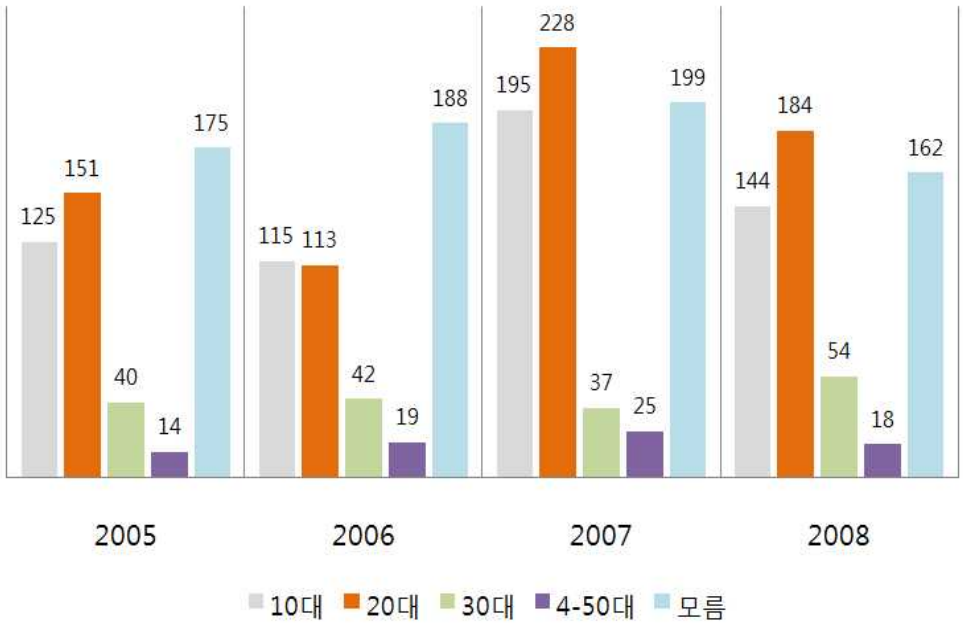


표5. 내담자 연령대(단위: 건)

[결혼 여부]

대다수는 비혼자이며 이는 10대~20대 내담자 비율이 높은 것에서 비롯된다. 비혼자들 중 주변으로부터의 결혼압력에 대한 상담요청 사례는 적으나 일부 내담자들은 비혼·레즈비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2005년 26건(5%), 2006년28건(6%), 2007년 36건(5%), 2008년 25건(4%)에 이르는 기혼/이혼 내담자들은 주로 결혼 후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알고 고민을 시작한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존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30대 이상의 내담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억압하고 살아왔거나 미처 깨달을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결혼 후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얽혀 내담자에게 또 다른 억압이 된다는 것이다. 기혼자들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남편과의 갈등, 동성파트너와의 교제 지속 여부, 이혼 결심, 남편과의 자녀양육 문제 등에서 갈등을 겪는다. 일부의 경우 이혼 후 동성 파트너와의 자녀양육문제로 고민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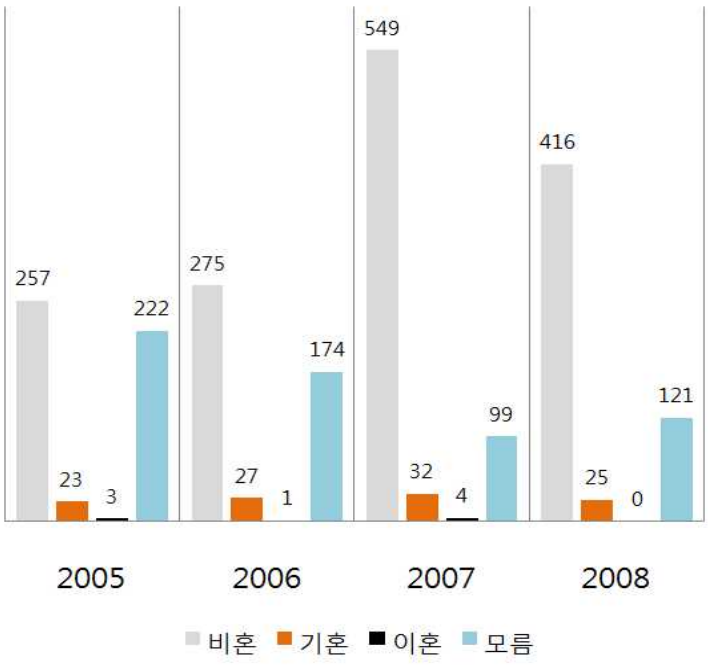


표6. 내담자 결혼여부(단위: 건)

[상담 내용(복수표기)]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전체 상담 내용은 4096건이며, 레즈비언 관련 정보 및 기타 문의 700건을 제외하면 3396건이다. 이 중 교제관련 상담(짝사랑, 고백, 교제, 이별)이 1166건(28%)으로 전체 상담 내용 중 가장 많고, 성정체성 상담이 780건(19%)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관계가 237건(6%), 친구관계가 233건(6%)이며, 아웃팅 및 관련 범죄가 212건(5%), 가정폭력(원가족 및 교제·동거관계 내 폭력)이 98건(2%), 성폭력이 75건(2%), 혐오범죄가 41건(1%)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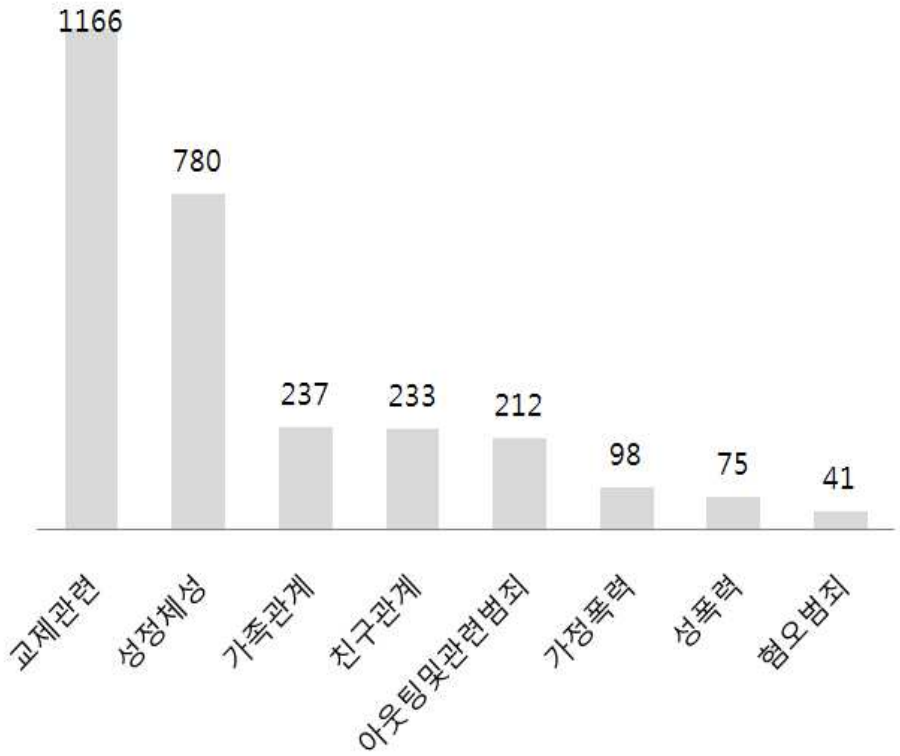


표7. 2005년~2008년 주요 상담 내용(단위: 건)

[2005년 상담 내용]

전체 상담 내용은 773건이며, 이 중 레즈비언 관련 정보 및 기타 문의를 제외하면 교제관계(191건) ->성정체성(177건) -> 가족관계(55건) -> 아웃팅·아웃팅매개범죄·혐오범죄(54건)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40건) -> 친구관계(37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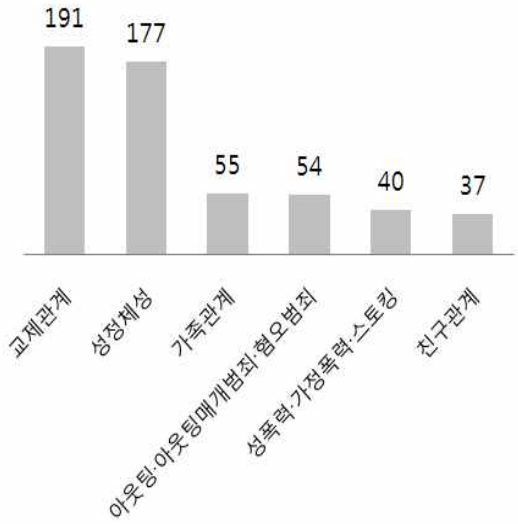


표 8. 2005년 주요 상담내용(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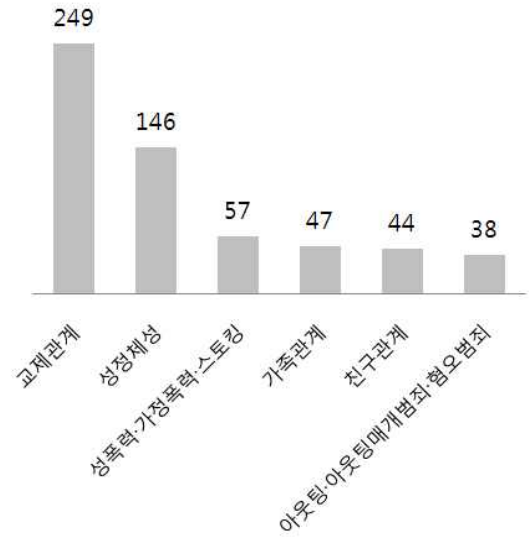


표9. 2006년 주요 상담내용(단위: 건)

[2006년 상담 내용]

전체 상담 내용은 793건이며, 이 중 레즈비언 관련 정보 및 기타 문의를 제외하면 교제관계(249건) -> 성정체성(146건)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57건) -> 가족관계(47건) -> 친구관계(44건) -> 아웃팅·아웃팅매개범죄·혐오범죄(38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상담 내용]

전체 상담 내용은 1424건이며, 이 중 레즈비언 관련 정보 및 기타 문의를 제외하면 교제관계(403건) -> 성정체성(254건) -> 친구관계(100건) -> 아웃팅·아웃팅매개범죄·혐오범죄(83건) -> 가족관계(75건)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62건) 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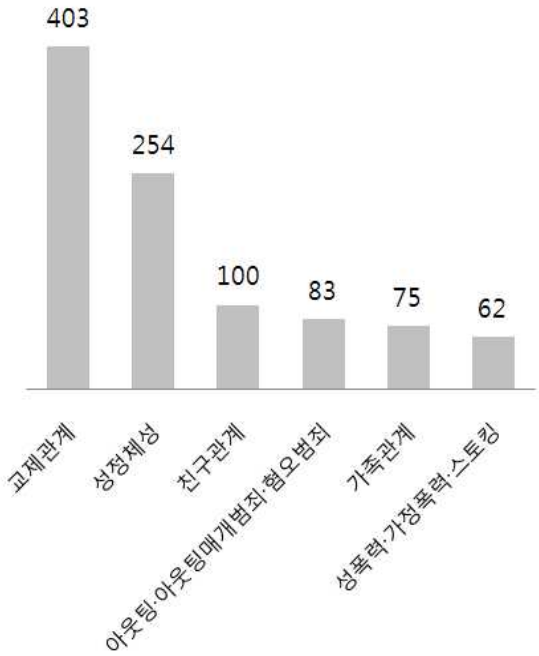


표10. 2007년 주요 상담내용(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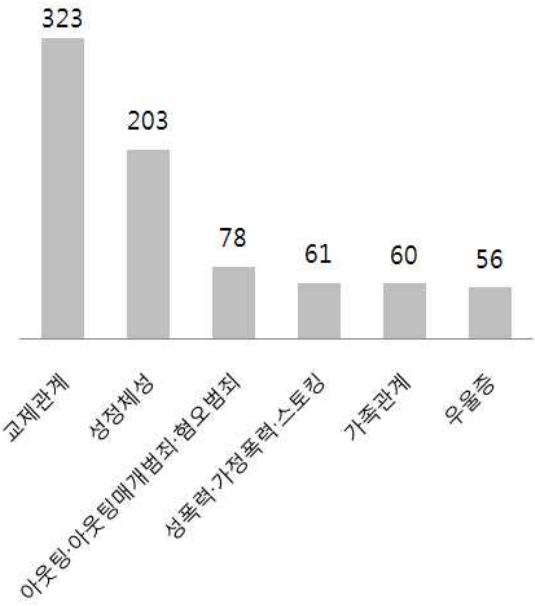


표11. 2008년 주요 상담내용(단위: 건)

[2008년 상담 내용]

전체 상담 내용은 1106건이며, 이 중 레즈비언 관련 정보 및 기타 문의를 제외하면 교제관계(323건) -> 성정체성(203건) -> 아웃팅·아웃팅매개범죄·혐오범죄(78건)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61건) -> 가족관계(60건) -> 우울증(56)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 분석

[교제 및 성정체성]

레즈비언 상담에서 동성 교제(짝사랑, 고백, 교제, 이별 등)에 해당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지지집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제와 관련된 고민 털어놓기나 마음가는 이성에 대한 수다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과의 대화로 해결하기 마련이지만, 레즈비언의 경우 이러한 이야기를 맘 놓고 털어놓을(편견 없이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담자들이 털어놓는 친구관계/가족관계에서의 고민이 주로 좋아하게 된 동성친구에 대한 이야기나 자신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친구들/가족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지 걱정하는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폭력, 감금, 애인 부모로부터의 협박을 겪고 있음을 털어놓는다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

두 번째로, 내담자들은 동성에게 이끌리는 감정을 갖거나 동성과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남들과는 다르기에' 문제되는 일(상담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담자들은 상담을 요청하며 이런 감정에 불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인지 묻기도 한다.

이렇게 내담자들은 상담소에서 다른 이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동시에 자신의 성정체성이 무엇인지 확답을 받고자 한다. 동성에게 느끼는 사소한 감정의 이끌림에서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제해온 사람과의 이별까지 수많은 감정들과 갈등 등을 털어놓음으로서 해결책을 얻거나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친구/가족관계]

교제 및 성정체성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은 그 비율이 높지 않다. 이는 실제로 레즈비언들이 친구/가족관계에서 겪는 갈등이 적거나 폭력에 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레즈비언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커밍아웃)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상호작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은 더욱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커밍아웃과 관련된 상담 요청은 전체 상담 내용 중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의 상담도 많지 않으나, 이 또한 실제로 다수의 레즈비언들이 폭력, 성폭력, 아웃팅 및 협박 등에 노출되어있음에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레즈비언들은 폭력을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성정체성으로 인해 (아웃팅 등) 더 큰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애인 부모로부터의 협박이나 폭력을 이해할만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자신의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찾으며 '자기탓'을 하기도 한다. 또한 상담소를 통해서 폭력·차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념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아웃팅 /아웃팅매개범죄 /혐오범죄]

2008년의 경우 헤어진 동성애인 또는 남자친구, 애인 부모 등으로부터 아웃팅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 단순 아웃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웃팅 매개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가해자가 아웃팅에 대한 개념이 없이 (잘 모르고) 한 행위였다기보다는 내담자가 성정체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점을 이용해 단순 폭행, 성폭행 하려는 등 고의적으로 한 행위인 경우가 많았다.

[우울증 및 섭식장애]

우울증, 섭식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2006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에서 2008년에 이르기까지 증가추세에 있다(16건/44건/61건). 이러한 증상은 내담자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지받지 못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인과 헤어진 상황, 또 아웃팅 및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폭력경험이 있는 등 다양한 사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12> 상담 방법

<표12-1> 2005년

상담 방법	명	(%)
전화	89	17.62
이메일	123	24.36
게시판	286	56.63
내방	6	1.19
기타	1	0.20
계	505	100

<표12-2> 2006년

상담 방법	명	(%)
전화	67	14.05
이메일	159	33.33
게시판	244	51.15
내방	4	0.84
기타	3	0.63
계	477	100

<표12-3> 2007년

상담 방법	명	(%)
전화	68	9.94
이메일	146	21.35
게시판	465	67.98
내방	5	0.73
기타	0	0
계	684	100

<표12-4> 2008년

상담 방법	명	(%)
전화	45	8.01
이메일	135	24.02
게시판	339	60.32
내방, 사건지원	37	6.58
기타	6	1.07
계	562	100

<표13> 내담자 성별

<표13-1> 2005년

성별	명	(%)
여	446	88.32
남	38	7.52
F to M	5	0.99
M to F	4	0.79
알 수 없음	12	2.38
계	505	100

<표13-2> 2006년

성별	명	(%)
여	435	91.19
남	31	6.50
F to M	1	0.21
M to F	1	0.21
알 수 없음	9	1.89
계	477	100

<표13-3> 2007년

성별	명	(%)
여	637	93.13
남	18	2.63
F to M	6	0.88
M to F	2	0.29
알 수 없음	21	3.07
계	684	100

<표13-4> 2008년

성별	명	(%)
여	509	90.57
남	12	2.14
F to M	7	1.25
M to F	8	1.42
알 수 없음	26	4.63
계	562	100

<표14> 내담자 성정체성

<표14-1> 2005년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202	40.00
게이	1	0.20
양성애자	16	3.17
이성애자	37	7.33
고민 중	170	33.66
알 수 없음	79	15.64
계	505	100

<표14-2> 2006년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219	45.91
게이	3	0.63
양성애자	16	3.35
이성애자	31	6.50
고민 중	166	34.80
알 수 없음	42	8.81
계	477	100

<표14-3> 2007년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362	52.92
게이	0	0
양성애자	11	1.61
이성애자	45	6.58
고민 중	203	29.68
알 수 없음	63	9.21
계	684	100

<표14-4> 2008년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292	51.96
게이	6	1.07
양성애자	5	0.89
이성애자	32	5.69
고민 중	186	33.10
알 수 없음	41	7.30
계	562	100

<표15> 내담자 나이

<표15-1> 2005년

나이	명	(%)
10대	125	24.75
20대	151	29.90
30대	40	7.92
4-50대	14	2.80
알 수 없음	175	34.65
계	505	100

<표15-2> 2006년

나이	명	(%)
10대	115	24.11
20대	113	23.69
30대	42	8.81
4-50대	19	3.98
알 수 없음	188	39.41
계	477	100

<표15-3> 2007년

나이	명	(%)
10대	195	28.51
20대	228	33.33
30대	37	5.41
4-50대	25	3.65
알 수 없음	199	29.09
계	684	100

<표15-4> 2008년

나이	명	(%)
10대	144	25.62
20대	184	32.74
30대	54	9.61
4-50대	18	3.20
알 수 없음	162	28.83
계	562	100

<표16> 내담자 혼인여부

<표16-1> 2005년

혼인여부	명	(%)
비혼	257	50.89
기혼	23	4.55
이혼	3	0.59
알 수 없음	222	43.96
계	505	100

<표16-2> 2006년

혼인여부	명	(%)
비혼	275	57.65
기혼	27	5.66
이혼	1	0.21
알 수 없음	174	36.48
계	477	100

<표16-3> 2007년

혼인여부	명	(%)
비혼	549	80.26
기혼	32	4.68
이혼	4	0.58
알 수 없음	99	14.47
계	684	100

<표16-4> 2008년

혼인여부	명	(%)
비혼	416	74.02
기혼	25	4.45
이혼	0	0.00
알 수 없음	121	21.53
계	562	100

<표17> 상담 내용(복수표기)

<표17-1> 2005년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177	35.04			
커밍아웃	20	3.96			
가족관계	55	10.89			
친구관계	37	7.32			
교제관계	191	37.82	파트너 관계	52	27
			기타	139	72
종교	4	0.79	기독교	4	100
성폭력	17	3.36	동성간성폭력	9	53
			이성간성폭력	7	41
			기타	1	6
가정폭력	17	3.36	기존 가족 내의 폭력	11	65
			동거 파트너 간의 폭력	4	23
			기타	2	12
스토킹	6	1.18			
아우팅	13	2.57	고의적 아우팅	7	54
			무고의적 아우팅	1	8
			기타	5	38
아우팅 매개범죄	21	4.15	협박	12	57
			금품갈취	3	14
			폭행	2	10
			성폭력	4	19
혐오범죄	20	3.96	협박	3	15
			폭언	7	35
			폭행	4	20
			따돌림	4	20
			기타	2	10
성	41	8.11			
관련정보문의	48	9.50			
기타	106	20.99			
계	773	153			

<표17-2> 2006년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146	30.61			
짝사랑	68	14.26			
고백	14	2.94			
교제	112	23.90			
이별	55	11.53			
커밍아웃	11	2.31			
친구관계	44	9.22			
가족관계	47	9.85			
성	32	6.71			
우울증	14	2.94			
섭십장애	2	0.40			
종교	5	1.05	기독교	4	80.00
			기타	1	20.00
스토킹	4	0.84			
성폭력	14	2.94	동성 간 성폭력	3	21.43
			이성 간 성폭력	11	78.57
교제관계 내 폭력	13	2.73	가정 폭력	5	38.46
			데이트 폭력	8	61.54
기존 가족 내 폭력	8	1,68			
아우팅	15	3.14	고의적	5	33.33
			무고의적	1	36.67
			기타	9	60.00
아우팅 매개범죄	13	2.73	협박	10	76.93
			폭행	1	6.67
			금품갈취	1	6.67
			기타	1	6.67
커뮤니티 내 폭력	8	1.68	사기	2	25.0
			명예훼손	2	25.0
			기타	4	50.0
혐오범죄	10	2.10	폭언	1	10.0
			폭행	1	10.0
			따돌림	5	50.0
			괴롭힘	2	20.0
			기타	1	10.0
차별사례	0	0.00			
가출 혹은 실종	0	0.00			
관련정보문의	61	12.79			
기타	97	20.34			
계	793	166.71			

<표17-3> 2007년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254	37.13			
짝사랑	131	19.15			
고백	51	7.46			
교제	151	22.08			
이별	70	10.23			
커밍아웃	26	3.80			
친구관계	100	14.62			
가족관계	75	10.96			
내면화된 혐오	41	5.99			
결혼 압력	5	0.73			
성	53	7.75			
우울증	42	6.14			
섭식장애	2	0.29			
종교	15	2.19			
스토킹	11	1.61			
성폭력	15	2.19	동성 간 성폭력	4	0.58
			이성 간 성폭력	9	1.32
			기타	2	0.29
교제관계 내 폭력	21	3.07	가정 폭력	16	2.34
			데이트 폭력	5	0.73
기존 가족 내 폭력	15	2.19			
아웃팅	28	4.09	고의적 아웃팅	11	1.61
			무고의적 아웃팅	1	0.15
			기타	16	2.34
아웃팅 매개범죄	45	6.58			
커뮤니티 내 폭력	10	1.46			
혐오범죄	10	1.46			
차별사례	4	0.58			
가출 혹은 실종	3	0.44			
관련정보문의	119	17.40			
기타	127	18.57			
계	1424	208.19			

<표17-4> 2008년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203	36.12			
짝사랑	85	15.12			
고백	40	7.12			
교제	157	27.94			
이별	41	7.30			
커밍아웃	26	4.63			
친구관계	52	9.25			
가족관계	60	10.68			
내면화된 혐오	41	7.30			
결혼 압력	1	0.18			
성	46	8.19			
우울증	56	9.96			
섭식장애	5	0.89			
종교	6	1.07			
스토킹	8	1.42			
성폭력	29	5.16	동성 간 성폭력	15	2.67
			이성 간 성폭력	10	1.78
			기타	4	0.71
교제관계 내 폭력	16	2.85	가정폭력	11	1.96
			데이트폭력	5	0.89
기존 가족 내 폭력	8	1.42			
아웃팅	39	6.94	고의적 아웃팅	20	3.56
			무고의적 아웃팅	3	0.53
			기타	16	2.85
아웃팅 매개범죄	38	6.76			
커뮤니티 내 폭력	4	0.71			
혐오범죄	1	0.18			
차별사례	1	0.18			
가출 혹은 실종	1	0.18			
관련정보문의	58	10.32			
기타	84	14.95			
계	1106	196.80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5년도 상담카드

1. 카드 정보

일련번호: 05(연)- (월)- (일)- (차)	고유번호: ( )차	상담원:
상담방법: ☐ 전화 ☐ 이메일 ☐ 게시판 ☐ 내방 ☐ 기타	상담일시: 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2. 내담자 정보

이름	닉네임: , 실명:	
내담자와의 관계:		지역:
성별	☐ 여성 ☐ 남성 (☐ F to M 트랜스젠더 ☐ M to F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이성애자 ☐ 기타(예: 고민 중)	
나이	( )세 *비고 ☐ 10대 ☐ 20대 ☐ 30대 ☐ 40-50대 ☐ 기타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주소:	

* 대리내담자(있을 경우)

이름	닉네임: , 실명:		
성별	☐ 여성 ☐ 남성 (☐ F to M 트랜스젠더 ☐ M to F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이성애자 ☐ 기타(예: 고민 중)		
나이	( )세 *비고 ☐ 10대 ☐ 20대 ☐ 30대 ☐ 40-50대 ☐ 기타		
직업:	지역:	혼인여부: ☐ 비혼 ☐ 기혼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주소:		

3. 내담자 상태

정체화: ☐ 한 상태 ☐ 안 한/못 한 상태	(정체화한 경우) 커밍아웃: ☐ 안함 / ☐ 함 (대상_복수 표기 가능: ☐ 자매형제 ☐ 친구 ☐ 부모 ☐ 동료 ☐ 레즈비언 커뮤니티 ☐ 기타)	레즈비언커뮤니티경험유무: ☐ 있음 ☐ 없음

4. 상담 종류(복수 표기 가능)

☐ 성정체성	☐ 커밍아웃	☐ 가족관계	☐ 친구관계	☐ 교제관계 (비고: ☐ 파트너 관계 ☐ 기타)
☐ 종교 (비고: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이슬람교 ☐ 기타 종교 ☐ 무교)				
☐ 성폭력 (비고: ☐ 동성간성폭력 ☐ 이성간성폭력 ☐ 기타)				
☐ 가정폭력 (비고: ☐ 기존 가족 내의 폭력 ☐ 동거하는 파트너 간의 폭력 ☐ 기타)				
☐ 스토킹			☐ 아우팅 (비고: ☐ 고의적 아우팅 ☐ 무고의적 아우팅 ☐ 기타)	
☐ 아우팅 매개 범죄 (비고: ☐ 협박 ☐ 금품갈취 ☐ 폭행 ☐ 성폭력 ☐ 기타)				
☐ 혐오범죄 (비고: ☐ 협박 ☐ 폭언 ☐ 폭행 ☐ 혐오상징물게시 ☐ 성폭력 ☐ 따돌림 ☐ 기타)				
☐ 차별사례 (비고: ☐ 교육 ☐ 노동 ☐ 형사절차 ☐ 법/제도 ☐ 재화/용역 ☐ 기타)				
☐ 성(性)		☐ 관련정보문의		☐ 기타

5.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

☐ 인터넷 ☐ 신문 및 잡지 ☐ 지인 소개 ☐ 기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년도 상담카드

1.카드 정보

일련번호: 06(연)- (월)- (일)- (차)	고유번호: ( )차	상담원:
상담방법: ☐ 전화 ☐ 이메일 ☐ 게시판 ☐ 내방 ☐ 기타	상담일시: 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2. 내담자 정보

이름	닉네임: , 실명:		
성별	☐ 여성 ☐ 남성 ☐ F to M 트랜스젠더 ☐ M to F 트랜스젠더 ☐ 기타		
성정체성	☐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이성애자 ☐ 기타(예: 고민 중)		
나이	( )세 *비고 ☐ 10대 ☐ 20대 ☐ 30대 ☐ 40-50대 ☐ 기타		
직업:	지역:	혼인여부: ☐ 비혼 ☐ 기혼 ☐ 이혼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주소:		

* 대리내담자(있을 경우)

이름	닉네임: , 실명:	
내담자와의 관계:	지역:	
성별	☐ 여성 ☐ 남성 (☐ F to M 트랜스젠더 ☐ M to F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이성애자 ☐ 기타(예: 고민 중)	
나이	( )세 *비고 ☐ 10대 ☐ 20대 ☐ 30대 ☐ 40-50대 ☐ 기타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주소:	

3. 내담자 상태

정체화: ☐ 한 상태 ☐ 안 한/못 한 상태	(정체화한 경우) 커밍아웃: ☐ 안함 / ☐ 함 (대상_복수 표기 가능: ☐ 자매형제 ☐ 친구 ☐ 부모 ☐ 동료 ☐ 레즈비언 커뮤니티 ☐ 기타)	레즈비언커뮤니티경험유무: ☐ 있음 ☐ 없음

4. 상담 종류(복수 표기 가능)

☐ 성정체성	☐ 커밍아웃	☐ 가족관계	☐ 친구관계	☐ 교제	☐ 고백	☐ 짝사랑	☐ 이별
☐ 종교 (비고: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이슬람교 ☐ 기타 종교 ☐ 무교)						
☐ 성폭력 (비고: ☐ 동성간성폭력 ☐ 이성간성폭력 ☐ 기타)						
☐ 기존 가족 내의 폭력				☐ 교제 관계 내의 폭력 (비고: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 스토킹	☐ 아우팅 (비고: ☐고의적 아우팅 ☐무고의적 아우팅 ☐기타)			☐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폭력 (비고: ☐ 사기 ☐금품 갈취 ☐ 명예 훼손 ☐ 폭행 ☐ 기타)		
☐ 아우팅매개범죄 (비고: ☐ 협박 ☐ 금품갈취 ☐ 폭행 ☐ 성폭력 ☐ 기타)				☐ (성소수자 당사자의)가출 혹은 실종		
☐ 혐오범죄 (비고: ☐ 협박 ☐ 폭언 ☐ 폭행 ☐ 혐오상징물게시 ☐ 성폭력 ☐ 따돌림 ☐ 괴롭힘 ☐ 기타)						
☐ 차별사례 (비고: ☐ 교육 ☐ 노동 ☐ 형사절차 ☐ 법/제도 ☐ 재화/용역 ☐ 기타)						
☐성(性)	☐우울증	☐섭식장애	☐관련정보문의	☐기타		

5.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

☐ 인터넷 ☐ 신문 및 잡지 ☐ 지인 소개 ☐ 기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7년도 상담카드

1. 카드 정보

일련번호: 07(연) (월) (일) (차)	고유번호: ( ) 차	상담원:
상담방법: □전화 □이메일 □게시판 □내방 □기타	상담일시: 2007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2. 내담자 정보

이름	닉네임: 실명:				
성별	□여성 □남성 □F to M 트랜스젠더 □M to F 트랜스젠더 □기타				
성정체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이성애자 □고민중 □기타				
나이	( ) 세 □10대 □20대 □30대 □4-50대 □기타				
혼인여부	(이성과의 혼인여부를 말함) □결혼안함 □결혼함 □이혼함				
직업		지역		이메일	

3. 내담자 상태

정 체 화 : □한 상태 □안 한/못 한 상태	레즈비언 커뮤니티 경험 유무 : □있음 □없음

4. 상담 종류(복수 표기 가능)

□ 성정체성	□ 짝사랑	□ 고백	□ 교제	□ 이별
□ 커밍아웃	□ 친구관계		□ 가족관계	
□ (성소수자 당사자의) 내면화된 동성애혐오증			□ 결혼압력	
□ 성(性)	□ 우울증		□ 섭식장애	
□ 종교 *비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 □ 종교 없음				
□ 스토킹	□ 성폭력 *비고 □동성간성폭력 □이성간성폭력 □기타			
□ 기존 가족 내의 폭력	□ 교제 관계 내의 폭력 *비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 아우팅 *비고 □고의적 아우팅 □무고의적 아우팅 □기타				
□ 아우팅매개범죄 *비고 □협박 □금품갈취 □폭행 □성폭력 □기타				
□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폭력 *비고 □사기 □금품갈취 □폭행 □명예훼손 □기타				
□ 혐오범죄 *비고 □협박 □폭언 □폭행 □혐오상징물게시 □성폭력 □따돌림 □괴롭힘 □기타				
□ 차별사례 *비고 □교육 □노동 □형사절차 □법/제도 □재화/용역 □기타				
□ (성소수자 당사자의) 가출 혹은 실종	□ 관련정보문의		□ 기타	

5.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

□인터넷 검색 □레즈비언 커뮤니티 □신문 및 잡지 □지인 소개 □기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8년도 상담카드

1. 카드 정보

일련번호: 08(연) (월) (일) (차)	고유번호: ( ) 차	상담원:
상담방법: ☐ 전화 ☐ 이메일 ☐ 게시판 ☐ 내방 ☐기타	상담일시: 2008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2. 내담자 정보

이름	닉네임: 실명:				
성별	☐ 여성 ☐ 남성 ☐ F to M 트랜스젠더 ☐ M to F 트랜스젠더 ☐ 기타				
성정체성	☐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이성애자 ☐ 고민 중 ☐ 기타				
나이	( ) 세 ☐ 10대 ☐ 20대 ☐ 30대 ☐ 4-50대 ☐ 기타				
혼인여부	(이성과의 혼인여부를 말함) ☐ 결혼 안함 ☐ 결혼함 ☐ 이혼함				
직업		지역		이메일	

3. 내담자 상태

정 체 화 : ☐ 한 상태 ☐ 안 한/못 한 상태	레즈비언 커뮤니티 경험 유무 : ☐ 있음 ☐ 없음

4. 상담 종류(복수 표기 가능)

☐ 성정체성	☐ 짝사랑	☐ 고백	☐ 교제	☐ 이별
☐ 커밍아웃	☐ 친구관계		☐ 가족관계	
☐ (성소수자 당사자의) 내면화된 동성애혐오증		☐ 결혼압력		
☐ 성(性)	☐ 우울증		☐ 섭식장애	
☐ 종교 *비고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타( ) ☐ 종교 없음				
☐ 스토킹	☐ 성폭력 *비고 ☐ 동성간성폭력 ☐ 이성간성폭력 ☐ 기타			
☐ 기존 가족 내의 폭력	☐ 교제 관계 내의 폭력 *비고 ☐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			
☐ 아우팅 *비고 ☐ 고의적 아우팅 ☐ 무고의적 아우팅 ☐ 기타				
☐ 아우팅매개범죄 *비고 범죄 유형 :				
☐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폭력 *비고 폭력 유형 :				
☐ 혐오범죄 *비고 범죄 유형 :				
☐ 차별사례 *비고 차별 유형 :				
☐ (성소수자 당사자의) 가출 혹은 실종	☐ 관련정보문의		☐ 기타	

5. 상담소를 알게된 경로 ☐인터넷 검색 ☐레즈비언 커뮤니티 ☐신문 및 잡지 ☐지인 소개 ☐기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9년도 상담카드

일련번호: 2009년 월 일 차	상담원:	비고:
고유번호: (차)	소요시간:	
상담일시: 2009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상담방법: □전화 □메일 □게시판 □내방 □기타	

1. 내담자 정보

이름	닉네임: 실명:				
성별	□ 여성 □ 남성 □F to M 트랜스젠더 □M to F 트랜스젠더 □기타				
내담주체	□ 당사자 □ 비 당사자				
내담구분	□ 본인 □ 가족 □ 교제관계 □ 친구 □ 동료 □기타				
성정체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이성애자 □고민중 □기타				
나이	( ) 세 □10대 □20대 □30대 □4-50대 □기타				
결혼여부	(이성과의 결혼여부를 말함) □결혼 안함 □결혼함 □이혼함				
상담 경험(타 단체)	□ 있음 □ 없음				
직업		지역		메일주소	

2. 내담자 상태

정 체 화: □함 □안 함/못 함 □해당 없음	레즈비언 커뮤니티 경험: □있음 □없음 □해당 없음

3. 상담 종류

□ 성정체성 (□고민 □확신)	□ 동성애혐오(□본인 □지인)
□ 커밍아웃	□ 아웃팅
□ 교제	□ 가족관계
□ 학교 (□차별대우/따돌림)	□ 직장 (□차별대우/따돌림)
□ 범죄 (□성폭력)	□ 성관계 (□동성 □이성)
□ 종교	□ 신체 및 심리질환
□ 결혼	□ 정보문의

4. 세부 내용

1) 커밍아웃	□ 커밍아웃 준비	□ 커밍아웃 후 관계회복	□ 관계악화 (□가출□이혼)	□ 기타
2) 아웃팅	□ 고의적아웃팅	□ 무고의적아웃팅	□아웃팅매개범죄	□ 기타
3) 교제	□ 짝사랑 및 고백	□ 교제중/이별 (□금전)	□ 동거 및 자립	□ 계약 등	□ 기타
4)학교/직장	□ 차별 대우	□ 따돌림	□ 체벌	□ 기타
5) 성	□ 성관계	□ 성 매개 질환	□ 성 관련 정보	□ 기타
6) 성폭력	□ 동성간	□ 이성간	□ 가해경험	□ 친족성폭력(□동성 □이성)	□ 기타
6) 성폭력	□ 아동기	□ 성인기	□ 기타(지속적)	
7) 범죄	□ 스토킹	□ 폭언/협박	□ 폭력	□ 가정폭력	□ 사기 등	□ 기타
8) 종교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무교	□기타( )
9) 의료	□ 우울증	□ 섭식장애	□ 신체장애	TG 관련	□ 기타
10) 결혼	□ 결혼 압박	□ 결혼 유지(레즈비언)	□ 이혼고려/이혼	□ 기타
11) 문의	□ 가족구성 (□입양)	□ 레즈비언 커뮤니티	□ 산부인과 문의	□ 성 용품 구매	□ 기타

5.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

□ 인터넷 검색	□ 레즈비언커뮤니티	□ 신문/잡지	□ 지인소개	□기타( )

2부

발제 및 토론

LGB(TIQ)HA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 상담

발제·글 | 소윤

들어가기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이하 상담소)에서 상담활동가로 교육을 받은 것이 작년 7월, 거의 반 년 동안의 교육 후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한지 이제 11개월을 막 채워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00상담은 정말이지... 지겨워..."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를 거르지 않고 올라오는 성정체성 상담(이하 정체성 상담)은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의 30-37%[1]로 매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상담은 상담소에서 다루는 주된 상담이며 때문에 상담원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혼란과 고립감, 내적 호모 포비아를 공감해 줌과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습니다. 상담소는 정체성을 규정해 주기 보다는 정체성 탐색을 돕고 내담자의 정체성이 항시 열려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들이 고민 중인 자신의 상태에 자신감을 얻고 열린 고민을 할 수 있는 심적 안정과 여유를 가지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고민하는 내담자의 유형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대부분 (신기할 정도로) 정형화[2] 되어 있어, 상담원들에게 정체성 상담은 제일 보람된 일이 되어야 함에도 제일 힘 빠지게 만드는 내담으로 취급받곤 합니다. 물론 내담자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 구체적 상황과 맥락은 여러 경우가 있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해석하는 방식은 사회적인 관점(이성애주의, 가부장제, 여/남의 권력 관계, 성역할에 관한 통념들)이 많이 스밀 수밖에 없어서인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활동가들 역시 다른 상담에 비해 정체성 상담을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

1) 2005년 상담통계에서는 교제관계 상담이 다양화 되지 않아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정체성 상담이 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후 2006년~2008년 상담에서는 각각 30.61%, 37.13%, 36.12%로 제일 많이 접수된 내담임을 알 수 있다.

2) 성정체성 상담의 유형은 단순정보 요청(레즈비언은 뭔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체성 판정요청(제가 대체 뭔지 당장 결정해 주세요), 원인 분석형(저는 과거에 이런저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가요?), 미성년자형(저는 아직 어립니다. 이게 정말 저인가요?), 자기 혐오형(제가 너무 싫습니다.), 동성애 혐오형(엘리트형, 죄책감형, 상대 탓형, L 혐오형), 격한 감정형(저희는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모두 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등이 있다. 대부분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혐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발현되는 방식은 각자의 상황을 정당화 하는 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하면서도 결국 같은 결론 즉 '내가 동성애자일 순 없다'는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체성 상담을 대하는 상담원의 안이한 태도를 확 깨는 정체성 상담이 간혹 상담소 게시판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레즈비언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자신의 성별에 대한 불만과 불안, 불신을 가지게 되는 내담자들입니다. 혹은 여기가 '그놈의 레즈비언' 상담소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왠지 관련 되는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엷은 FTM[3]'들의 고민과 '진한 FTM'들의 고민들은 레즈비언 상담을 하겠다고 상담소로 찾아 온 제게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지요. 상담을 하면서도 알쏭달쏭하고 모니터링 시간에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개인적으로는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지점들을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면 성정체성(sexual identity)과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의 미묘한 관련성[4]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2008년까지의 상담카드로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성정체성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는 여러 내담을 접하면서 떠올랐던 여러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차라리 남자가 되겠어요.
"그 애가 좋아요. 차라리 제가 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눈으로 그 애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성애주의가 만연한 이곳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여성을 좋아하게 됨에 벅차 오른 감정과 동시에 찾아오는 정체성의 혼란은 내담자를 많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남자의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빗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이성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종종 자신의 여성정체성을 부정하고 싶다는 식, "제가 여자라는 사실이 저주스럽습니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기존의 이성애 사회에서 동성애라는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자 모순적이게도 여태껏 의심해 보지 못한 자신의 성별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 '돌발적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내담사례 1)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젖가슴도 막 주먹으로 패기도 했구요. 남자로 성전환 수술이라도 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현실을 이해하기로 해서인지 그냥 포기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 실망을 주고 싶지도 않고요. 들키면 맞을 것

3) FTM(Female to Male)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때의 남성은 성전환수술의 유무나 필요성 인지 유무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정체성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4)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잦은 이유는 성정체성 즉 동성에게 끌리는 성적 지향을 이성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태도 때문에 성정체성 혼란이 성별정체성 혼란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성별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기에 성별정체성의 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 그냥 '호모'로 통칭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과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성정체성이 내가 끌리는 상대방의 성별이 나와 같은가 다른가의 문제라면, 성별정체성은 내가 나의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다.

같고요. 심하면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내담사례 2)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사귄 적은 없고 그냥 짝사랑만 해왔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았죠. 요즘엔 사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막 다 해주고 싶고. 내가 남자라면 좋아하는 여자한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 하고요. 요즘엔 지나가는 남자들만 봐도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여자를 사랑 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근데 엊그제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여자를 좋아하는 여성'의 성립불가를 본능적으로 의식한 내담자들은 "자신이 남자였다면..."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합니다. 이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내담자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것이지만 그 혼란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별에 의심/불만/불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때 하게 되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성정체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기 보다는 단지 현재의 혼란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내담의 경우 상담소에서는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동성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상대와 다른 성별을 가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그릇된 것임을 알려주면서 굳이 자신이 남자가 되어 '정상'적인 연애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 것은 정체성 고민에 답을 줄 수 없으니 과거의 경험과 관계들을 잘 되돌아보면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도 조언하죠.

내담자들은 당장의 혼란과 불안함에서 벗어나고자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소에서는 내담자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우려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지지 그리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상담소에서는 성정체성에 관해서는 그 가능성을 최대로 열 수 있도록 내담자가 상상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 그러한 선택지를 많이 열어주더라도 내담자가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언어로 이를 설명하기 때문에 내담자들은 굳이 레즈비언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게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이 '열려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자를 좋아할 수 있으니 남자가 되고 싶다"는 내담자들에게 성별정체성의 고민을 얼마만큼 열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의 겹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내담자에게 항상 FTM 정체성까지 늘 열어줄 수도 없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그것인지 아닌지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엔 내담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상담원이 추측하여 정확히 성별정체성 고민과도 연결이 되겠다 싶은 경우엔 TG, FTM등에 대해 자세히 짚고 넘어가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성애 중심사회, 남녀 이분법 속에서 동성애 정체성을 직면하기 어려우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2. 부치냐, FTM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딜 가도 박쥐 취급을 받습니다."
"저는 저를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제 여자 친구는 레즈비언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얘기는 내담 사례를 먼저 보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레즈비언 부치[5]냐, FTM 이성애자냐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저도 용어가 막 헷갈리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내담사례 3) FTM이란 것을 알게 되면서 살펴보니 제 평소 성향이라든지 행동이나 사고[?]들이 레즈 보단 FTM에 가깝다고 느껴지더라구요. 길 가다가 "여자처럼 생겼네" 라는 소리 들으면 남자로 알아주는구나하고 막 기쁘구요. "남자처럼 생겼다."라는 말도 굉장히 슬퍼지는... 신체적 특징도 저는 어깨도 떡 벌어지고, 말투도 행동거지도[선머슴아 같은] 자라왔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고, 가슴압박하고 외출 하거나, 남자 옷 입고 다니고, 여자들 심리라는 것도 도통 이해 못하겠고... 이런 얘기를 어디 하자니 FTM들이나 그들의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도 저는 어쩐지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체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될 이해받지도, 어딜가도 환영받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특이종의 괴물로 느껴지는 거에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알고 나니 더욱 우울하고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연애도, 사랑도, 심지어 친구도 만들기도 무서워졌습니다.

성정체성을 고민해본 경험이 있는 FTM 내담자의 경우 대부분 레즈비언커뮤니티에 속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레즈비언과 자신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이 구별은 여자들 속에서 느끼는 부대낌 때문에 시작될 수도 있지만 FTM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봐서 확실히 정체성은 어떤 언어가 새로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한 없이 연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인지한 FTM들에게 성정체성은 레즈비언의 성정체성과는 분명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부치로 '통하던' 그들이 자신을 FTM 남자로 정체화하면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FTM끼리 만나는 것은 만난다고 쳐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생물학적인 여성이면서 이성애자인 여성을 만나기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서 반려자를 찾는 것도 어색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피하고자 그냥 부치로 '통하는' 것(패싱 passing)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즈비언커뮤니티에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지만 그녀는 레즈비언, 즉 여자를 좋아하는 여성인데 자꾸만 자신을 남자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여친(남친?!)이 이해가 될 리 없습니다. 관련 대담은 대체로 FTM 남성이 자신의 여친의 요구(그냥 여자로 살면 안 되겠니?)와 자신의 FTM 애인의 요구(나를 남자로 봐주면 안 되겠니?)의 충돌로 내담이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레즈비언들과의 관계가 자신이 FTM정체성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원해 지면서 겪게 되는 고립감 등을 호소합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들이 너무나 철저히 이분화 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들을 천천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성애중심주의를 설명하는 것 외에도 단일한 정체성만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폭력성을 조심스레 건드

5)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남성적인 역할을 하는 쪽을 가리킨다.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이쉬한 외모와 행동 등에 따라 부치라고 부르거나 부치로 자신을 명명하는 식이다. 부치(butch)에 상응하는 단어는 펨(femme)으로 여성스러운 외모에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쪽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모든 레즈비언들에게 적용되거나 이러한 구분에 모든 레즈비언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이 구분에 대해서는 논쟁 중이다.

리기도 하고 생뚱맞지만 의외의 해결점이 되기도 하는 '애인과의 대화'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편으로 상담을 하건 정체성을 고민하는 여러 과정 속에 있는 내담자들이 자신을 책망하거나 고립감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 연계 가능한 단체,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담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은 여전히 남아 상담원을 괴롭힙니다.

3.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
"저의 파트너를 위해 성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요."
"파트너가 자꾸만 제게 성전환을 권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성별에 대한 고민은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지가 꽤 된 레즈비언 커플 간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성정체성 고민이 완벽히 해결된 사람들은 다른 바이오 헤테로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성별정체성이 평생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죠. 특히 내담자들은 파트너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 의외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내담사례 4) 현 애인과 7년째 잘 만나고 있고, 서로의 아이를 추후 계획할 정도의 관계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제 정체성입니다.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고, 여느 남자처럼 자라왔기에 별 탈 없이 그냥 남들 눈에는 부치로 남자 같은 보이쉬로 자리 잡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여자 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제 정체성의 의심이 많이 갑니다. 여자 친구에게만큼은 부치가 아닌 남자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자 친구를 남자로서 곁에서 지켜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에 관련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현재 트레이너라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합니다. 천연이라 부작용은 없지만. 음핵이 커지고 발기가 되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성별정체성과 성정체성 고민은 뭐가 먼저였냐에 따라 고민이 여러 갈래로 흩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어떤 정체성은 심각히 고민하지만 어떤 정체성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어떤 고민은 했는데 이 고민은 왜 못하느냐고 따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함께 여러 갈래의 고민을 함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성별 정체성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여자 친구를 만나고서는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다는 경우, 여친이 헤테로인 경우에나 가능할 법한 것 같지만 여친이 레즈비언임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성별정체성 고민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자로서 여친을 지켜주고 싶습니다.'는 표현에서 동성교제의 불안함을 엿볼 수도 있어 둘 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본인은 레즈비언인데 여자친구가 헤테로여서 자신에게 성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FTM이지만 성전환을 (원)하지 않는데 헤테로 여성과 사귀고 있을 때 파트너가 성전환을 권하는 상황에서는 성전환의 의미, FTM의 성전환 (불)필요성, 여성의 몸의 의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정체성, 내적 고민의 중요성 등 복잡한 얘기를 풀어봐야 합니다.

성별 정체성 고민은 단순히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 불신이라는 당사자의 내적 동인에서만 시작되지 않고, 파트너와의 관계(파트너의 정체성, 성역할 구분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 미래 계획(가족: 임신/출산/육아), 섹스 포지션, 의학적 정보노출 등의 다양한 요인 속에도 발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들 중 어떤 것은 무게 있게, 다른 것은 가볍게 다루면서 상담원이 쉽사리 성별정체성 고민의 진실성을 떠볼 수도 없고 증명을 요구해서도 안 될 겁니다. 고민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내담자의 고민이 성별정체성과 성정체성, 여타의 정체성들과 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뤄져야 하는지가 참 고민입니다.

4. 오랜 시간 '독특한' 여자로 성장

"어렸을 적부터 총 놀이, 로봇, 짧은 머리, 파란색, 굵은 목소리, 골목대장 역임...!"

"어머니께서도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 헷갈리실 정도였지요. 그래서 여자가 좋은가...?"

내담자들은 종종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의 원인[6]을 과거 자신의 유년시절에서 찾곤 합니다. 특히 남달랐던 자신의 성 역할[여기서는 남성성]에 주목하는 내담자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이 과거의 '남자(아이)로서의 경험'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건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였건 보통의 여자(아이)와는 분명 다른 자신의 모습이 훗날 레즈비언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성애 구도로 원인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유년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FTM 정체성을 확신하는 내담자가 등장했을 경우엔 단지 이성애 구도 혹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역할 구분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담사례 5)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들에게 죽은 뱀가죽을 들고 장난쳤고 남자아이들과 칼싸움 또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릴 때 사진들을 보면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같이 해있습니다. 이 점에 저도 의문을 품고 물어보니 어머니께선 제가 자발적으로 단 한 번도 여자 옷을 입겠다고 해본 적이 없다고 시인하시더라고요. 다 자기가 억지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와서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짧은 머리를 하고서 여자아이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난리쳤습니다. 폼 잡고 강해 보이려고 쇼하고 진심으로 여자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3때의 어느 날 친구들에게 성전환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욕 들으면서 연을 끊겠다고 아이들이 그러자 두려워서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장난이라고...

---

6)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의 원인은 소위 동성애의 원인을 추적하야 이를 고칠 수 있는(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거나 '비정상적'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그릇된 결과라고 단정 짓는 식의 태도와는 구별된다. 레즈비언은 레즈비언 정체성을 긍정하면서 이를 토대로 자신의 현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재)구성하게 된다. 특히 과거의 기억은 정체성을 긍정하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다시 의미화되고 또 다르게 해석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시키게 된다. 여기서의 원인은 그러한 과거 회상이나 기억의 재구성 과정에서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었던 조건들을 스스로 찾아서 의미부여 하는 것이지 단지 인과관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난히 남달랐던 자신의 유년시절의 경험들을 다시 기억해 내고 서술함으로서 당시에는 그것이 정체성과 관련한 행동이나 사건으로 해석되거나 인식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진다.

쉽게 남성성이라고 이해되는 여자아이 괴롭히기, 칼싸움하기, 멋있게 보이기라는 남자(아이) 되기는 뒤에 설명할 여자(아이) 되기의 거부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자되기는 생물학적인 남성에 대한 갈망보다는 1) 남성의 역할, 정확하게는 남성이 하는 일이라고 평가되는 역할에 대한 갈망으로 읽힙니다. 남성이 사회에서 받는 지지와 남성의 역할이 평가되는 방식이 자신에게도 해당되기를 원하고 있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원은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2) 내담자가 어렸을 적부터 지녀왔던 활달한 성격을 사회에서는 "남자아이 같다" 혹은 "여자애답지 못하다"는 수식어로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내담자 본인의 고유한 성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남자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가벼이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3) 본인의 생물학적 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 혹은 사회에서 흔히 여성성이라고 부르는 특성을 굳이 버리려거나 부정해야 할 필연적 이유를 물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혼자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질문은 뒤에 이어질 여성의 몸과 삶을 강력히 거부하려는 움직임과도 관련됩니다.

5. 여성으로서의 몸/삶 혐오

"가슴을 막 때렸어요. 들어가라고. 생리를 시작했을 땐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가슴을 좀 줄이거나 없애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와 여성의 몸이 가지는 불편은 이성애 여성, 생물학적인 여성, 레즈비언 여성, FTM의 여성으로서의 기억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통하는 많은 이들이 겪는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억압과 대상화, 여성성에 대한 평가절하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지요. 이와 동시에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평가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여성의 삶에 대한 부정과 남성적 삶이 지니는 우월성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내담자의 상담글에서 여러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여자 취급 받는 것이 불쾌하다", "성폭력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여자들끼리 있는 게 피곤할 때가 있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남자가 싫은 것 같다" 등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과 차별이 우리에게도 스며있음은 강조하는 게 새삼스러울 정도입니다. 상담소를 찾는 많은 내담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쏟아내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삶'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레즈비언 상담소가 여성주의적 상담을 지향해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레즈비언 상담소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필 수 있어야 함도 뜻한다고 보는데요. 여성의 몸/삶이 우울과 좌절 혹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식의 부대낌으로 드러날 때 어떠한 상담이 제공되어야 할는지 늘 고민이 됩니다.

내담사례 6) 저는 평소에 남자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생긴 것이나 목소리나 행동 같은 면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거의 다 남자라 여길 정도입니다. 딱히 남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자취급 받는 걸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터라 성전환 수술도 생각하고 있으나 트랜스젠더는 아닙니다. 제가 여성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좀 모순이지만요. 이런 제가 지금 여자아이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애감정인지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내담사례 7) 24살 여자입니다. 여기엔 처음 글을 올리네요. 저는 솔직히 성전환 수술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슴이 너무 커서 가슴을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저런 여건이 안돼요. 테스토스테론을 맞으면. 가슴이 좀 들어가기도 한다는데. 솔직히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고, 어디 가서 맞아야 할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산부인과 가보라고 하던데 산부인과 무작정 찾아가서 테스토스테론 맞고 싶다고 하면 왠지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 같고요.

최근 성전환 수술에 대한 의료적 정보가 많이 제공되면서 내담자들 역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학적 조치들이 효과적일지, 안전할지를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심한 부대낌에서 시작된 성별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몸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술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놓을 것, 그 선택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라고 권유하는 상담의 내용이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곤 합니다.

6. 남성레즈비언/ FTM 게이 등
"저는 한 번도 제가 남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좋아요"
"저는 여자로서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로서 남자를 좋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훑을 내용은 바로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이 말 그대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내담자들의 경우입니다. 본인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새로이 자신을 정체화한 성별과 동일한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지요. MTF 레즈비언, FTM 게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쉽지만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담자들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레즈비언과 게이를 정의하는 기본 전제인 남/여라는 성별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별정체성 상담이 복합적으로 섞인 내담을 읽어내리면서 "남자건 여자건 무슨 상관이죠?"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 질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성별 구분을 무너뜨리고서 초(超)성별정체성을 주장하기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성별을 통해 겪어온 경험들이 너무 간과되어 버리진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단어가 아닌 여러 단어가 조합된 복합적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상담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저는 섹스할때는 여자처럼, 밥먹을 때는 남자처럼, 공부할 때는 여자처럼, 길을 걸을 때는 남자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섹스할 때는 남자같고 밥먹을 때는 저처럼 남자같고 공부할 때는 남자같고 길을 걸을 때는 약간 게이 같은 레즈비언 친구를 만나고 싶네요." 식 처럼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나 할까요. 도대체 어떤 게 남자같은 거고 여자같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내담사례 8) 전 20대 후반으로 들어서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너무 되고 싶어요. 여자와 같은 심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순간적으로 나를 여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으로는 여자에게 끌린다는 거에요. 전 남자지만 남자혐오증이 있거든요. 사회의 어두운부분만을 봐와서 그런 걸까요? 예쁜 여자들을 보면 강한 질투심이 나

고 열등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성전환 수술도 고려해보고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불완전한 여자가 되는 건 싫더라구요.

나오기. 레즈비언 상담, 레즈비언 상담소: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누구와 함께!?

-내담자 왈: 이 상담소의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상담소 왈: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상담이 아니라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내담자의 성별 통계를 보면 FTM, MTF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가 1년에 2명~13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내담했단 사실을 보면 이 문제가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했듯 상담원이 "이 내담은 단순한 성정체성 혼란에서 나온 고민, 성역할 구분에서 나온 고민, 과거 이력에서 나온 것"으로 정리해 버릴 경우엔 성별정체성 고민으로 구분도 안 되고 상담카드에 성별정체성 고민이 분류되지도 않아서 드러나지 않지만 다양한 고민이 상담소로 들어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레즈비언 상담소에서 성별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점은 내담자나 상담활동가나 내 마찬가지인지 관련 내담은 "이 상담소의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2005년 상담 글에도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상담이 아니라..."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아마도 상담소가 하는 '레즈비언상담'이라는 것이 내담자에게든 상담원에게든 그 대상과 내용, 방법 등이 이미 따로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예상(혹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이 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상담소에서 해 온 레즈비언 상담이 그만큼 독자성과 전문성을 지니게 됐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레즈비언 상담이 다방면으로 심화되고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지지하고 이를 억압하는 요소 타파, 레즈비언이 겪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 상담소의 설립목적과 활동 목표, 지금까지 상담소가 지향해온 활동, 상담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 의해 조금씩 만들어진 성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소가 정체성 문제에 민감해지고 다각화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고민들을 짊어들고 상담소 문을 두드린 내담자들의 공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담원만의 포비아와 편견, 고정관념이 흔들리면서 이와 레즈비언과 여타 성소수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고, 확고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념들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의지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소로 모이는 사람들의 고민의 결을 더 겹겹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상담소의 '레즈비언 상담'이라는 것은 레즈비언만을 대상으로 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한 이후의 삶에서의 문제들을 푸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과 상담활동의 출발점은 레즈비언이지만 상담의 대상과 내용, 상담의 방법과 지향은 앞뒤 위아래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성애자로서의 정체성과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담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스스로의 고민을 독려하는 것, 다양한 정보와 언어를 제공하

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바로 레즈비언‘적’ 상담인 것이고, 성별정체성 고민 상담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담이 지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그게 바로 레즈비언상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성별정체성과 성정체성을 별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다양한 지점을 짚고 넘어갈 때 레즈비언 정체성을 화두로 고민하는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레즈비언‘적’* 고민을 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레즈비언 상담이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데 국한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대 혼란이었습니다만, 즐거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자칫 타인의 정체성 고민을 가벼이 여기거나 배제하면서 레즈비언 상담의 범주를 멋대로 규정해 버릴까 늘 긴장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긴장이 없었다면 상담원으로서의 성장도 없을 것이고 상담하는 재미도 없었겠지요. ‘만만하던’ 정체성 상담을 더 치열하게 만들어주신 내담자들 덕분에 머리를 싸매고 오늘도 자판을 두드리고 있답니다.

십대 레즈비언 상담

발제·글 | 선의

1. 들어가며: 십대 그리고 레즈비언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찾는 십대의 비율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4.8%, 24.11%, 28.51%, 25.62%로 꾸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십대 내담자가 들고 오는 고민들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또 이런 질문이구나!'하는 뻔한 레퍼토리의 것이면서도, 어떤 때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놀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시작한 지 어언 11개월 만에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는 진리(?)를 깨우쳤다고나 할까요.

뻔한 레퍼토리의 내담은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십대 내담자가 가장 자주 들고 오는 고민은 동성과의 경험이나 동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 그리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긍정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 동안 동성에게 들었던 감정을 풀어놓거나 현재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생겼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물으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인(!)받고자 상담소에 묻습니다. 이러한 십대들의 물음표에는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이 사춘기의 호기심이지 않을까, 여중과 여고를 다니면서 친구에게 드는 동경심이지는 않을까, 레즈비언이라면 고쳐야하는 병은 아닐까 하는 수많은 의구심들이 따라 붙습니다. 자신의 동성에 대한 이끌림, 욕구를 이미 받아들여 레즈비언으로 자신을 명명하면서도,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도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을 생각하면 막막한 두려움이 든다고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불안함에 손목에 자해를 한다는 이야기에 상담원도 함께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학교에서 애인과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호모포비아적인 반응에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가족에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는 연애사를 털어놓기도 하지요. 애인과 '진도'는 어디까지, 어떻게 나가야 할 지 상담원도 부러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내담의 내용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상담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내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담자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맥락이 모두 같지는 않으니까요. 동성의 상대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는 경험에 대해서도 어떤 내담자는 어렵지 않게 그 감정과 경험을 긍정하는 한편, 어떤 내담자는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자신을 부정하고 고치고 싶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고민하다가 상담소 문을 두드리는 내담자가 있는가 하면, 이미 자신을 긍정하고는 다른 레즈비언들과 만나 교류하고 싶다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내담자를 둘러싼 가족, 친구, 학교 등의 상황도 반응도 모두가 다른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정확한 답을 주거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다르게 아프고,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상담원이 두 가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대 내담자에게 이성애가 아닌 다른 성정체성을 갖는 것이 이상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드는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십대라는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기 일쑤인 십대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긍정해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내담자와 상담원 상호 간에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상담소로 십대 내담자들이 풀어놓았던 고민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지 등을 알아봄으로써 십대들이 자기들의 감정과 욕구를 긍정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십대 내담자들을 둘러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학교 등은 어떻게 십대 내담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함께 고민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십대 레즈비언들의 다양한 고민의 결을 한층 두텁게 이해하고 풀어나가고자 노력한 상담소의 상담이 그동안 어떠해왔는지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상담원과 하나씩 이야기해나가 볼까요?

2. 다양한 고민의 갈래들

(1) 제가 레즈비언인가요?

“혹시라도 제가 레즈비언이라면(아니겠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고등학생 정도면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냥 한 때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제가 다니는 중이 여중이고 제가 아는 남자 애들이 극소수의 후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제가 사춘기라서 그런 건지, 제가 음란물을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천적인건지, 그리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삭혀야할지, 그냥 제가 지금 진짜 동성애자인지 알려주세요.”
“지금은 정말 공부에만 신경 써야 하는 나이인가요? 중간고사 망치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결심했지만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가 없네요. 이런 고민은 일부러라도 머리에서 사라지게 해야 하나요?”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십대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함에 있어서 어떠한 호모포비아들과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성에게 느끼는 이끌림에 자신이 레즈비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서 빨리 성정체성을 확인(?)받고 싶다는 조급함, 자신이 레즈비언이 된(?) 이유를 찾아야한다는 것 등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놓습니다.

이 때 상담원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소중히 하고, 솔직하게 바라보아도 괜찮다고 설명하지요. 십대에 대한 편견,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들을 모두 뒤로 하고, 내담자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충실히 바라보고 살피며,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담자 스스로 직접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호기심 때문에 동성의 상대에게 끌렸다면 그 호기심을 채우고 키워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성의 상대에게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될 일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져도 괜찮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자는 것이에요. 동성애 자체가 잘못된 무언가가 아니라면 호기심을 갖건 진지하게 탐색하건 문제될 게 없겠죠. 또 여중, 여고 등 여자들만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이반이 된 것 같다는 내담자들에게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도 줄곧 이성에게만 끌리는 반례를 통해, 여자들만 있는 환경이 레즈비언을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공학만 다닌 사람들 중에도 레즈비언이 많다는 반례를 통해서는, 단순히 이성과 어울려 생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사람의 성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알려주지요.

또 십대 내담자의 경우, 성정체성 고민이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담소 게시판을 찾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요. 이때에는 내담자 스스로를 레즈비언인지 양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 일이 아님을 알려주어서 내담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정체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당장에 명명하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직면하는 작업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게 돕는 것이지요. 성정체성은 인생의 어떤 시기에건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그것을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확정지어야 할 이유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 학교에서 생긴 일

①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좋아하는 같은 반 여자애가 생겼어요. 개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백했다가 소문나면 어떻게 하죠?”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해도 될지, 어떻게 고백해야할 지에 대해 물어오면, 상담원도 함께 그 상황을 머리에 그려봅니다. 상대방과 내담자가 놓인 관계가 학교 안의 것이고, 상대방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동성의 상대방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커밍아웃이 됨을 알려주고, 고백 이후에 내담자가 겪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상상해보도록 합니다. 또 고백 이전에 내담자가 너무 서두르지 않아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대방과 함께 동성애 관련 주제로 상대방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백 했을 경우,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상상해보고, 상대방에게 내담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역시 잊지 않도록 합니다. 가끔 이러한 내용의 내담은 그 이후 고백해서 친구와 사귀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한답니다.

② 친구가 레즈비언이에요

"지금 여고를 다니는데요. 제가 레즈가 아니라 같은 반 친구가 레즈..인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저를.. 상대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가족 및 지인 상담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가끔은 동성 친구로부터 고백을 받았다거나 친구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내담도 있습니다. 동성에게 고백을 받는 일이 동성애에 대한 고민이 어려웠을 내담자에게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인지 공감해줍니다. 하지만 이는 동성애가 이상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이성애주의 사회 때문임을 주지시키고 동성애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주도록 노력합니다. 고백한 친구와 이야기 나누면서, 성별을 떠나서 고민할 수 있도록 돕고, 고백한 친구의 성정체성에 대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③ 선생님을 좋아해요

"이번에는 사랑에 빠진 대상이 또 하필이면 학교 선생님이라서 요즘 문제가 참 많네요.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워낙 열정적이라, 선생님을 향한 제 열렬한 마음을 숨기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제가 우리학교 여자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까지 첫사랑도 없었는데 왜 하필 선생님이고 여자인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학교 혹은 학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십대 내담자의 글도 간혹 마주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을 향한 내담자의 마음 자체에 대해서 내담자가 동성의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끌리는 것은 잘못된 것도, 고쳐야 할 것도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상대가 동성이든 나이가 많든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니까요. '난 왜 선생님을 좋아하는 걸까, 동성인데다가 나이차도 많이 나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하고 내담자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내담자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성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상담 받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는커녕 숨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④ 또래집단에서의 아웃팅

“우리 반에 유별난 호모포빅이 있는데요, 지금 학기 초부터 애인이랑 저보고 레즈라고 자꾸 욕하고 그러더니 이젠 우리 사귀는 거 알았는지, 여고에 연애하러 왔냐면서 자기들끼리 말해요.”

“학교에서 레즈 소문이 났어요. 적지 않은 애들이 그렇게 알고 있나 봐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문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반 애들은 아니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려는 분위기예요. 전에는 사과도 받았어요. 레즈인 줄 알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그 소문 낸 사람 찾는 거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3학년 되면 반이 바뀌는데 그럼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학교 안에서 난 소문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떤 소문이든지간에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고 공감해줄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내담자가 레즈비언으로 아웃팅이 되어 소문이 났다거나, 내담자와 애인 관계가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거나 하는 일은, 내담자 혹은 내담자의 애인이 레즈비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레즈비언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학교라는 틀, 또래집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갖는 소문의 힘도 무시할 것이 못 되지요. 그래서 상담원은 학교의 분위기, 아이들의 직접적인 반응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의외로 학교에서 '소문'만 무성하고 별다른 혐오적 반응은 없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귀에 들어갔을 때 생길 일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환이라든가, 개별 상담 권유, 친구와의 접근 금지 명령 등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택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예측해 보는 것은 내가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추측해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학교 안에서 내담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적자면, 먼저 레즈비언 임을 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인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소문에 불과하다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 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본인 스스로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고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담자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인식 탓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지요. 또 당장에 애인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진심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이런 거짓말이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서로 꼭 이야기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남자 연예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혹은 반대로 사실을 인정하되, 아웃팅을 하고 소문을 낸 친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 대해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명백한 범죄야”, “아우팅

범죄로 인권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어” 등으로 이런 식으로 똑 부러지게 ‘경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때는 내담자의 주변에 내담자와 내담자의 애인 관계에 대해서 내담자 스스로 힘을 갖고 있고, 주변에 내담자를 지지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학교와 호모포비아

“제 애인 반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딴 애들은 다 떨어져 앉아있는데 너네 둘만 붙어있네, 요즘 애들 다 왜 그러냐,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고.. 너네 둘 레즈 아니냐? 너네 둘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검사 좀 받아봐라”

학교 생활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십대 레즈비언의 경우, 호모포비아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상상해봅니다. 또래 친구들 뿐 아니라 그들의 괴롭힘을 방임하거나 조장하고, 나아가 위의 내담 사례처럼 호모포비아적인 발언을 일삼고 처벌을 하는 교사가 있는 경우, 그들의 행동이 잘못 되었음을 짚어줍니다.

또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십대들이 교내에서 벌어지는 이반검열(이반 아이들을 상대로 한 학교의 강력한 감시와 규율)로 또래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학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벌점을 받고, 심하게는 자진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레즈비언들의 삶이 쉽지 않지만, 특히 십대 레즈비언들이 처해진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십대 이반에 대해 동성애를 한 때의 탈선, 꼭 교정해야 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십대 이반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라는 작은 집단 안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부정적인 시선은 견디기 괴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상담소 인권정책팀에서 지난 해 진행했던 ‘십대 이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른 성소수자 인권 단체의 십대 이반 인권을 위한 노력과 움직임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십대 이반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내담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괴롭힘이 부당하고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상담소가 개입하여 사건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립니다. (이 경우의 사례와 한계 등은 ‘위기 상담과 사건 지원’을 참고해주셔요.)

(3)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휴, 정말 제가 어른이 되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상상하면 정말 이상해요.”

십대 내담자들은 자신의 ‘어른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대 레즈비언 커뮤니티와 성인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분리되어 성장해왔고,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현실에서 마주하기는커녕 텔레비전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십대 내담자들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고민이 온전히 자기 혼자만의 고민으로 생각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성정체성 고민이랄 것도 없이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가장'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상담원의 경험이나 상담원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 예시를 통해서 레즈비언으로서의 삶 역시 다양한 역할 모델이 존재하며,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이 혼자만의 혹은 파트너와의 단 둘이서의 삶이 아니라 다함께 나누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레즈비언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십대 내담자에게는 상담소를 비롯한 레즈비언 권리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주제로 모인 수많은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것 등을 알려 줌으로써 내담자가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담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적절히 고민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소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가족과의 관계

"저는 우리 집의 장녀입니다. 밑에 동생도 있고,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가족에게 제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행동할지, 무섭습니다."

가족과 관계 맺는 방식은 저마다 깊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겠지만, 이성애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 내에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고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여느 레즈비언에게 모두 힘든 일입니다. 십대 내담자 역시 가족 내에서 미래의 결혼과 가족 부양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곤 해요. 또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부대낌은 꼭 '레즈비언'이어서가 아니라 여느 십대가, 또 누구나 겪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때 내담자들을 지치게 하는 성정체성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 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정체성과 관련된 비밀을 만들어 내거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상을 그려보면서 말입니다. 내담자가 레즈비언이어서 가족에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기에 스스로의 자긍심을 키워나가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도록 돕습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는 내담자에게는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때,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지금 당장 커밍아웃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못하는 일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꼭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라고 말하는 방법 이외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가족들에게 힌트를 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 매우 섬세하고 신중한 사전 작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가족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담자입니다. 가족들은 커밍아웃을 무시하거나 협박하거나, 감금,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담자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지지집단이 되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그리고 커밍아웃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

니라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5) 십대 레즈비언과 쉼터

“저는 16살인데요. 제가 집에 떵인 거 걸려서 가출을 했는데 돈도 없고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어느 날은 신공에서 밤도 세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쉼터를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한테 듣기로는 떵 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떵 쉼터가 있나요?”

여느 십대들이 가출을 선택하는 이유들과 십대 레즈비언들이 가출을 선택하는 이유는 많이 겹치기도 하지만,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상황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이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둘은 구별됩니다. 집에서 커밍아웃을 한 뒤의(혹은 아웃팅이 된 이후의) 상황—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한 간섭, 블로그나 미니홈피 점검 등의 사생활 침해, 동성애를 ‘치유’하도록 상담 강제, 폭언과 폭행 등—을 견디기 어려워서, 애인과의 관계를 들켜서 그 이후의 상황이 걱정 되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부대끼고 있어서 학교에 가기 싫은데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집에 말할 수도 없는 데다가 출구를 찾지 못해서,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늘 거짓말하고 눈치 보며 사는 것이 답답해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고 미안해서, 레즈비언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 독립하고 싶어서 등 십대 레즈비언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출 이후에, 십대 레즈비언을 포함한 십대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끊임없이 위험한 상황(성폭력, 원조교제, 성매매의 위협 등)에 노출되며, 실질적인 자립을 차근차근 준비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성정체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온전히 긍정하기 쉽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상담소 상담팀은 2007년부터 쉼터 방문 프로젝트를 통해 쉼터의 활동가들을 만나 쉼터의 십대 레즈비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쉼터와 연계망을 갖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정체성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해 쉼터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막으며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십대 레즈비언들만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요. 또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 잘 훈련되고 감수성 있는 쉼터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쉼터는 십대 레즈비언들이 스스로 분산, 고립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지지기반을 만들어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소수자 진영뿐만 아니라 청소년 쉼터 운동을 하는 폭넓은 진영에서 십대 레즈비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6) 섹스에 대해 말하기

“저희가 사귄지 5일 만에 키스를 하고 50일 되기도 전에 서로 가슴만지고, 막 정말 섹스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저희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에요. 애가 자습시간까지 다 빼먹으면서 화장실에 가서 둘이 처박혀서 야한 짓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면 좋죠? 걔도 저도 진도를 더 나가고는 싶은데.”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애인과 키스를 하다가 약간 이성을 잃어서 그 아이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어쩌다보니 그 아이도 그랬고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지금은 아직 어려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렇게 키스를 하긴 하지만 별로 떨리거나 흥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동성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저는 17살인데요. 처음으로 애인과 사귀게 되었는데,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영 마음이 좋지 않네요. 보통의 17살 같으면 안 그러죠?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또 그러지 못하니,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십대 내담자들은 애인 혹은 좋아하는 친구와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십대라는 이유로 죄책감을 갖곤 합니다. 보통의 십대들은 내담자와 같은 욕구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애인과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십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요. 십대들의 욕망과 감정은 억제해야 하는 것이 되어왔던 만큼, 십대들은 자신의 욕구에 솔직해졌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혹은 그 감정을 탓하거나 부정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며, 이 때 내담자가 십대라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요. 다만, 다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는다거나, 강제로 관계를 갖는다거나, 불결하고 안전하지 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히 본인에게도 파트너에게도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관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후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상대방과 충분히 이야기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성관계는 둘이 맺어 왔던 관계의 연장선이고, 또 다른 소통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황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자해

“친구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너무 불안해요. 사실은 정말 자해를 하면 괜찮아질까 하는 호기심 반 그냥 우울한 게 없어질까 하는 마음에서 칼을 살짝 손에 그어봤어요. 상처는 거의 안 남았지만, 그때 칼을 대고 피를 조금 보고 나니까 막 진정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막상 그렇게 피를 보고 나니까 계속 숨죽여 울던 것도 멈추는 것 같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다시 너무 우울해 지니까 다시 칼을 찾게 되고 그래요. 모든 게 불안해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그것도 우리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협

박에 의한 헤어짐이 너무 싫고 두려워요. 지금 이대로라면 또 다시 자해할 꺼만 같아요. 이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꺼 같아요, 어쩌죠, 절대 이해시킬 순 없는 걸까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독한 자기혐오로 인해 쉴 수 없이 자해와 자학을 일삼았고, 그 행동은 주위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주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전 저 자신에 대한 지독한 자기혐오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십대들의 경험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자해에 대한 고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담자들은 위의 내담 사례에서처럼 친구관계, 애인과의 이별, 자기혐오 등에서 오는 불안감과 우울감 등으로 자해를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해를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고 또한데 섞여 있기도 하겠지요.

내담자 저마다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은 다르겠지만 우선, 내담자가 자해를 하게 된 상황들,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에 대한 상담원의 충분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내담자가 자해에 대한 경험을 털어놓는 것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에 대해 누군가는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일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보통 자해에 대한 경험은 내담 내용에 있어서 내담자가 갖는 고민의 주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내담자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스스로에 대해 혐오하고 있으며,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한지를 설명하면서 자해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위의 내담 사례들 역시 긴 내담글 안에서 자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부분만 옮긴 것이에요.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과 위로는 자해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앞선 문제가 아니라, 자해를 하게 된 내담자의 상황이 우선이며, 이 상황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해를 함으로써 변화하는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 다른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자해라는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풀어놓음으로써, 내담자가 얻는 느낌들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는 자해라는 행위가 내담자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내담자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찾는 자기표현 방식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끔 합니다.

하지만 내담자들이 자기표현의 방식으로 계속 자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찾는 힘을 잃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해를 통해 안정감을 찾는 것 역시 중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게 되는 결과까지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표현의 방법들로 자기 고민과 감정을 표현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상담원은 도울 수 있습니다.

3. 십대 내담자와 마주하며

(1) 내담자가 십대 때의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그 자체로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통 십대 때의 감정과 욕구, 경험에 대해서 청소년기 혹은 사춘기 때의 지나가는 경험이라서 가볍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십대 때는 충분히 동성 친구와의 우정을 착각할 수 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상담소를 찾는 십대 내담자들 역시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청소년기의 통과의례, 호기심이지 않을까 스스로 의심하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신의 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을지, 누가 고민하고 답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떠올려본다면 다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정해주거나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는 점은 내담자가 십대이건 성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드는 감정들, 욕구들에 대해서 십대 때의 흘러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원의 역할입니다.

(2) 십대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충분히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 대해 내담자와 상담원 상호 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십대 레즈비언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십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담자와 상담원 상호 간에 지우는 일일 것입니다. '십대'하면 떠오르는 것들—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다, 공부해야 하는 나이이다 등—은 십대 내담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판단력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상담원에게도 십대 내담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민의 해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를 줍니다.

십대라고 해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유예하거나,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스스로이며, 누구나 스스로의 고민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가족 내,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레즈비언 정체성으로 인해 생기는 고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무엇이 갈등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지 등의 답도 십대 스스로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십대의 고민과 문젯거리를 전적으로 나서서 풀어내는 역할이 아니라 내담자의 곁에서 조력자의 역할로서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요.

(3) 내담자의 성정체성을 규정하거나 진단하지 않습니다. 내담자들은 종종 '자신이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고,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감정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레즈비언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어서 빨리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고 말하거나, 상담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담자의 질문에 대해서 상담원은 내담자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을 줄 수도 없고, 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레즈비언 정체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동성에게 강한 이

끌림을 느꼈다거나 실제 연애를 하고 있다거나 해도, 이런 감정과 경험만으로 상담원이 '당신은 레즈비언이네요'라고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히 어떤 성관계나 한 번의 연애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고민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런 삶을 긍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때 동성 친구를 만지고 싶다거나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당연히 들 수 있는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 경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상담원은 도와야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다거나, 지금 당장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하는 내담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스스로에 대해서 '레즈비언이다,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내릴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정체성은 평생을 두고 변화하고, 한 번 결정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들도 어느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동성애자가 되기도 하고, 동성애자였던 사람도 어떤 계기로 인해 이성을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의 것도 아니라는 점, 그러니 천천히 차근차근 생각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거나, 상담원 자신이 겪었던 혹은 다른 레즈비언들의 다양한 정체화 과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커밍아웃 하는 일이라거나 가족과 학교 등의 테두리에서 겪는 갈등들을 적절히 내담자에게 소개해 주면서, 내담자가 자신에게 맞는 정체화 모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가 겪는 고민과 어려움이 내담자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합니다. 또 상담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적절히 고민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십대 레즈비언 커뮤니티, 단체 등을 소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즈비언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십대 내담자에게는 무수한 레즈비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내담자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즈비언 권리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수많은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점, 해외의 동성혼 사례 등을 알려줌을 통해서 내담자가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른 레즈비언'의 삶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십대 레즈비언들에게는, 상담원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레즈비언으로서의 삶 역시 다양한 역할 모델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것이 혼자 혹은 파트너와의 단 둘이서의 삶이 아니라는 아니라 다함께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 나오며

십대 내담자들이 남긴 내담 글에 이모티콘이 가득하다면, 상담원도 함께 이모티콘을 쓰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십대 내담자와의 전화 상담 끝 무렵에는 상담원 선생님이 아닌 '언니'라고 불리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나와 비슷한 고민,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반가운 일이지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장면들입니다.

상담원 역시 십대를 지내왔지만, 지금의 십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십대 내담자들과의 상담 장면을 마주하는 것은 다른 상담보다도 어렵습니다. 상담소로 전화를 걸거나,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십대 내담자의 경우, 그동안 자신의 고민을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면, 상담원이 내담자의 고민을 처음 들어주는 다른 레즈비언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어른 레즈비언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담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충분히 경청하고, 십대 레즈비언이 사는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고 격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십대 내담자가 안고 있는 호모포비아를 조금은 덜 수 있고,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에 자긍심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십대 내담자들도, 상담원도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겠지요. :D

가족 및 지인 - 고립의 끈 풀기[7]

발제·글 | 야릉

1. 들어가며

전화 상담 중 제게 온갖 긴장과 불편함, 연민과 동정과 상당한 동요까지 일게 만드는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레즈비언 자녀를 둔 부모, 그런 부모와 갈등하는 레즈비언과의 상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전화 상담이지만, 그 생생한 이야기로 비롯되는 후유증은 한참동안이나 저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전화 저편에는 제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딸이 혹은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이제야 알았다며 위로를 청하기도 하고, 레즈비언 딸에게 보낼 사랑의 편지를 검사받으려는 내담자 때문에 그만 본분을 잊고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딸이 커밍아웃을 하자 자신이 고쳐주겠다며 유학길에 따라나서려는 부모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는지에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보다 급진적으로는 동성 파트너와 같이 키울 아이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 구성애의 아우성을 뒤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솔직하고 용감한 이야기들로 감동의 후유증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뜸 '상담소라고 하여 전화했더니 어찌 그저 어려보이는 사람이 전화를 받느냐'며 서비스를 못마땅해 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이럴 땐 상담원이 마음을 닫고 벽장에 들어가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 있어 레즈비언의 부모와 적절한 관계를 맺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십대들과의 상담에서는 언니가 한 수 가르쳐줄게 하는 식의 상담을 경계해야하겠지만, 그들과의 상담에서는 조언 을 아꼈다가는 내 딸이 철들기를 기다리면 된다네 하는 식의 결론을 내버리고, 바락바락 할 말을 다 했다가는 자네도 레즈비언이라서 레즈비언 편든다는 말만 듣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누구의 어머니임을 밝히는 내담자들과의 상담은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하는 정체성이다' 하는 식의 레즈비언 당사자에 대한 위로와 지지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아이가 이성애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의 질문에 그저 "그럴 수 있다"고만 말해줘야 할 것 같다가도, 때로는 그들이 "당신의 따님은 있는 그대로 정상입니다" 하는 말에 마음 편해 하니, 내담자와의 관계 설정은 매번 어렵게 다가옵니다.

상담 과정에서 레즈비언의 어머니는[8]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할 곳이 도통 없으며, 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노력도 하지 않기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젊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매우 불쾌해하며 전화를 끊으려하기도 하지만, 한편 딸과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7) 본 발제에서는 전화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및 지인 상담의 일부 유형만을 다룹니다. 다른 사례들은 2008, 2009년 레즈비언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자료집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8) 레즈비언의 부모 상담은 주로 전화를 통해 접수되고, 대부분 어머니에게서 걸려옵니다.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레즈비언인 딸은 준비없이 커밍아웃을 하거나 아웃팅을 당하고 나서 내게는 너무도 당연한 정체성을 부모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해 하며, 별다른 시도를 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본인이 본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만큼이나 가족들에게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려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딸의 정체성을 당장에 바꿔놓거나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시키는 것이라기보다 그저 이전의 돈독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서 대화를 시작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드러난 성정체성을 떼어 놓고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담원에게 관계 회복을 위한 조언과 성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작업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딸과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가) 둘의 관계의 문제를 각기 따로 해결하고 있으며 누구와도 쉽게 공유하지 못하기에 느끼는 고립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글에서는 레즈비언의 가족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시작하고 해결해나가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2. 고립된 가족

레즈비언의 가족 상담, 지인 상담 등은 전체 상담 통계에서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의 동성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며, 정체성과 같은 다른 고민에 비해 덜 중요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고민만 하기도 힘든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들이 이를 넘어 관계적 문제까지 드러내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며 내 딸이 레즈비언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관계 풀기의 문제에 당면해 있는 사람들은 레즈비언 당사자든 가족/지인이든 소통하고 도움 받을 곳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말에 놀라곤 합니다. 상담이 끝날 때 즈음이면 동성애자 가족의 모임이 있는지 묻거나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에 대해 문의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가족/지인 상담 사례에서 주로 다루어지듯이 레즈비언의 가족과 지인들은 레즈비언 당사자를 아웃팅시켜 괴롭게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무서운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무던하거나 아는 듯 모르는 듯, 몰라도 되고 알아도 별 수 없다는 듯 행동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고민의 시작

그런데, 결국엔 상담소 전화벨을 울리고 마는 가족들은 조금 다릅니다. 딸이 널브러뜨린 일기장을 정리하다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끙끙 앓는가 하면, 안부나 전할 겸 동생의 싸이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여자같은 애인' 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신에 찰 때까지 조용한 탐색작

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담자들은 매우 치밀한 것 같습니다. 상담원은 상담원으로서의 자세를 십 분 발휘하여 내담자에게 자녀의 성정체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길 당부하며, 상담원 또한 답을 내려줄 수 없는 문제노라 안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로써 전하는 심적, 물적 증거는 전화통화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며, 그렇기에 결국 "그럼, 그 분이 레즈비언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아요." 하는 것입니다. 레즈비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가족들의 추궁에 의하거나 자녀의 갑작스런 커밍아웃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로 경제적 독립이 어렵고 떠밀리듯 커밍아웃을 하는 십대 레즈비언의 사례가 많으며,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은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지인 상담에 있어 커밍아웃 준비, 커밍아웃 과정, 커밍아웃 이후의 소통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은 꼭 필요합니다.

사례1) 딸이 친하게 지내는 여자 선배가 있는데 자주 집에 데려와서 같이 자곤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둘이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도 다정해서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답답해서 애 싸이도 들어가 보고 방에 있는 편지도 봤는데, 딸애가 확실히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례2) 서울에서 지내는 딸이 얼마 전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학원비를 어디다 썼느냐 물었더니 친한 여자 친구와 같이 지내며 썼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 애랑 연애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물으니 지금 외로워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며 나중엔 괜찮아질 거라 합니다. 나는 딸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애는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그 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담자는 레즈비언임을 이해할 수 없는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해받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관심은 자녀의 행동과 사생활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녀와의 갑작스레 어긋난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딸이 정말 레즈비언이 맞는 것인지 부터, 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앞으로의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너무도 많고 먼 앞날의 고민까지 한꺼번에 맞닥뜨립니다. 우선적으로 내담자에게, 잠시나마 고민을 뒤로 하고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안합니다. 어떠한 기분이었더라도 그럴 만 하다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내담자가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녀에게 집중된 마음을 조금 내려놓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는 자녀가 레즈비언이 아니길 바라면서도 자신의 의심을 입증하고자 계속해서 자녀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상담원들은 그러한 방식이 결국 자녀의 성정체성을 확실히 해주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나아지게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내담자의 심리적인 부담과 불편함만을 더해주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묻고 공감해주면서도, 그런 느낌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면 자신을 이상하게 취급하지 않을지, 관계가 어긋나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기 때문에 알리지 못하는 것임을 알려 줍니

다.

사례2)는 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숨기는 중이거나 정말로 그저 친구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지만 부모가 강하게 확신하며 걱정하는 사례입니다. 자녀의 정체성은 그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굳이 내담자가 의심하는 대로 가정하고 상담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딸이 레즈비언이라 하더라도 추궁하여 말하도록 하기보다 일단은 딸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딸이 언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자녀가 미워 죽겠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쨌거나 당장에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묻기도 하며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지만, 때로는 대화할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그런 마음을 거스르면서까지 시도할 필요는 없기에 시간과 거리를 두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알려주며 지지할 수 있겠지요. 관계 개선을 위한 이러저러한 시도들을 제안해 주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딸 친구의 어머니에게 알리려했다는 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녀가 레즈비언으로 의심되거나 동성 애인과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애인의 가족에게 훈계하라는 의미로 아웃팅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인 경우 더욱 그러한데, 이는 당사자 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에게도 폭력적인 행위이며,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타인이 내담자의 자녀의 성정체성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닌다면 어떠한 마음일지, 상대방의 부모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례3) 동생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가서 물어보았더니 맞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레즈비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제 언니와 엄마는 동생의 다이어리를 몰래 봐서 눈치를 챘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 남동생도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는 지금 여동생과 가족들 중간에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으며 여동생에게는 엄마와 언니가 알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언니와 엄마에게는 여동생이 이미 밝혔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다른 가족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요?

사례3)에서, 레즈비언 당사자는 언니에게 떠밀리듯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이를 당사자가 모르게 모든 가족에게 알렸는데도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은 동생의 사생활을 엿보는 방식으로 성정체성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상담에서, 상담원이 내담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가족끼리나마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게 나아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가족들은 과하게 말하면 레즈비언 당사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해놓고 마치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등 결국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많으며 고민의 과정에서 레즈비언 당사자만이 고립되기 쉽습니다.

커밍아웃은 이후 가족/지인을 불문하고 차별이나 폭력, 따돌림, 강제 치료 등의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우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당사자로 하여금 엄청난 마음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내담자에게 동생이 '레즈비언이 맞냐' 는 질문에 대답한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었을 것임을, 또한 동생이 커밍아웃을 했다는 것은 내담자가 그 사실을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는 의미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또는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의 성정체성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성정체성에 대해 캐묻거나 추궁하는 등의 행위도 결코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도와주는 일은 동생에게 어떠한 처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알도록 공부하고, 동생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고민의 과정 - 원인 찾기

레즈비언의 가족은 대부분 자신의 딸이 알고 보니 레즈비언이었다는 데에서 받은 충격을 위로받을 곳도 없고 동성애가 무엇이고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고민을 계속합니다. 상담소에서 다짜고짜 당신의 딸은 너무도 정상이라고 말하기가 위험한 이유는 어쨌거나 내담자가 받았을 충격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경우 레즈비언 당사자의 성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이런 자신을 어떻게든 위로해주길 바라며, 이후에 그들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팁을 얻고자합니다.

그런데 결국 가족들의 생각은(특히 어머니의 경우)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동성애자인 데에는 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시간동안 딸이 레즈비언이 된 원인을 찾는 와중에 딸의 성장 과정, 그리고 가족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혼자서 애써 찾으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한 사람의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듣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때마다 부모로서 자신이 어떠하였으며 무엇을 결핍시켰고 무엇을 너무 많이 주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평가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를 뒤적이다 보면 마음속으로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 대한 원망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레즈비언상담소로 찾아오기 전 딸과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아본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사례1) …….. 그런데 동성애가 유전적인가요? 저는 예전에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우리 아이를 홀로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해서 잘 돌봐주지 못한 게 몇 년 됩니다. 다시 남편과 같이 살면서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더욱 신경을 못 썼죠. 돌이켜 보면 그것 때문인가 싶어요.

사례2) 애 아빠가 너무 괄괄하고 센 성격인데, 딸이 그걸 많이 닮았어요. 집안에 여자 형제들뿐인데 어려서부터 남자같이 행동하길래 아들노릇 하나보다 했죠. 이러다 보니까 여자다움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것 아닌가 싶고 커서도 남자애 사귀는 방법을 잘 모

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뀌지 않을 줄 알았으면 어려서부터 제대로 키웠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사례1)에서는 자녀가 레즈비언이 된 이유를 아버지 없이 키워 남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례2)에서는 아버지를 너무 닮아 여자답게 자라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의 가족 질서에 어긋났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동성애의 원인으로 끼워 맞추곤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내담자에게 전하고 의견을 묻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녀에 성정체성에 대한 죄책감에서 한 발짝 물러서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성스런' 사람만 레즈비언이 되는 것도, 괄괄한 사람이라면 꼭 레즈비언이 되는 것도 아님을 알려줍니다. 설사 사례와 같은 과거가 자녀에게 심리적인 결핍으로 남아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 원인은 자녀의 생각과 느낌, 경험 등에 따른 온전한 선택임을 알려주고, 자신이 왜 자녀의 성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겠는지,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 때문인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례3) 병원에서 우리애가 동성애자는 확실한데 유전은 아니고 어려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하네요. 고칠 수 있냐고 물으니, 동성애자로 살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잘 알고 나면 고쳐질 거라고 하네요. 맞는 말이겠지만 저 때문에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말이 틀렸다구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마치 10년 전 사례일 것 같지만 최근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자녀가 커밍아웃 한 이후 부모가 정신과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기도 하는데 예전처럼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하는 것이 맞다' 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치료받지 않고도, 언제든 이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간혹 필요한 경우가 이렇습니다. 문제는 자녀만 상담과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사도 있어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도 '잘 못 산 사람' 취급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담자는 정신과 치료를 그만 두라는 제안에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원의 권위를 재가며 갈등하는 한편 자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부모보다는 자녀와의 상담이 시급해 보이며 상담 중에 계속적으로 제안하거나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상담소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상담을 유도하고 내담자에게 동성애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마치며

자녀의 동성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는 결국 내담자의 몫입니다. 상담원의 역할은 그저, 이들이 일회성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관계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어찌 보면 갑작스레 충격을 받는 내담자를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작업은 '레즈비언인 상담원' 이란 제 정체성과 맞물려 오히려 반감을 살 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다시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또 다시 동성애혐오적인 환경 속에 고립되고 맙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그나마 가깝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소의 의견을 더 신뢰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조금 쉬운 방식으로, 그저 기존의 생각들과는 조금 다른 대안을 드릴 테니 이쪽저쪽 훑어보고 마음가는대로 생각을 정리해보시라고 제안할 때, 그리고 다른 대안을 생각이나마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해도 그들의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담자들이 혼자서만,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고민하지 않게 해 주어도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굳이 시작부터 모아놓고 동성애 관련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어도, 동성애자의 가족들에게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립되어있던 레즈비언들이 그저 다른 레즈비언들을 만나서 소통하기만 해도 이전보다는 심리적으로나마 좀 나아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해온 레즈비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가족들을 책망하는데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려 노력하고, 오해를 바로잡는 편지를 쓰고, 자녀의 정신과 약물 대신 동성 애인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데는 특별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레즈비언 자녀의 가족들은, 그저 생각의 장과 용기만 불어넣어 준다면 그들 스스로 편견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함을 가진 것 같습니다.

위기 상담과 사건지원

발제·글 | 려수

0. 들어가며

한국레즈비언상담소(구 끼리끼리)에서는 오래 전부터 위기 상담이 들어왔으며, 많은 레즈비언들이 사건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때문에 위기 상담과 더불어 사건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오랜 시간동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끼리끼리에서 상담소로 전환할 때 '사건지원팀'이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위기 상담을 문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활동가 부족으로 인해 사건지원팀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현재 상담팀에서 위기 상담과 사건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위기 상담과 사건지원 사례

위기 상담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크게 아웃팅, 아웃팅 매개범죄, 금전적 문제, 정신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혐오범죄, 스토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서도 형태를 나눌 수 있는데, 레즈비언간의 문제와 레즈비언-비레즈비언간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관계 다 아웃팅과 아웃팅 매개범죄, 금전적 문제, 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간의 문제는 대부분 자신이 포함된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납니다. 레즈비언-비레즈비언간의 문제는 차별과 혐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억압합니다. 때문에 위의 형태를 포함해 혐오범죄가 포함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건과, 차별과 혐오로 인해 나타나는 사건은 지원 형태가 비슷해보일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때문에 시사되는 바가 다릅니다.

1) 레즈비언간의 사례

위기 상담이 들어오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어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웃팅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 상담은 자신의 아웃팅이 두려워, 아웃팅 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담원은 아웃팅을 막아줄 수 없고, 오히려 아웃팅을 당할 것을 미리 대비해두고 대책을 세우라고 조언하고는 합니다. 대신 내담자가 사로 잡혀 있는 '아웃팅' 대신,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다른 상황을 종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실은 자신의 위험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장 빠르고, 그것이 번거롭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애인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 경찰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상대에게 돈을 받아 내거나,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애인의 주변 사람들과 나의 주변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즈비언은 이것이 쉽지 않아집니다. 전애인이 '너희 부모님에게 너 나랑 사귄 거 다 알려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내담자가 돈을 1000원을 빌려줬든, 1000만원을 빌려줬든 아무 소리 못하고 속으로만 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인의 폭력에 힘겨워 들어오는 내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알리고 도망가자니 애인이 아웃팅을 해버릴까 무섭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왜 같이 사는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에 레즈비언 친구들이 있는 경우는 좀 나은데, 애인의 폭력과 간섭 때문에 친구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레즈비언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스토킹 당한 것,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 이러한 것을 경찰에 알렸다가 어떠한 눈초리로 자신을 쳐다볼지에 대한 두려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경찰에 갔다가 기사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제대로 자신의 사건을 처리해줄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레즈비언이란 '변태' 딱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일쯤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찰. 상담원은 이러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내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법으로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Case1.

A의 전 애인(B)이 A의 명의로 된 카드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A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B가 가족과 회사에 아웃팅을 하겠다고 협박하였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 아웃팅 협박을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와 <공갈죄>
- 아웃팅 협박은 <협박죄>
- 아웃팅은 <사생활 침해죄>

Case2.

애인이 일상적으로 욕과 물리적인 폭력을 일삼는다.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미친 듯이 날뛰고, 만나면 때리고, 욕하고, 협박도 한다. 오랜 시간동안 참아왔지만 더 이상 힘들어 헤어지려고 한다. 하지만 친구들만 만나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가족에게 아웃팅해버릴 거라는 이 사람과 과연 헤어질 수 있을지. 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너무 두렵다.

- 아웃팅 협박을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
- 폭언과 폭행은 <폭행죄>
- 아웃팅 협박은 <협박죄>

Case3.

커뮤니티 벙개에 나갔다가 어떤 언니를 만나게 되었다. 며칠 전에 함께 술을 마셨는데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를 태우고는 인사불성인 나를 성폭행하였다. 계속 하혈을 하여, 앉지도 걷지도 못한다. 여성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사실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겁이 난다. 정체성이 드러날까 무서워 병원에도 가지 못하겠다.

- 성폭행 사실은 <강제추행죄>(현재 동성끼리의 성폭행은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음)

Case4.

예전에 사귄 애인에게 몇 년 전부터 스토킹 당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가 오고, 회사 앞에나 집 앞에서 거의 매일 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애인과 헤어지라며, 아니면 회사에 아웃팅을 하겠다고 협박한다. 무서워서 휴대전화번호도 몇 번이나 바꾸고, 회사도 서너 번이나 옮기도, 이사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연락이 오고, 바뀐 회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 아웃팅 협박은 <협박죄>
- 아웃팅 협박을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
- 안타깝게도 현재 스토킹 자체로 처벌하지 못한다.

2) 레즈비언과 비레즈비언간의 사례

레즈비언과 비레즈비언간의 상황이라고 해서 아웃팅 협박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레즈비언인 것을 알고 작고, 큰 성폭력(어찌 작고 큰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만은)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여성이자 동성애자로서 당하는 이중폭력이고, 레즈비언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예이지요. 성을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하는 이 과정에서 폭력은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아웃팅이 무섭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레즈비언에게는 성폭력을 당한 것보다, 벌어질 수도 있는 아웃팅이 더 무서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이 행해지기도 하며, 명백한 폭력이라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인의 부모님에게 사귀는 것을 들켜 맞고, 욕먹고, 협박당하는 일이 레즈비언들 주변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딸도둑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 판단하고 사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길에 서 있는 레즈비언을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구타하더라도 '정당하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혹은 조금의 주의를 주고 훈방조치하고는 하지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상담소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절차를 대신 알리고 함께 처리하고는 합니다.

Case1.

회사 남자동료가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 나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밤에 아무 이유 없이 불러내고는 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회사 사람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알린다고 협박 한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내 몸을 만지고, 더듬더니 이제 성관계까지 요구한다. 하지만 아웃팅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아웃팅 협박은 <협박죄>
-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
- 원치 않은 스킨십은 <강제추행죄>

Case2.

애인이 나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들켰다. 애인의 부모님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욕을 하고, 길거리에서 나를 엄청나게 때렸다. 그러면서 애인을 한 번만 더 만나면 제 부모

님에게 알릴 거라 그랬다. 너무 많이 맞아서 며칠 동안 수업도 가지 못 했다. 애인의 부모라고 하지만 너무 화가 난다. 고소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알게 될까 두렵다.
- 애인의 부모가 때린 것은 <폭행죄>
- 아웃팅 협박은 <협박죄>

Case3.
결혼을 한 기혼자이다. 하지만 어느 날 어떤 동성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사람도 날 좋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 사생활을 캐내었고, 내가 동성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집 안에 나를 가두고, 때리고, 성관계를 강요한다. 이 사실을 나의 집과 사귀고 있는 사람의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 때린 것은 <폭행죄>
- 가둔 것은 <감금죄>
- 가두고 상해를 입혔다면 감금치상으로 더 중하게 처벌
- 성관계 강요는 <강간죄>와 <강요죄>
- 아웃팅 협박은 <협박죄>

Case4.
레즈비언 바 앞에서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남자들이 우리가 레즈비언인 것을 알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더니,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였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고 비웃고 멸시하더니 그냥 그들을 풀어주었다.
-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욕을 한 것은 <모욕죄>
- 때린 것은 <폭행죄>
-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는 <청문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2. 상담과 지원 과정

1) 위기 상담
위기 상담의 경우, 다른 상담과 다르게 정보제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소 자문위원 변호사분들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담자 당사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다른 상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담의 경우,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해야하므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내담자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는 하기 때문이지요. 위기 상담은 감정적인 지지로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의 대부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 받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물론 위기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내담자에게 심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권하고, 당장 자신이 마음이 편해질지라도 이것이 지속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담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위기 상담의 내담자의 경우 아웃팅과 자

신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1회기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상담과 다르게 위기 상담에서는 상담원이 내담자에게 위기 상황을 객관적이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내담자에게 위에 적힌 사례들과 같이 부당한 대우가 범죄이며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당장의 가해자의 행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강하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전하라고 조언합니다.
① 현재 이러이러한 사실로, 어떠한 죄명으로 너를 고소할 수 있다.
② 그러니 당장 이러한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
③ 인권단체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

대부분 내담자는 아웃팅이 두렵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상담원은 가해자가 아웃팅이 목적이 아니라 내담자를 자신이 원하는 데로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말로 아웃팅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시켜주며,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커밍아웃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며, 커밍아웃을 할 용기가 생긴다면 커밍아웃을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아웃팅이나 커밍아웃보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득합니다. 가해자들은 내담자(내담자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가 이러한 이야기를 강하게 전하게 되면, 피해가 앞에서는 화를 내며 날뛰지만,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대부분 상황이 종료되고는 합니다. 이것은 금전적 문제, 스토킹, 폭력, 아웃팅을 매개로 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2) 사건지원
상담원이 조언한 데로 하였는데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거나, 성폭력 사건 등, 이러한 경우 위기 상담에서 사건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사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이어야 하며,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 성폭력사건 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금전적인 문제로 민사소송을 걸고 싶다면 위기 상담은 가능하지만 사건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웃팅을 매개로 금전을 갈취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사건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건지원이 가능한 사례 한에서 상담원은 내담자에게 고소에 대한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때 내담자가 고소를 원하게 되면 이는 위기 상담에서 사건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상담 후, 내담자가 현재의 상황을 사건으로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면 사건지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기 상담이 사건지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담당 상담원이 정해져 상담원과 피해자가 1:1로 연결됩니다. 담당 상담원과 피해자는 빠르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긴급 상황이 닥치거나 두려움으로 의지가 약해질 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 해결이 다 될 때까지 담당 상담원이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사건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사건을 지원하는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되도록 많은 증거를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협박 문자는 지워지지 않게 저장하거나, 카메라로 찍어두기를 권유하고, 전화는 녹음해두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하므로, 몇 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일이 일어난 직후 혹은 기억이 뚜렷이 날 때, 메모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병원에 다녀오기를 권하고 진단서를 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 담당 상담원을 포함하여 두어 명 정도의 상담원이 내담자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합니다. 상담원은 고소장을 쓰는 과정, 진술을 하는 과정, 가해자와 대담해야 하는 과정 등에 동행합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스스로가 아웃팅의 문제로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기도 하고, 경찰들이 피해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상담원이 대동하지 못할 때는 피해자들에게 <청문감사실>이라는 곳이 있으니,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사건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문의를 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대우가 있다면 상담소에서 항의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타지역에 있는 피해자는 물리적인 이유로 동행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되거나, 고소장을 쓰게 돼서나, 긴급 상황이 벌어지거나, 내담자의 의지가 약해지는 등의 경우에 담당 상담원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사건지원은 사건이 해결 된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상황을 만든 경우, 상황이 종료되거나 내담자의 의지가 사라진 경우에 사건지원은 종료됩니다.

3. 상담소로 위기 상담과 사건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현실

실은 사건지원을 하게 되는 사례들을 보자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알 수만 있다면 구지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찾아오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 상담과 사건지원을 요청하는 레즈비언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레즈비언'상담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발달이 된 20세기를 살고 있는 레즈비언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레즈비언상담소를 찾는 것일까요?

대답은 당연히 No. 물론 상담소가 레즈비언 자신의 상황을 스스럼없이 밝히면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담소는 법률자문소는 아닙니다. 레즈비언들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경찰을 먼저 찾거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레즈비언이기 때문입니다. 내담자들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도, 자신이 차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축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며 주변에 알리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점을 이용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상담에서 내담자들은 아웃팅 대부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을 받지 않더라도 경찰에 자신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웃팅의 가능성, 차별받을지도 모르는 가능성, 멸시 받게 되는 가능성 등. 이러한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담자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피해 상담소를 찾아옵니다. 가능한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실은 내담자 홀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 스스로가 레즈비언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상담소를 찾아오게 되고, 상담소는 경찰이 대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레즈비언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4. 상담소 사건지원의 노력과 한계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담소는 레즈비언의 지팡이가 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상담소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으므로, 상담소는 피해자를 도와 되도록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거나, 미미한 처벌로 그치는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자체만으로 대부분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멈추고는 합니다만, 피해자가 쓴 시간과 지친 심신을 모두 위로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물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탓입니다. 때문에 더더욱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가해를 했다면, 이것은 가중처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현실은 너무 멀고 험합니다.

상담소가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동행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지원을 요청 받은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지원요청은 일회기 상담이나 몇 차례의 전화통화로 상황이 종료되고는 합니다. 이것은 상담원의 인력부족과 상담소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피해자는 상담원과 함께 경찰서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서울 지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 번 동행할 수 없는 것 또한 한계입니다. 간사 둘을 제외한 모든 활동가가 무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는 간사 둘 마저도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러한 문제점은 긴급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크게 불거집니다. 당장 부모님에게 혹은 애인에게, 타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당장 그 사람을 그 장소에서 데리고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담원은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거나, 가정폭력상담소나 긴급전화(1366)와 같은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상담원이 당장 그곳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상담소가 당장 가서 피해자를 구할 인력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그 상황에서 데리고 나온 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10대 레즈비언의 경우, 레즈비언인 것을 부모가 알고 그 아이를 감금, 구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았자 가족 내 문제기 때문에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며 돌아가기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그 10대 이반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정신병원에 끌려 다니고는 합니다. 그럼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어 자살시도, 자해 등을 하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집에 붙잡혀 학교조차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은 10대 이반에게만 국한 되지는 않습니다. 2,30대 이반도 이런

상황이 다반수이고, 기혼여성인데 정체성을 알게 되어 이혼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폭력을 당하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레즈비언들에게 전화, 인터넷 너머로 어찌어찌 해보시라고 상담원은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마다 상담원들은 안타깝고, 스스로가 무능력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해요. 때문에 모든 쉼터는 아니지만, 10대 쉼터들을 돌아다니며 단체를 홍보하고, 10대 이반들이 그나마 차별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찾기 위해 쉼터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담소는 미미하나마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이야기한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고, 레즈비언 회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으며, 후원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CMS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레즈비언 쉼터가 왜 필요한지. 레즈비언만의 법률적인 지원과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하면서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혐오를 끊어버리기 위한 법제정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다보면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소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습니다.

레즈비언과 “남자”들

발제·글 | 케이

이 글은 레즈비언과 연관된 저마다의 고민거리를 안고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찾아 온 숱한 “남자”내담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동시에, 이들 “남자”내담자들의 사례를 통해 포착해 낼 수 있는 다양한 레즈비언 이슈들을 다룹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먼저, ‘레즈비언과 “남자”들’이 <상담소> 활동가들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라는 표현에 인용부호를 둘러 이 표현이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까닭을 설명합니다. 이어, <상담소>를 찾은 “남자”내담자들의 종류 및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더불어 이러한 사례들이 레즈비언 상담과 운동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봅니다.

1. ‘레즈비언과 “남자”들’이라는 화두

‘레즈비언과 “남자”들’이 <상담소>의 화두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간 <상담소>에는 “남자”내담자들의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쇄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한번 요청이 들어왔다 하면 그것이 새삼스럽거나 이례적이라 여겨질 만큼 드문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남자”내담자들은 활동가/상담원들이 잊지 않을 정도의 빈도로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활동가/상담원들은 “남자”내담자들의 이러한 꾸준한 상담 요청을 접하며 레즈비언 상담의 대상이 여자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복하여 깨달아 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내담자들의 경험과 고민은 활동가/상담원들이 레즈비언 경험 또는 레즈비언 이슈 자체에 접근하는 시각의 폭을 넓혀주는 매개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인 십대 딸을 걱정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아버지의 경험은, 기본적으로는 레즈비언 가족/지인 상담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내담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바로 가족/지인 상담의 영역 그 자체를 넘어선 지혜 역시 제공해 줍니다. 가령,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여러 아버지 내담자들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쌓임으로써 이는 가족들과의 관계 맺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레즈비언 당사자들에게 전략적인 행동을 위한 도움말을 주는 데 유용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아내의 동성 교제로 괴로워하는 “남자”내담자의 사례는 여자와 소위 바람을 피우게 된 기혼 여성 내담자와의 사례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한꺼번에 각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요청했던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레즈비언 정체성

고민을 털어놓는 기혼 여성들의 입장과 아내의 외도 및 동성애적 성향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기혼 남성들의 입장을 모두 접수하는 활동가/상담원들은, 기혼 여성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새로이 탐색할 때, 혹은 억누르고 숨겨왔던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느낄 때 과연 어떠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한결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레즈비언 딸을 둔 아버지의 사례나 레즈비언 아내를 둔 남편의 사례 등은, 레즈비언들이 삶의 여러 국면에서 경험하는 갈등들을 각 국면에 연루된 가까운 타인들의 입장을 통해 비추어 줍니다. 애초에 레즈비언이라는 존재가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여자와 사귀는 여자, 여자와 같이 사는 여자, 여자와 섹스하는 여자라는 요소 등으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즈비언은 누군가의 친구, 선후배, 그리고 동료이고, 누군가의 학생이자 선생이며, 누군가의 딸/아들, 자매/형제, 이성 배우자 혹은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즈비언들은 관계망 안에 존재합니다. 하기에 이 수다한 관계망들 속의 인물들이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레즈비언과 관련하여 고민한다면, 그 고민은 레즈비언 상담이 레즈비언 당사자의 고민과 아울러 가져가야 마땅한 고민일 터입니다. “남자”내담자들에 대한 활동가/상담원들의 주목은 “남자”들의 무시 못 할 상담 요청 빈도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이 같은 시사점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레즈비언과 “남자”들’이라는 주제를 수면 위로 띄워 올리는 데는 사실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남자”들의 상담 요청 빈도와 이들 사례가 레즈비언의 경험 해석에 기여 하는 바 등의 요소만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이 낱말을 생물학적/해부학적 남성 신체를 가지고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남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만 쓰고자 하는 것일 터입니다. 우리가 ‘레즈비언과 “남자”들’이라는 화두를 통해 다루고자 한 건 레즈비언의 경험이 레즈비언 당사자들과 소위 바이오-헤테로 남자들과의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지점만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남자”인가, 하는 문제의식 또한 우리에게 줄곧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남자”라는 낱말에 인용부호를 두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냥 인용부호 없이 남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남자라는 낱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무수한 긴장과 갈등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MTF트랜스젠더 레즈비언으로서의 경험을 풀어놓는 내담자의 사례는 생물학적/해부학적으로 여성의 몸을 가진 존재만을 쉽게 레즈비언으로 전제해 왔던 활동가/상담원들의 고정관념을 문제 삼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남자”의 몸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이들 또한 레즈비언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이해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몸이 굳이 “남자”의 몸이라 계속 불릴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체득해 가며 말입니다. 다른 한편, 레즈비언과 FTM트랜스젠더의 교제와 관련된 내담

사례는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이 그다지 확실하고 안정적인 게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FTM트랜스젠더이성애자와 사귀는 레즈비언은 자기 자신의 성정체성과 현재 교제 관계를 어떻게 양립시키고 있을까? 레즈비언과 사귀는 FTM트랜스젠더 이성애자는 자기 자신의 성정체성과 현재 교제 관계를 어떻게 양립시키고 있을까? 이 관계에서 FTM트랜스젠더는 "남자"로 통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은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움은 그 자체로 배움의 길을 닦습니다.

여자, 여자라고 등록돼 있지만 스스로는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자라고 등록돼 있지만 스스로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자, 남자라고 등록돼 있지만 스스로는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자라고 등록돼 있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이 모두 우리의 소중한 내담자들입니다. <상담소>는 여성주의적인 상담을 지향하지만 여자만을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레즈비언 상담이라고 해서 레즈비언만을 상담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는 이들(여남 불문하고)서부터 레즈비언과의 관계 맺기를 고민하는 이성애자들에 이르기까지 레즈비언과 레즈비언을 둘러 싼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맥락들이 존재하는 한, <상담소>가 여자만 상담하거나 레즈비언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 할 이유란 없습니다. 내담자의 다양성이란 일정 부분 활동가/상담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가/상담원들에게 주어진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레즈비언 상담을 더욱 세심하게 그리고 폭넓게 고민하도록 도와줍니다.

<상담소>로 전화를 걸어 활동가/상담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섹스에 대한 질문들을 늘어놓으며 자위하고 신음하는 변선생들은 "소중한 내담자"의 범주에서 두말 할 나위 없이 제외됩니다. 이들은 솔직히 내담자라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장난 전화, 음란 전화의 주인공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들 또한 이 글의 '레즈비언과 "남자"들'이라는 주제 아래서 다루어집니다. 레즈비언 상담 창구를 자기 성욕과 판타지를 해소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이러한 "남자"들은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의 남성 중심적이고 포르노적이고 폭력적인 시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이는 레즈비언 운동이 헤쳐 나가야 할 현실과 명백히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소> 활동가/상담원들이 입는 장난 전화/음란 전화의 피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그리고 레즈비언이 여전히 얼마나 쉽게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레즈비언과 "남자"들'이 <상담소>의 화두가 된 까닭에 대해 다소 길게 서술했는데, 사실 활동가/상담원들이 몸소 품었던 일차적인 질문들은 서술된 바들보다 거칩니다. "우린 레즈비언 상담소인데, 왜 자꾸 남자들이 오지?" "아니 레즈비언 상담소에서 계속 이렇게 남자들 상담해야 하나?"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기에 이 글 역시 고민의 단편일 뿐 완결일 수 없습니다.

2. 다양한 “남자” 내담자들의 사례들

아래 인용하는 내담 사례들은 실제 내담으로부터 추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용 속의 세부 사항과 말투를 다듬어 실제 내담의 문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따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1) 레즈비언의 가족/지인인 “남자”들

이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남자”내담자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레즈비언의 아버지, 레즈비언의 남편, 레즈비언의 남자 형제, 레즈비언의 남자 친인척, 레즈비언의 ‘남자인 친구,’ 레즈비언의 남자친구(애인), 레즈비언의 ‘남자인 선후배’ 혹은 동료, 레즈비언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 레즈비언의 동성 애인의 (전/현재)남자친구, 레즈비언의 동성 애인의 남편 등

이들 사례의 특징은, 내담자가 실제로 특정한 레즈비언과 현재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활동가/상담원으로 하여금 내담자 본인의 고민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관계 맺고 있는 레즈비언의 상황까지 신경 쓰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와 관계 된 레즈비언이 곤란해질 수도, 편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담자가 “남자”가 아닌 가족/지인을 상담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나, 내담자가 “남자”일 경우 활동가/상담원들은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해지곤 합니다. 레즈비언이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보다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취약해지기 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차별과 호모포비아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심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여성으로서 동성애자라는 “약점”까지 지닌 레즈비언들이 손쉽게 “남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지 않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한” 딸에 대한 분노, “외도한” 아내에 대한 분노, 아내를 “꼬인” “동성연애자”에 대한 분노 등을 쏟아 놓는 내담자들일 경우에 활동가/상담원의 걱정이 더욱 커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즈비언의 가족/지인인 “남자”들을 상담할 때 활동가/상담원들은 이 내담자들이 레즈비언과의 관계에서 레즈비언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도움이 되는 존재들일 수 있도록, 도움까지 바라기가 무리라면 최대한 침착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내담자들을 충분히 위로하거나 격려하고, 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풍부하게 제공하고, 관계의 구체적인 국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조언합니다.

사례

① “저는 갓 고등학교 들어간 딸이 집에 데려 온 동성 친구와 섹스를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요. 딸을 구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애 엄마하고 저는 그 뒤로 끝도 없이 고민만 합니다. 대체 그런 딸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요. 도움말이 절실합니다.”

이 내담 사례는, 동성애라는 위험으로부터 딸을 구해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부모나 자매, 형제는 당사자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며 당사자가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그로부터 벗어나게 돕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사자에 대한 ‘도움’을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한 결과입니다. 하기에 당사자들에게 진짜로 힘이 되는 도움이 무언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내담과 같은 경우 상담원은 우선 동성과의 섹스, 그리고 십대들의 섹스가 이상한 게 아님을 내담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부모들은 소위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욕이나 성행위를 대개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이 그러한 불편함 자체를 깨어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딸이 이미 성관계를 시작했다면 이제 딸에게 필요한 것은 제재나 벌이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t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성과의 섹스하는 이유 때문에 AIDS에 걸릴까 걱정하는 부모도 있는데, 이때는 AIDS가 HIV 감염인으로부터의 수혈과 감염인과의 체액 교환을 통해 전파될 때 걸리는 것이지 동성 간의 섹스로 탄생하는 질병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딸을 구해내야 한다는 태도가 딸을 돕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려준다. 딸을 받아들일 준비와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득합니다. 딸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 혹은 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공감하며 격려하되,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딸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하고 있는지는 아무리 딸이 동성 친구와 섹스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 역시 알려줘야 합니다. 딸이 직접 드러내지 않는 이상, 딸을 붙들고 캐묻기 보다는 부모로서 기다려 주는 인내심을 가지기를 권합니다. 딸이 그러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려면, 부모가 딸에게 평소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상담 요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부부가 자식의 ‘문제’에 대해 같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상담 요청을 어머니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느냐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아버지가 상담 요청을 해 오는 경우는 어머니가 상담 요청을 해 오는 경우에 비하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안의 '문제'를 남자 쪽이 더 창피해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그래서 어머니들이 내담자인 경우가 좀 더 많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집안 문제건 뭐건 남자인 자기가 나서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버지들이 가다가다 꼭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② "제가 만나는 여자가 과거에 레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좀 불안합니다. 지금이야 저를 만나고 있지만 다시 레즈가 되면 어떻게 하나 싶고, 저를 좋아하는 게 과연 진심일지도 헷갈리고...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내담을 받게 되면 상담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내담자의 여자 친구가 이 내담자를 사귀게 된 과정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억지로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한 때 스스로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남자에게 끌려 이 사람과도 교제하게 된 걸까? 것도 아니면 자기 자신이 변할 가능성을 체크해 보기 위해 시험 삼아 남자와 교제해 보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상담원이 쥐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천길 사람 속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질문들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상담원만큼이나 이 모든 가능성을 골고루 생각해 봤을 내담자에게, 그저 안심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과 경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간의 교제나 성관계를 '기집애들끼리 하는 장난' 정도로 취급하는 남자들과 비교하면 위 사례의 내담자는 동성애에 대한 존중의 정도가 다소 높은 편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여자 친구 속내를 상담원이 미루어 짐작할 도리가 없는 이상, 이 내담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그저 평범한 연애 상담일뿐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대화하라고 말이다. 일단 불안한 마음이 생긴 이상 마음 속 이야기를 하고 푸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레즈비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남성과의 관계에 진실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도 알려 줍니다. 그 또한 편견일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담자의 여자 친구가 다시 여자를 좋아하게 되거나 특정 인물은 없어도 새삼 레즈비언으로 재정체화 하게 된다면, 그 때는 내담자가 여자 친구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어야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 내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의 과거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 하는 점입니다. 만일 내담자가 여자 친구의 개인 정보를 뒤지거나 그녀의 뒤를 밟았던 거라면 그런 행동을 또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③ “제 여친의 친한 친구가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제 여친과 그 사람이 워낙 친해서 저까지 셋이서 자주 어울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일반 커플인데다가 저는 또 남자이고 하니 그렇게 같이 어울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 친구에게 잘 하는 걸까요?”

참 다행입니다. 이런 남자가 있어서. 고백하자면 이러한 종류의 상담은 그간 딱 한 건뿐입니다. 이는 자기가 아는 누나/여자애가 레즈비언인데 그녀를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겠냐고 문의해 오는 식의 내담의 수효에 비하면 참 적은 숫자입니다. 섣부르게 도움 아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이들보다 관계 맺기 자체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는 이 내담자와 같은 자세가 상담원의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 경우 답은 하나, 당사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레즈비언 당사자가 불편해 하지 않고 편하게 이 커플과 어울릴 수 있는지는 그 당사자가 이 커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이 커플과의 관계에 기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달려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일반이 레즈비언과 친구하면서 주의해 주어야 할 것들--가령, 아웃팅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던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친구가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그녀를 일반 친구 대하는 것과 꼭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괜찮음을 역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레즈비언은 특별히 자기가 레즈비언이어서라기보다, 친구 커플과 같이 놀면 자기가 커플 사이에 끼어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상황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는 그 친구가 레즈비언이라는 점 때문에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어떻게 어울리면 좋을지 왠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해 왔던 과정 자체를 그 친구와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 친구의 레즈비언 정체성이나 레즈비언으로서의 삶과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솔직하게 물어봐도 좋고 말입니다.

④ “제 아내가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을 잡았거든요. 그러나 제 아내는 워낙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보아하니 그 쪽이 제 아내에게 먼저 접근한 듯 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결혼생활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둘을 떼어 놓고 아내를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도움말 부탁합니다.”

②번 사례의 내담자가 여자 친구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가 그저 그의 짐작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이 사례에서 내담자의 아내가 동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내가 동성 친구들과 유난히 친밀하고 가까운 정도로 아내의 동성교제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교제 가능성을 떠올리기에는 상상력이 부족한 이들이, 자기가 물증까지 잡았다면서 상담 요청을 해 온다면, 내담자의 아내가 실제로 동성교제 중이리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퍼센트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이성 커플 간에건 동성 커플 간에건 그 외도로부터 남겨진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하기에 이와 같은 사례에서 내담자를 위로하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내담자의 감정이 사랑을 잃은 상심이건, 배우자를 놓친 외로움이건, 관계의 파탄에 대한 불안감이건, 소위 배신당한 데 대한 분노이건 그것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감정의 해소나 그 감정에 대한 보상을 위해 상대방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례의 경우 내담자가 바라는 상황 전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담자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임을 내담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감정이 식어서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커져서건, 어쨌든 나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내 곁에 억지로 잡아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에는 어떤 식으로든 폭력이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소원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간들,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담자가 불안할 것이기에 둘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토로만 가지고는 그의 아내가 실제로 원하는 게 무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지금 여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해도, 결혼 생활을 끝내기까지 원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여자를 사귀면서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여자를 사귐으로써 자신이 동성애자인 건 아닌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그래서 무의미한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부부가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을 매듭지을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방법에 대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녹록할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회할 수 없는 방법임에도 분명합니다.

교제 중인 커플을 억지로 떼어 놓을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아무리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떼어 놓으려 해도 연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거나 연락하고야 맙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해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한 이들은 헤어진 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담자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교제 법칙(!)을 새삼 일러주는 동시에, 그가 아내와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 여자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담자와 그의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 또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담자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라면 거기에는 아내의 의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상대방 여자 탓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가 그 상대방 여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 내담자가 일으킬지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담자가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 이 상황의 책임을 씌워버리려는 태도를 지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담자는, 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더라도, 내담자 아내의 "제 자리"는 어쩌면 내담자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상담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남자"들

이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남자"내담자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레즈비언이고자 하는/레즈비언인 "남자"들, FTM 게이 등

내담 사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보자면 레즈비언 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하는 경험들이 더욱 여럿 존재할 터이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담소>에 실제로 접수 된 사례들에 국한시켜 이야기를 풀고자 합니다.

고백하자면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어떠한 "남자"들의 내담 내용보다도 활동가/상담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낯설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워드" 같은 외국 드라마에서,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믿거나 말거나 류의 이야기들 속에서, 또는 주변의 LGBT들이 전하는 이야기들로부터 한 두 번씩은 이미 접해 본 이야기들이기에 사례 자체에 낯선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담자들에게 무언가 도움말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접하노라면 이러한 사례들은 새삼 난처하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1)에서 다룬 내담자들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활동가/상담원들은 "남자"가 "남자"로서 레즈비언일 수 있다는 점이나 FTM이 "남자"를 욕망할 수 있다는 점을 낯설어하는 스스로를 보며,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고정관념과 편견의 늪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험난할지 모른다는 점을 깨우칩니다. 보다 유연한 사고방식과 열린 마음가짐이란 언제나 절실합니다. 레즈비언을 생물학적/해부학적 여성과만 결부시켜 생각하고, 트랜스젠더를 이성애주의의 틀 안에서 협소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회피해서는 안 될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u>사례</u>

① "저는 남자이지만 사랑에 빠지거나 성관계를 상상할 때는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게 레즈비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럼 남자레즈비언인 걸까요."

(빈도가 높은 내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담 요청이 되거나, 신고가 되거나, 통계에 잡히는 경험들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집계 되는 것 이상의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자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는 은근히 자주 들려옵니다. 떠도는 이야기들 속에, 외화의 한 장면 속에...) 여자로 살아가고 싶은 건 아닌데, 교제와 성관계에서만은 여자로서 여자를 욕망한다고 토로하는 내담자입니다. 얼핏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자로서 여자를 욕망한다는 데 숨은 뜻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담자가 이 "여자로서"라는 말을 규범적인 여성성과 결부시켜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내담자는 여자와 사귀거나 성관계를 할 때 소위 이성간의 교제나 성관계에서 남자의 역할로 여겨져 온 행위들이 아닌 여자의 역할로 여겨져 온 행위들을 취하고 싶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관계 시 페니스를 상대방을 자극하는 용도로도, 상대방으로부터 자극받는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싶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그걸 굳이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여자와 섹스하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남자라고 해서 반드시 페니스를 써서 섹스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기에 상담원은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내담자에게 소위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여자와 사귀거나 섹스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여자로서 여자와 교제하거나 섹스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남자로서도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여자와 사귀고 섹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자로서도 남성다운 방식으로 남자와 사귀고 섹스할 수 있습니다. *사족: 여자/남자 그리고 여성성/남성성 구분이 존재하는 한, 여자도 남성성을 가질 수 있고 남자도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표현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성별과 섹슈얼리티가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런 식의 표현이 쓰여야 하고 말입니다. 이와 약간 다르게 여성성의 목록과 남성성의 목록을 각기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규범에는 어긋났던 특징들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 역시 결국 여자도 남성성을 지닐 수 있고 남자도 여성성을 지닐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성성의 목록을 추가하는 데 쓰이는 게 기존의 남성성의 특징들이고 남성성의 목록을 추가하는 데 쓰이는 게 기존의 여성성의 특징들이라면 말입니다.)

또한 레즈비언 섹스가 소위 여자다움으로만 이루어지는 행위의 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레즈비언 섹스 역시 소위 남성적일 수 있고, 섹스에 참여하는 레즈비언들 모두가 남자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이 지닌 레즈비언

섹스에 대한 고정 관념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레즈비언적이라고 느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담원은 짚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이 가장 잘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여자로서" 관계 맺는다는 데 대한 그리고 레즈비언 섹스에 대한 내담자만의 생각이 필시 존재할 터입니다. 그렇다면 성별과 성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알려주며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탐색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게 최선입니다.

② "일반 여자를 사랑하면서 레즈가 아닌 남자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남자를 원하게 됐네요. 탑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체 뭡니까."

(소윤 님의 2부 첫 발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담자의 경험에 정체성의 이름을 붙여본다면 내담자는 부치에서 FTM이성애자로, FTM이성애자에서 FTM 게이로 변화해 가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욕망의 방향이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자기 정체성 또한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차근차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이름붙이고 싶어 하는 내담자의 욕구를 존중하되, 변화해 가는 경험에 일일이 이름먼저 붙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 역시 알려줍니다. (cf. MTF 레즈비언)

3) 레즈비언을 좋아하는 "남자"들/레즈비언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지닌 "남자"들

이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남자"내담자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레즈비언을 좋아하는 남자, 레즈비언만 좋다는 남자, 레즈비언과 섹스를 해 보고 싶은 남자, 레즈비언 섹스에 흥분하는 남자 등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 범주에 해당하는 내담자들은 다시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실로 가슴 아픈 사랑을 겪고 있는 "남자"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빼앗긴 상대는 레즈비언. 내담자들은 자신에게 그녀의 사랑을 얻을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를 자문하다 지쳐 <상담소>를 찾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실은 이성애자들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내 맘 같지 않아 가능성을 전혀 타진해 볼 수 없는 때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기에 이성애자들 사이의 연애사에 대해 가능한 조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내담자로 하여금 힘들더라도 기대를 접는 편이 어떨지를 권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점 자체가 내담자를 희망고문 하게 만드는 건 내담자에게 무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레즈비언을 저마다 일상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구체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판타지의 대상으로 품고 사는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이들 중에는 진지하게 자신의 성적판타지와 그것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내담자들도 있지만, 장난 전화/음란 전화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내담 내용으로 활동가/상담원을 혼란에 빠트리고 불쾌하게 만들며 결국 상당 시간 씁쓸한 기분에 빠져 있도록 하는 주범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포르노식 이야기 구조와 에로물을 본뜬 듯 한 성행위 장면 묘사 등은 이들이 서술하는 욕망과 판타지가 이들이 실제 경험한 바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상담소>를 찔러 보듯이 지어내어 들이미는 장난의 일환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례

① “제가 좋아하는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가 그녀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건가요? 그녀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물론 정체성은 유동적이므로 내담자의 그녀가 이성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전무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고 있다면, 그녀가 새삼스레 이성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들 그런 변화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정확히 예측해 볼 도리도 없습니다. 하기에 ‘바뀔 수 있다’는 실낱같은 가능성에 매달려 짝사랑을 키워가는 게 본인에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 내담자가 생각해 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빼먹으면 안 될 도움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레즈비언이 아니더라도 내담자가 거절당할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내담자의 그녀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만 있다면 그녀가 내담자라는 존재를 계기로 이성과의 교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거의 평소에 좋아하던 연예인하고 사귀게 될 확률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이나 그 가능성이 저조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② “저는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녀는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은 필요하니 해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결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리고 실제로 상담에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힘든 일을 많이 겪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희생하면서 마음에도 없이 결혼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런 상대를 바라보며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과연 원만하게 생활을 꾸려 갈 수 있을까요. 피차 감정을 배제한 계약 결혼이더라도 결혼 자체에 따르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로 힘든 경우가 허다하기 쉬운데, 결혼에 대한 서로의 상이 다르고 심지어 감정까지 크게 기우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이 행복할리 만무합니다.

여자의 경우, 어차피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면,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안심감과 이득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버티며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더 크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할 터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희생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상처 입게 만드는 일임을 알도록 해야 하고요. 아무리 결혼이라는 게 애초에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고통으로 빠지는 지름길일 따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한 뒤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예로 들어주며 내담자의 현실감각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③ “아내와 딸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더 컸지만 이제는 저도 거기 끼어서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듭니다.”

내담 사례를 상담원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상담원에게 내재돼 있는 강한 터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담원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대목은 어디일까요? 모녀가 성관계를 한다는 대목? 아니면 그 모습에 남편이자 아버지인 내담자가 흥분한다는 대목? 어떤 대목에서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금기시돼 온 ‘근친상간’적인 장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기를 떠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상담원이 불편하고 믿기 어렵다 해서 이러한 사례를 단순히 내담자가 꾸며낸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건, 내담자의 판타지이건 두 경우 공히 중요한 상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무얼까요? 뾰족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담자에게 궁극적으로 가족 혹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딸이 한 집에 산다면 이미 생겨 버린 성적인 삼각관계에 대해 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담 요청은 보통 전화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변태’ 전화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됩니다. ‘변태’ 전화의 특징은 성관계 장면이나 자위 장면 혹은 성적 판타지를 아주 상세하게, 적나라한 언어로 끝없이 묘사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원의 반응을 살피고, 상담원의 성경험을 묻습니다. 같은 목소리의 내담자가 수없이 사례를 바꾸어 전화를 걸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담원은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도움 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내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딴청을 부리면, 도움 받고 싶은 지점을 명료하게 만들어서 다시 상담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 한 뒤 전화를 끊곤 합니다. 사실 ‘변태’ 전화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상담원의 직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변태’ 전화가 아닌 상담까지 ‘변태’ 전화로 취급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늘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내담자가 사례 내용과 같은 성적 판타지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성 중심적인 시선으로 만들어진 레즈비언 포르노적 상상력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남성의 욕망 안에 가두어 폭력적으로 탐하는 성문화에 길들여져 있을 부분을 반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4) 레즈비언과의 계약 결혼을 원하는 게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담소>로는 게이와의 계약 결혼을 문의하는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레즈비언과의 계약 결혼을 문의하는 게이 내담자들도 때때로 찾아옵니다. <상담소>는 어떤 형태로든 사귐을 전제로 하는 개인간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담자들에게는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을 물색해 보기를 권합니다. 활동가/상담원들은 이들이 계약 결혼을 원할 때의 그 절박함을 십분 이해하기에 상대방을 물색할 다른 경로를 귀띔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권하기만 하고 상담을 매듭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기에 내담자에게 상담원과의 좀 더 깊은 대화의 의지가 있을 경우, 왜 계약 결혼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는가를 물으며, 가능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이반으로서의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례

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 이반 분이 있다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겠는데, 일반 여성하고 결혼하는 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요. 절실한 마음으로 여쭈어 봅니다.”

이러한 내담자와는 기본적으로 그가 이 같은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압박받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정보 문의를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내담자들의 경우, 상담원이 대화를 시도하면 그것을 불필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관련된 사이트, 카페 등--를 알려주는 정도로 상담이 마무리되기 마련입니다.

3. 나가며

레즈비언 운동이든, 넓게 성소수자 운동이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대개 당사자 운동의 형태를 띱니다. 하기에 관련된 상담과 활동의 전략을 짤 때 당사자와 커뮤니티를 우선 중심에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긍심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내의 각종 캠페인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운동은 언제나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호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함께 변해야 우리가 스스로를 긍정할 토대가 더욱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레즈비언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레즈비언과 관계가 있는 이들에 대한 상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미미하게라도 꾸준히 기여하게 될 터입니다.

<상담소>가 접하는 “남자”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이번 토론회의 초점 중 하나로 삼은 까닭은, 레즈비언 상담 그 자체와 “남자”라는 개념 혹은 존재 그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서입니다. “남자” 내담자들의 사례를 레즈비언 상담의 이례적인 요소라기보다 그 자체로 레즈비언 경험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살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싶어서입니다. 레즈비언을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입체적인 존재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글에서 다룬 “남자”들의 사례를 한 번 쯤 주의 깊게 짚어보는 작업이 충분히 그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남자”들이 <상담소>를 찾을까요? 어떠한 사례에도 준비된 상담원이 되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3부

더불어 고민하는 성소수자 상담

Bridge Over Troubled Identity[9)]
젠더정체성-성정체성의 고민의 연관성을 찾으며

발제·글 | 크레아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이하 상담소)의 창립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담소가 전문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상담활동을 진행하며 독보적 위치를 다져가는 과정을 보아 왔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기념을 함께 맞이하고 기쁨을 나누는 오늘은 저에게도 매우 값진 시간입니다. 지난날 이곳에서 고민을 덜고 힘을 얻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담소는 항상 소통 가능한 친구이며 든든한 지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담소의 열정과 헌신은 늘 고무적이기에 저의 롤 모델이 되는 까닭입니다. 앞으로 더 커다란 시공간에서 장구한 역사를 새기며 여러분의 뜻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제에서는 성정체성[10)]과 젠더정체성[11)]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몸, 젠더, 성정체성에 관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부치(Butch) 정체성과 FTM 정체성에서 맞물리는 부분, 중첩되는 갈등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 "부치(Butch)"는 펨(Femme)에 대비시킨 모든 부치를 의미하지는 않고 레즈비언 내부에서 자신의 젠더역할에 갈등하고 긴장을 느끼는 부치로 한정하였습니다.[12)]

1.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의 상담활동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이하 지렁이)는 상담에 있어서 성별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사고, 젠더와 성적지향의 다양성에 대한 열린 성찰, 트랜스젠더의 자기긍정과 주체화, 젠더의 다양성간에 배타적이지 않은 공존을 모색, 모든 트랜스포비아적 폭력에 대한 저항을 그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양한 젠더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트랜스젠더로서의 자기 긍정적 인식을 고양하려 노력한다. 더불어 법적, 사회적 삶이 억압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갈 방향을 내담자와 함께 고민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연인, 친구 등 내담자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트랜스젠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조력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메일, 전화, 카페게시판을 통한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 트랜스젠더 상담을 전문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역사,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와 사무실, 상근자가 없는 구조 등의 문제와 맞물려 상담건수는 현재 월 4건 미만으로 극히 적은

9) 60년대 포크/록 그룹 Simon and Garfunkel 의 히트곡 'bridge over troubled water'에서 제목을 따왔다.
10) 성정체성(sexual identity) '자신이 어떤 성별의 사람에게 끌리는가와 관련된 정체성'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9 2기 레즈비언전문상담원과정, 교재 p53>
11)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같은 말로 성정체성과 쉽게 구분하기 위해 '젠더정체성'으로 썼다.
12) 부치(Butch)는 주로 성격과 복장, 성적역할 등으로 표현되는 젠더표현이 "남성적(그렇게 명명되는)"인 레즈비언을 말하는데 남성적인 정도와 차이는 다양하다. 다양한 부치 정체성을 남성적이라는 설명으로 한정하기보다 그것을 다양한 젠더정체성으로 재탄생시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

실정이다.

2. 들어가며: 육체, 성별성[13], 성정체성과의 갈등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 대중매체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크게 가시화 되면서 동성애자의 범주에 속했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했다. 수술을 통해 이행[14]을 마친 트랜스젠더가 인터뷰에서 받는 공통적인 질문은 '자신이 남들과 다른 점을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나?' 이다. 이런 질문들에 전제된 섹스/젠더 이분법을 비판하는 것은 일단 미루더라도 질문의 맥락에서 묻어나는 동정, '수술 끝=암흑종결' 이라는 몰이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성찰 없음은 트랜스젠더의 고통을 개인화 시킨다. 트랜스젠더는 육체와 정신이 "어긋나" 있는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적인 사람인가? 혹은 남자면 남성정체성을, 여자면 여성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불운"의 사람인가?

한편 우리는 '잘못 태어난 몸', '어릴 때부터 달랐다'로 시작되는 트랜스젠더의 자기서사를 익히 들어왔다. 자신을 FTM[15]으로 정체화 한 경우 '여자로 태어났는데 스스로 남자로 여겼다', '여느 여자애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고 설명한다. 자신을 여성과 구분 짓고 다른 성별로 느끼고 생각한 동인을 크게 보면 1)몸에 대한 부대낌 2)성별성에 대한 이질감 3)성정체성이다. 이러한 분류는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 가지 동인이 개별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몸에 대한 부대낌은 '자아 일치감'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느끼는 나', '보이고 싶은 나'와 실제 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2)성별성 문제는 주로 '이질감'이나 집단속의 '위화감'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남성다움, 여성다움과 같은 기질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느끼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에 부여된 성역할, 성각본과 같은 젠더규범과 갈등을 겪는 문제를 포함한다. 3)성정체성으로 인한 갈등은 자신이 최초 인식한 생물학적 성별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에 빚어지는 내적 갈등을 말한다. 트랜스젠더가 모두 이성애자는 아니지만, 성정체성 고민이 자신의 젠더를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부치와 FTM의 중첩된 갈등

1) "느끼는 대로 보이고, 보이는 대로 느끼고 싶은"

내담사례1: 저는 몸의 여성적 특징이 너무 싫어서 보는 것도 만지기도 싫어요. 싫다고 표현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 자신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몸. 이러면 저는 FTM이 맞나요?

---

13) 이 글에서는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과 같은 기질을 뜻함.
14) 성전환(성재지정)수술을 통해 자신의 젠더정체성에 맞는 육체로 이행한 것을 의미한다.
15) 출생 시 부여받은 성과 달리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한 사람을 FTM(female to(toward) male) 혹은 성전환 남성(트랜스맨)으로 표현한다.

트랜스젠더에게 몸은 젠더정체성을 담아주는 그릇으로, 성전환수술은 정신에 일치하는 몸을 찾아가(야하)는 일생의 과업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남성/여성, 남자몸/여자몸의 이분적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거나 수술을 완료했을지라도 자연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는 비정상, 괴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남성/여성 외의 여러 젠더정체성들과 남녀 극단 사이의 "연속적이고 다양한 몸"을 설명하는 언어가 없다는 점이 트랜스젠더를 불완전한 정체성으로 탈락시킨다.

한편 실제로 물질적인 몸은 트랜스젠더로 하여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이미지와의 일치감을 갖는 데 상당히 공헌한다. 자기가 느끼는 자기 이미지대로 "보일" 수 있고, 보이는 대로 자신을 다시 응시하고 느낄 수 있는 거울이 바로 몸이다. 가령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16] 투여로 인해 굵은 수염이 자랐다면, 자신의 수염을 타인에게 보이면서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만질 때 꺼끌꺼끌한 감촉을 느끼면서 일치감을 갖게 된다.

> 내담사례2: "저는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여자를 좋아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FTM분들은 자신을 애당초 남자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저는 여자인 내가 싫고 남자가 되고 싶고.. 아니 정말 완전한 남자였음 좋겠어요. 부치라는 소리는 듣기 싫은데 저는 그냥 부치인 건가요? FTM인가요?"

굴곡 있는 체형, 두드러진 젖가슴 등 몸의 여성적 특징이 드러나는 게 싫어 최대한 가린다거나 그걸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은 부치와 FTM의 자기서사에서 곧잘 등장한다. FTM이 '내 몸에 달린 유방과 성기가 혐오스럽기까지 했다'고 설명할 때 그것은 자신의 남성정체성을 증명하고 남성성, 남성임을 획득하려는 의도와 상당히 밀접하다.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실제느낌보다 표현의 뉘앙스가 더 강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남성정체성을 가진다고 해서 몸의 여성적 특징을 혐오한다는 말 자체로 보면 "여성의 몸을 혐오한다?" 에 방점이 찍혀 곡해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 자신의 몸을 거북하게 여기는 까닭이 자신의 젠더정체성과 다르기 때문인지, 여성의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지, 두 가지가 얽혀 있는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랜 침략과 지배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그렇게 명명된 몸)은 열등한 이미지로 가치 절하되었고 남성에 의한 성적인 응시와 사회적 혐오의 대상으로 전유되기도 했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과 억압을 인지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여성으로의 삶에 절망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갈등이 정체성고민으로 이어지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여성의 몸을 긍정하면서 남성 중심적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에 중요하지만, 몸에 거북함을 느끼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태도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성애적 욕망을 이끄는 나의 몸

> 내담사례3: 성관계에서 만큼은 정말 절실하게, 그녀에게 나는 남자 "이고" 싶어요.

섹스를 할 때 남자이고 싶은 마음이나 삽입섹스에 대한 갈망은 곧 성애적 욕망의 표현이다.

16)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흔히 남성호르몬으로 불려진다.

이것을 이성애주의의 고수가 아닌, 상대와 “다른 형상”의 몸이고 싶다는 욕망으로 읽는다면 조금 다른 이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섹스가 행위 당사자들 간에 성을 교환하는 장르라면 구체적인 몸과 그 움직임(율동) 등은 일종의 맥거핀(macguffin)[17] 이라고 생각한다. 섹스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모양, 냄새, 질감을 전시(display)하고 상대를 보고 만지며 느낀다. 이러한 섹스의 과정에 상호 이질적인 몸과 성기삽입이 오르가슴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어색함이나 수줍음 등 성적긴장감을 더해주는 맥거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몸의 감각으로 수용되는 느낌은 다시 욕망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확장된 FTM의 클리토리스는 성적자극에 전보다 더 쉽게 반응하며 발기한다. 이러한 감각적 변화는 다시 증가된 성욕의 호위를 받아 삽입갈망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한다. 다시 말해 가장 민감해진 자신의 성감대를, 그게 페니스이든 클리토리스이든, 상대의 몸과 접촉하고 싶은 갈망이 강렬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삽입갈망이 이성애규범의 삽입섹스신화[18]에서 기원한 섹스판타지로 작동되는 측면을 무시할 순 없지만, ‘삽입가능’으로 구분되는 ‘정상’ 남성상에 자신이 느끼는 자기 모습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갈망하게 된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3) 젠더정체성-성애적 욕망-성정체성-의 상호작용

> 개별사례: 저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누구든 남자로서 섹스하고 싶어요. 이런 건 왜죠? 저는 FTM 바이인가요? 그런데 여자를 사귀면 정서적으로는 동성애적인 감성을 나누고 싶어요.

확고한 젠더정체성의 토대에서 성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정체성과 성애적 욕망이 젠더정체성의 구성에 "관여"하기도 하는 것 같다. 먼저 이 말은 젠더정체성이 항상 유전자처럼 선천적으로 고착되지 않으며, 삶의 여러 맥락을 타고 구성될 수 있다는 견해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남성-남성성>의 결합만큼이나 <남자임-남자로서 섹스하고 싶음-이성애>라는 결합 역시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애적 욕망"을 "젠더정체성"과 분리해보려고 한다. 여성이지만 남자의 몸으로 섹스하고 싶은 욕망, 남자의 몸이지만 여성으로서 여성과 섹스하고 싶은 욕망 등등 섹스와 젠더정체성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다양한 성애적 욕망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존재한다. 이런 성애적 욕망은 젠더정체성의 빗장을 풀고 균열시킨다. 이 과정에서 재해석된 젠더정체성은 다시 성정체성을 수렴하거나 발산하면서 상호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에 있어서 <성별, 성적욕망, 이성애>을 단선적으로 연결시키는 젠더규범을 비판하고 동시에 비규범적, 변태적으로 간주되는 성애적 욕망을 자연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경계지대와 교차점에서

17) 맥거핀(macguffin) '영화에서 긴장을 높이려고 사용하는 플롯의 한 장치', 브리태니커백과사전
18) 남녀성기결합섹스가 가장 자연적이고 생산적이기에 올바르고 성적쾌감에서도 최고라는 주장들

지금까지 부치(Butch), FTM이 갖는 갈등이 중첩된 지점을 이야기하며 성정체성과 젠더정체성 고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작업은 부치의 극단적인 형태가 FTM이라거나, 부치의 남성성이 FTM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레즈비언으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저마다 부치, 펨, 전천 등으로 성격을 달리 하듯 FTM의 경우도 한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FTM 마다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남성이라 확신하는 정도, 남성성을 표현하고 욕망하는 정도는 각기 다르며 복잡한 삶의 경험 안에서 그것이 변하거나 고정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레즈비언과 FTM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무엇과 충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인 접점과 개인의 욕망이다.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지배적인 이성애규범의 손아귀를 빠져나오기 위해 개인의 경험을 파편화 하고 새로운 언어를 부여하는 “구별 짓기”는 물론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 작업은 각 개인 스스로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타자에 의한 분리는 단일한 정체성을 재생산하여 도리어 폭력적으로 작동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체화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 여기 모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생생히 묘파하는 것, 암담한 상황을 섬세하고 민감한 언어로 연주하는 것, 그것으로 성별이분법과 이성애규범의 섬뜩한 칼날을 더욱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정상적”인 규범에 맞서 “다른 현실”을 열기 위한 다른 인식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제자 개인의 견해임을 알립니다.

10대여성 섹슈얼리티의 모험적인 '놀이터' 신촌공원에 관한 어떤 활동가의 이야기[19]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보지[20]

2009.11월 25일 작성

1. 쉽지 않은 만남, 10대여성이반과 만남의 시작.

- 센터에서는 신촌공원에서 2007년 10대여성이반[21]에 관한 실태조사인 '물보라 작전'[22](이하 물보라 작전), 2008년 3월~7월 10대여성이반거리이동상담인 '퀴어뱅' 활동(이하 퀴어뱅)[23], 그리고 올해 2009년 3월~10월 '퀴어뱅 시즌 2' 진행했다. 2007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막막했다. 10대와 비10대의 단절되었던 역사적 배경[24]으로 10대여성이반을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당시 여성영상집단 '움'에서 제작된 '이반검열'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영화에 등장했던 분은 '신촌공원'(이하 신공)이라는 곳에 10대여성이반들이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출한' 10대여성이반들은 주말마다 모이는 신촌공원과 달리 길거리에서 노숙할 것이라는 생각에 홍대부근의 놀이터, 주차장, 대학교, 24시간 롯데리아, 만화방 등을 샅샅히 돌며 애타게 찾아다녔으나,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신공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밤 늦은 시각, 우

---

19) 이 원고는 2009년 2월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섹슈얼리티 자료집)에 기고한 원고를 다시 수정한 것이다.

20)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2007년부터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10대여성이반거리이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1)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 한자로는 '異般' 또는 '二般'이라고 한다.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로 이성애자들을 '일반(一般)'으로 일컫는 것과 구별해서 '이반(二般)'이라고 한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에 형성된 게이 커뮤니티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다. 초창기 2류나 첫번째가 아니라는 의미의 자조적인 뜻을 담고 있던 '二般'은 이성애자들과 다른 [異]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異般'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이성애제도에서 벗어난 성적소수자 전반을 폭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현재는 많은 수의 동성애자 관련 사이트나 모임, 클럽들이 '이반-'이 들어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 (성적소수자사전 http://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Copyright (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2-2007)

22) 서울지역의 10대 여성이반[1]의 가출 실태와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조사활동에서는 10대 여성이반에 대한 양적조사 방법과 질적조사 방법을 활용,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만 15세부터 20세까지 여성으로,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1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16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만15세부터 19세 사이의 10대 여성이반 12인에 대한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3) 2008년 10대여성거리이동상담은 2007년 물보라 작전의 성과로, 신촌공원에서 3~7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오후 2~6시(나중에는 오후 5시~8시로 변경)까지 돗자리를 펴놓고 상담을(성 정체성, 연애, 진로, 섹스 등) 중심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캐리커쳐 그려주기, 타로카드, 집단 프로그램 등)함께 진행하였다. 매주 만나는 10대여성이반의 규모는 적을때는 20~80여명 정도였다.

24) 1997년에 설치된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동성애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었다. 가장 큰 논쟁은 2002년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웹사이트인 엑스존(exzone.com)이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지목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10대들을 강퇴시키기는 등의 조취가 취해졌다. 이후 엑스존 운영자는 사이트를 자진폐쇄하였고,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조직해 적극적으로 항의해 2004년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서 '동성애' 문구를 삭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연찮게도 10대여성이반 2명을 만나는 쾌거를 얻었다. 이들은 누가 거리에서 자냐며,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는 집에 머무른다고 하였다. 10대여성이반을 만나려면 주말 오후에 신촌공원으로 와야 한다며, 너무 순진한 우리에게 고급 정보를 흔쾌히 알려주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신공 뒷 편에는 아주 멋진 10대여성이반들이 100명쯤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활기차고, 벚꽃처럼 설레이면서도 해맑은 모습으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장난을 치며 이리 저리 뛰어다녔다. 젊음의 생생함이 느껴지는 에너지, 기존 틀에 묶이지 않는 그들의 발랄한 어떤 용기가 폴폴 흩날렸다. 이후 우리는 3~4차례 신공을 더 방문하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시선 밖에서 지켜보았다. 사실 그들이 빅뱅, 세븐 등 남자 아이돌 그룹의 최신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너무나 '촌년'인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다. 대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하고 노는지, 어떤 모습인지 등 조심스럽게 관찰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띵'[25]이라고 명명하였다.

2. 10대여성이반을 둘러싼 현실의 두 얼굴, '레즈비언 천국'과 '이반검열'

- 2000년을 전후해 10대여성이반들은 비10대성소수자 인터넷과 다른 자신들만의 인터넷 커뮤니티[26]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즈음 10대여성이반의 존재는 온오프라인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보라 작전을 통해서 심층면접을 진행한 10대들은 이 시절을 '레즈비언 천국'이라고 기억했다.[27]이 시절 '팬픽이반'[28]의 영향 혹은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팬픽이반에 대한 의견은 10대여성이반 커뮤니티 안에서 논쟁적이었는데, 10대여성이반 내부에서는 대개 진정성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고 지나치게 스타일을 과장하고 과시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다.

"팬픽 이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알고 진짜 이반과 팬픽이반을 구분짓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청소년 이반이 급격히 늘어난 시초는 팬픽입니다. 제 말에 뭐 이래저래 태클거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시초는 팬픽이고 그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온겁니다. 컷트 머리와 힙합. 또 S 채팅 사이트의 연예 팬 클럽방. 시초가 팬픽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산물이죠.-_-) 처음 연예팬클럽방은 정말 순수혈통(;)의 연예인 팬들의 이야기 장소였습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H.O.T 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간간히 다른팬들.... 그러다가 어느 집단에서부터 놀이(팬픽놀이[29])라는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때

---

25) 10대여성이반의 은어이다. 게이다에 걸린 10대여성이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띵동' '띵동' 작은 소리를 냈을 때,상대방에서 '띵동'이라고 응답하면 같은 '이반'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여성영상집단> 내 ''10대레즈비언영상집단'인 '불휘'에서 단편 영상으로 만든 작품 내에도 설명되어 있다.

26)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는 규모가 있는 큰 10대성소수자 및 여성이반 카페는 5~6개 정도로 추정되고, 이는 게이 커뮤니티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그 규모의 성격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친목'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성소수자 인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로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라틴'(cafe.daum.net/Rateen)이지만, 두 개의 성격을 지닌 커뮤니티의 교류는 거의 없다.

27) 그 장소는 이반 검열이 엄격하지 않는 여중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10대여성이반들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든다고 한다.

28) '팬픽이반'은 팬픽+이반의 합성어인데, 팬픽은 10대아이돌 남자그룹을 주인공으로 한 연애 소설을 팬들이 직접 창작한 소설을 말한다. 팬픽이반은 팬픽을 보고 이들을 동경해서 외모적 스타일을 모방하며, 이반을 '자칭'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29) '놀이'는 채팅 사이트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역할'놀이로 팬픽 속에서 설정된 남성 동성애를 채팅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지은, 10대여성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여성학 석사논문, 2005)

만 해도 커트머리에 힙합스타일은 대부분 H.O.T 팬들몫이었죠.. 문희준 머리를 따라한다거나. 그래서 칼머리는 팬픽이다 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아무튼 놀이의 흐름을 타서 오프라인에서도 칼머리를 포함한 컷트 머리의 소유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힙합을 입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자연스럽게 캔도 띄우고 하지만 몇 년전만 해도 그런거 전혀 없었죠. 킥, 큭, 피식, 훗. 이런 웃음은 팬픽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놀이의 흐름을 탄 온라인상에서 킥,큭,피식,훗 등의 웃음은 기본이었으며,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이나 ~물결 등은 강퇴의 대상이었고, 성별을 비공개로 한 보자기는 기본이었습니다.....그게 본인과 관계가 있던 없던, 시초는 팬픽임이 확실하고. 자신은 팬픽을 읽던 안 읽던 아이돌 스타를 좋아했건 좋아하건. 어쨌든 지금 우리는 팬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전해진 것뿐이죠. 만약 시초가 팬픽이 아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이반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을까요.30)

이들은 대중문화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을 정상화하는 이성애각본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팬픽놀이'를 통해 '이반'이라는 말을 알게 되고,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되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흡수하기 이전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탐색하는 하나의 계기 및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10대여성이반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하는 지지대가 되었다. 팬픽문화는 10대여성들이 자신이 이야기의 '발화자'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로맨스의 서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섹슈얼리티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들이 처한 위치는 굉장히 불안정하였다. 2002년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하여 동성애자 사이트가 위협받을 때, 그 직접적인 여파는 10대여성이반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개인정보를 알아내 학교에 와서 레즈비언들을 잡아 간다더라'와 같은 흉흉한 소문에 퍼져, 10대여성이반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거 탈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각 종 매스컴에서는 '팬픽이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내보냈는데, 신촌공원 촬영에 대한 정확한 동의도 없이 몰래 카메라를 찍는 등 이러한 피해로 가정 및 학교에서 아웃팅 되는 일이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고 하였다.31) 특히, 학교에서는 짧은 머리, 칼머리, 피어싱, 체육복 착용 등 외모 및 스타일로 '이반'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는가 하면, '이반'으로 의심되는 친구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이반'으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였다.

3. 10대여성이반 집/ 학교/사회복지 시설(쉼터 등)에서 생활할 때의 어려움.

- 강병철의 연구에서(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아웃팅과 반동성애 폭력과 관련된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남자(여자)같다고 놀림은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8.3%, 아웃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0.4%이었고, 아웃팅 후 교사나 친구로부터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이 51.4%로 나타났다. 아웃팅 경험은 10대 성소수자 여성 중 38.8%로, 남자 청소년(16.9%)에 비해

30) 10대여성이반 D 클럽 투표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왔던 게시물로 투표에 참여했던 회원의 많은 수가 지지했던 글이라고 합니다. (이지은, 10대여성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여성학 석사논문, 2005)

31) 2002년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10대 동성애의 두얼굴의 편이었다. 2007년 신촌공원을 찾았을 때, 이들은 외부인을 상당히 경계하였고 대화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2002년 '그것이 알고 싶다'의 기억으로부터의 상처는 그들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더 높은 비율이다. 10대 성소수자 중 50%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언어적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22.3%가 위협을 당하고, 13.8%가 신체적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성적인 폭행을 당한 청소년도 10.8%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가장 자신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기존의 '여학생'의 범주에서 벗어난 10대여성들은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바로 의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것은 곧 '비정상'이라고 낙인찍히게 된다. '물보라 작전'보고서에(2007) 따르면, 10대 여성이반은 가족/학교/ 또래집단/ 직장 등에서 반동성애 경험과 차별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 가출 집단의 경우 60%(65명)이상의 언어폭력(스타일 변화 강요, 간접적인 혐오 발언등)을 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정신병원 치료를 종용하는 경우도 15%(16명)나 있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위 아래를 훑어보는 등의 시선의 폭력과(11명) 스타일의 강요 등(9명)이 있었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직접적인 점수 차별등도 행해지는 등 더 심각한 차별 상황에 노출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지하님, 겉모습 보고 판단한 거군요.) 띵같다고 무시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블랙 리스트가 있다니까요. (띵 블랙리스트요?) 취업도 잘 안시켜주구요. (띵 리스트면, 어떻게 리스트에 접수가 되요?) 그냥 소문나거나, 뭐 선생님이 물어봤데요. 사귀냐고? 사귄다고 하면 올라가요.....(그러면 그렇게 띵은 머리가 짧거나,이러면..) 네. 머리 짧으면, 다 경계 대상이예요. 띵 같이 안보일려면, 머리 길죠. 그런 애들은 머리 짧은 애들이 후보로 오르죠. (리스트에 오르면, 모아놓고 상담하나요?) 차별해요. 취업처도 잘 안써주고, 그냥 넘어갈 일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한 번 더 벌점주고 넘어가고. 안좋게 대해요. 진짜. [(가) 지하, 18세, 2007년 당시]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된 '레즈비언 코드'는 자신의 스타일만으로도 주변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매우 불편한 현실이 되었다. 더욱 위험한 현실은 가장 일상적이고, 친밀한 공간에서 '아웃팅'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존엄을 지키면서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선택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한 때라고 주위의 시선에 발맞춰 '위장'하거나 그 모른척 하며 기간을 '유예' 하거나, 아니면 집/학교 벗어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 청소년 상담 단체의 선생님들은 10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거나, 정보가 부족해 이들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기관에 상담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반 친구나 선후배에게 상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가 가장 높았고(31.7%), 그 다음에 '어떤 상담기관이 있는지 몰라서'(21.8%), 그리고 '동성애자(성소수자)임이 드러나고, 아웃팅 될까봐(15.8%- 기타 제외)로 나타나, 상담기관보다는 10대 여성이반 커뮤니티의 친구, 선후배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물보라, 2007) 한 10대여성이반내담자는 청소년 상담소에 상담 문의를 한 후, 거부당한 경험이 상담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자 단체에 상담을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이성애자 어른들이나 기존의 상담소한테 질린건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전화를 돌려 주었었는데,(동성애자)네... 그냥 전화를 어디 연결해주려는 분이었나봐요, 제가 '여보세요. 제가 상담을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여자친구가 집안 문제 때문에 헤어지려고 한다. 집안 어른들을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고 싶은

데.....어떻게 해야하죠?'라고 물어 봤는데. 근데 그건 '그건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건데요, 제가 다른 분 바꿔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시는데 '띠'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말하는게 냉랭하고 냉소적이고...(중략) 전화돌리면서 '아 짜증나' 이러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중략) 게시판에다가 올렸어요 '위로 받으려고 전화하는 건데..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만 잔뜩 주고 짜증난다' 그냥. 상담을 그 이후로는 안 받았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고..... [(가) 헌터, 19세, 2007년 당시)]

신촌공원의 특색은 이들이 '성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대개 신촌공원의 10대여성이반들은 인터넷 팬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혹은 '신공 친구'을 통해서, 자신의 이반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서 등 다양한 욕망과 경로를 통해서 신촌공원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팬 커뮤니티의 공간은 가상으로 자신이 남성/여성 아이돌 가수의 역할을 수행을 신촌공원이라는 현실로 나와 '놀이' 혹은 '모험'의 열려진 공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이유는 이미 신촌공원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그 집단 내부에서 해결하고 자신의 '진로'문제나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혹은 연애를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 '퀴어뱅' 활동의(2008) 고민지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것은 연애관계 42.6%이고, 두 번째로는 진로 31.9%, 그 다음으로 커밍아웃 21.3%이 나왔다. 이 밖의 대인관계(14.9%), 가족관계(13.8%), 아웃팅(12.8%)에 대한 고민과 가출(5.3%), 섹스(4.3%), 성소수자 혐오범죄(5.3%)등의 순이었다.

< 현재의 고민(복수응답) >

	비율	총응답자
커밍아웃	**20명(21.3%)**	94
아우팅	12명(12.8%)	94
가출	5명(5.3%)	94
섹스	4명(4.3%)	94
연애관계	**40명(42.6%)**	94
가족관계	13명(13.8%)	94
성소수자 혐오범죄	5명(5.3%)	94
대인관계	14명(14.9%)	94
진로	**30명(31.9%)**	94
기타	4명(4.3%)	94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퀴어뱅'활동(2008) 고민지[32] -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 이들은 애인과 어떻게 잘 지내야하는지,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그 당시 자신이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나가야 하는지 등이 삶의 커다란 이슈다. 물론, 이들 중에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의 일상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10대성소수자의 커밍아웃이 부모, 선생님, 사회복지시설에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커밍아웃

32) 고민지는 기존 청소년 기관[1]에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이동상담 설문지(Intake)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퀴어뱅 활동에서(2008) 자체적으로 제작한 설문지이다. 퀴어뱅 활동가들이 신촌공원에서 04.13 ~06.15일에 걸쳐서 일대일 면접 상담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서 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에 대한 노하우 등을 이야기하며 '협상'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집, 학교와 같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들을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성' 정체성'과 '자기 자긍심'을 형성하는데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한다.

4. 가출[33], 왜 이들에게 집은 의미를 상실한 공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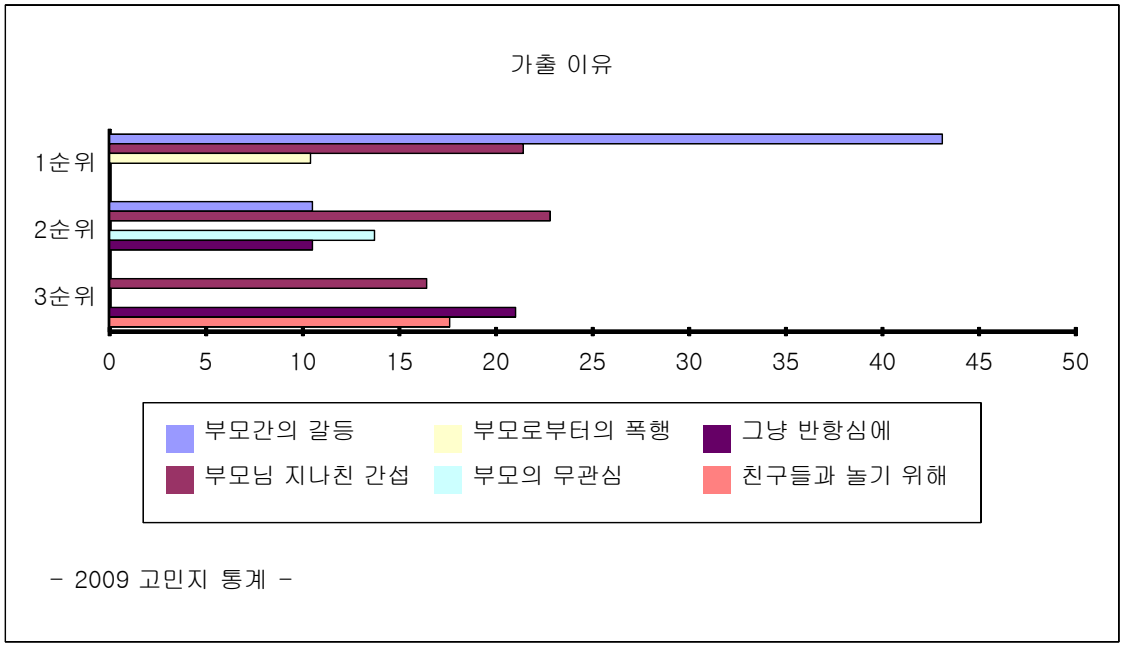
2007~2009년 신촌공원 10대거리이동상담에서 만난 10대여성이반의 가출 배경은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계급, 사회적 자원 등의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커밍아웃 및 아웃팅으로 인한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의사소통 불가능 및 통제 등 가족 내에서의 불만과 불통되는 현실과 다른 한편으로, 자립에 대한 욕구나/ 또래 집단의 영향력(친구들과 놀기 위해), '그냥 반항심에' 이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10대여성이반의 주말 놀이문화는 어떤 계기나 배경을 가진 가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더 놀고 싶은 계획되지 않는 하루만의 외박도 많다. 이들의 이러한 가출의 이유는 차별이나 폭력 등과 같은 외부적 압력에 의한 생존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립에 대한 욕망이나 또래 집단의 영향력 등 10대들의 생활 세계인 내부적 요인에 때문이기도 하다.

10대들을 둘러싼 사회문화환경은 매우 척박하면서, 유혹적이다. 자신의 문화를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은 매우 협소한데 반해 이들을 위한 상업적 소비 공간은 광범위하다. 집 밖을 벗어나면 노래방, 찜질방, 피씨방, 24시간 패스트푸드점 등 이들을 빨아들이는 유흥문화를 굉장히 널려있고, 이를 즐기기 위해 며칠씩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많다. 이런 환경에서 집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뿐인 공간인 버티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집과 답답한 학교를 벗어나 이들은 기존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취미이나 관심사를 통해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일시적이고 유연한 관계들을 맺을 수도 있다. 사실, 많은 10대여성이반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 모두는 '잠재적 가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잠재적 가출자는 그나마 집에서의 소통이 나쁘지 않거나,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을 가출한 그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하며, 자신의 가출 욕망을 보류시킨다. 이들이 집을 나가는 것은 단지 '그들의 탈선'이나 '문제'때문이 아니라 학생으로서나 착한 딸로서 요구하는 규범적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꿈을 이야기하고, 욕망 펼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공간과 안정적 관계의 부재의 영향이 크다. 아래 사례는 2차례 부모님과의 아웃팅 당한 한 내담자 상담이었다.

"처음 아웃팅 당했을 때는 (아버지한테) 후라이판으로 머리를 맞았어요. 이번에 두 번째 아웃팅인데, 집에서 이번에는 감금을 시키고, 회사도 못다니게 할 거예요.(떨리는 음성으로) 원래 내년 정도에 인

33) 이 글에서 가출은 극소수의 불량스러운 문제아나 불우한 개인사를 지닌 아이들의 탈선 문제라기보다는 십대들의 달라진 생활반경과 생활방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가출은 기술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이유로 (비)의도적으로 24시간 이상 집 혹은 일차적 거주지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로 정의하고, 분석적 의미에서 '이들을 관할하고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서의 경계 넘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 민가영, 가출 지금 거리에 소녀는 없다, 우리교육, 2003 참고. - 더불어, 가출은 어떤 의미에서 당사가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책이 되기도 하며,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자립'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단계에서 원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 생활해보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우(애인) 학교 졸업하고, 나 돈 좀 더 모이면 독립을 할 예정이었는데,,,,,,이번 기회에 둘이 집에서 나와 살고 싶어요.....나를 숨기며 더 이상 집에서 아버지랑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가) 도향님(19), 2008년 ‘퀴어뱅’ 활동 당시]



이 내담자의 직접적 가출(자립) 동기는 아웃팅으로 인한 가정폭력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구체적 경제조건을 마련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자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내담자는 실업고를 가게 되어, 일찍부터 10대 때부터 경제활동을 하여 스스로 모은 200만원 정도의 독립 자금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더 이상 ‘가족’이 자신의 삶의 행복에 있어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없음을 간파하고, 자신의 애인과의 삶을 기획한 것이다. 그러나, 심층면접 상담 중에서 이처럼 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가출(자립)하는 내담자는 이 커플이 유일하였다.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경우, 이들은 대개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편입해 일해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었다.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없는 10대여성이반의 가출은 유지되지 않고, 1주~4개월까지 밖에 있다가 7 케이스 모두 집에 들어갔다. 물론, 결정적으로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의 및 통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출을 반복하는 양태를 보였다. 10대여성이반이 가출 후 살아가는 방식은 기존 10대여성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몸’을 사용하거나 교환되는 방식이다. 10대여성은 ‘몸’을(성매매 등) 매개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자원을 얻는 경로가 많거나 손쉽지만, 10대여성이반은 자신이 관계해왔던 온·오프라인 이반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숙식을 해결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는 등의 도움을 얻는다. 가출 중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을 조사 한 경과, 이반 친구나 선후배 88명(75.2%), 일반 친구나 선후배 19명(16.2%), 가족이나 친척 4명(6%), 기타 6명(5,1%)였다.(2007, 물보라 작전) 물론, 레즈비언 내부 섹슈얼 포지션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의 ‘몸’이 평가되는 방식이나 일자리의 경우가 다르다. 팸의 경우 차집 등 서비스 업종을 하는 일하는 반면, 부치의 경우 젠더 표현이 문제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에서 경험하는 반동성애, 차별경험> (복수응답)

	총응답수(명)
성정체성 때문에 특정 일자리는 선택하지 않는다.	8
직장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3
옷차림이나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14
동성애 혐오발언을 간접적으로 들었다.	15
욕설 등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	10
주먹질, 발길질 등 신체적인 구타를 당했다.	1
남자가 하는 일이라며 고용하지 않았다.	11
성적인 폭력을 당했다.	0
임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	1
아웃팅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5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물보라 작전(2007) 설문조사에서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대 여성이반들은,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일하는 곳에서도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옷차림이나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동성애 혐오발언을 간접적으로 들었다','욕설 등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남자가 하는 일이라며 고용하지 않았다'의 응답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옷차림이나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남자가 하는 일이라며 고용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으로 성정체성 때문은 아니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적인 옷차림'이나' 여성적인 태도'와는 다른 겉모습과 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성애 혐오나 성소수자 차별이, 직접적으로 성정체성을 이유로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성별체계에서 벗어난 모습과 태도의 지점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을, 10대 여성이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럼 성정체성 때문에 특정한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그 뭐냐. 신촌쪽 에서는 일을 구할 생각을 안했어요. ...(중략) (내가 레즈비언인 걸)아니까. 아니까 차별대우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구요. 네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안쓰고. 왠만하면 안 쓰고. 일자리가 많은데 못 구하죠. 특히 써빙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외모나 이런 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거의 안 써줘요. (그러면 성정체성을 이유로 해고된 적도 있어요?) 전단지 하는데 띵인 친구가 일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동성애자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짤렸어요. 그리고 매번 "니 왜 그렇게 남자같애?" 그러면서 놀리고...(그럼 남자가 하는 일이라면서 안 써준 경우도 있었나요?) 전단지가 젤 많죠.
[(가)보람, 17세, 2007년 '물보라 작전' 당시]

5. 신촌공원 내부 하위 문화 - 일일차집[34], 탈반문화[35], 가족문화.

34) '일일차집'은 서울 신촌공원 10대여성이반의 놀이문화의 한 종류이다. 이것은 주말에 한 팀(8~17명정도 구성)이 신촌공원의 근처 호프집을 오전 10시~오후 5,6시까지 대여해, 입장료는 5,000원을 받는다. 일차를 준비하는

- 10대여성들이 스스로를 '이반'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가 가진 동성애적 감정을 인지했거나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는 10대여성들에게 이번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다른 이반들과의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36] 10대여성이반은 신촌공원을 중심으로 하위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스스로 커뮤니티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인정 등에 대한 이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10대여성이반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을 좀 더 탐색하기 위해 신촌공원(이하 신공)에 모인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먼저, 문화에는 **가족 문화와(**가족 문화는 일반 10대 또래 문화 내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신과 소통되는 사람을 엄마, 아빠, 딸, 형 등으로 호칭하며 관계맺는 방식이다.) **일일차집 문화(일차 문화)**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탈반 문화**가있다. 10대여성이반 친구들에게는 신공이라는 곳은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 할 수 있는 편한 장소이다. 2004년까지는 주말 평일 할것없이 신공이든 신촌이든 곳곳에 많이들 있었다고 한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신공을 꽉 매울 정도로 많이 왔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었고, 19~2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바깥쪽으로 둘러앉고 어린친구들이 안에서 놀 수 있게 되어있다. 일반사람들에게 노출된 상황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딱 반 갈라져서 10대여성이반 그리고 일반사람으로 분리된다."[37]

2007년 우리가 만났던 또 다른 10대여성이반들은 '팬픽이반', '팬 코스 문화'가 아닌, 자신들의 중학교 시절에(2002년 정도) 생겨났던 '일일 차집'이라는 놀이 문화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자산이 중학교 때 일차팀에 활동했던 멤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인원수가 많았던 때는 한 팀에 700명의 손님이 온 경우였으며 동일한 날 2개의 팀도 같이 일차를 했다고 한다. 이날 하루 전체 3개의 일차 팀에 총 1,000명 정도의 손님이 모였다고 한다. 현재는 화장실 뒤편 구역으로만 아주 많을 때 100여명의 떵들이 모여 있는 것과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간은 짧게는 3개월~1년 반 동안이며, 행사 내용은 퍼포먼스, 공개고백, 게임, 나이트댄스 등으로 일정을 기획하고, 퍼포먼스를 연습한다. 사장, 부사장, 매니져, 사회자, 남자웨이터(남웨), 여자웨이터(여웨)등으로 역할과 지위가 있다. 2004년5년까지는 삐끼도 있었지만 2007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삐끼는 없어졌다고 한다.(삐끼는 나이트삐끼처럼 자기일차올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는일이였다. 이들은 일요일마다 열리는 다른 일차팀에 가서 홍보와 커뮤니티에 홍보글로 멤버를 모집한다.) 2002(혹은 2003년)년 정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팬코스 문화가 점점 쇠퇴해가는 가운데 나타난 놀이문화로 보인다.

35) 탈반의 개념은 10대여성이반은 '이반을 탈퇴한다. 즉, 일반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성 정체성과 연관하여 해석하지만, 또 다르게 '신촌공원' 생활을 정리하거나 벗어나는, 그 공간에서의 관계와 지역을 떠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그러나, 탈반이 일어나는 시기는 대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로 넘어갈 때와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갈 때 많이 발생한다. 이들이 탈반하는 방식은 기존에 관계맺는 친구들에게 휴대폰이나 버디 버디 아이디로 탈반을 한다고 전체문자를 보내고, 번호를 지워달라며 인연을 끊자고 말한다고 한다.

36) 이지은, 십대여성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여성학, 2005, p47.

37) 천유성, '10대여성이반의 성과 문화',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아카데미 - 10대 성소수 여성의 이해와 상담을 위한 우리안의 이성애주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8. 천유성님은 2007년 물보라 작전을 통해서 10대여성이반 활동가로 활동하여, 10대여성이반 내부 문화를 비10대에게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였다.

나는 일차가 잘 되었음 좋겠어요. 너무 막가는 거 말고. 그 무언가로 잡혀서 솔직히 나는 일차 그만 둘 때가 됐는데. 어린 애들이 계속 올라올 것 아니예요. 자리 잡히면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일차가. 진짜 안전한 터가 있는 건데. 그게 딱 자리가 잡힌다는 게 아무것 같아도 되게 큰 의미잖아요. 레즈비언들한테도 어린애들한테도 집에서 무시받고 학교에서 무시 받는데. 집에서 무시받고 학교에서 무시받는데. 일차가 뭐가 좋냐면 나를 그냥 나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같아요. 어디가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 못해요. 레즈들은. 한 번씩은 상처를 받아본 레즈들 이라면. 근데 일차에서 얼마나 당당해 그게 너무 보기 좋던데 나대던 모습도, 깝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던데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을 빼고 에너지 되게 많이 소비되는데) 레즈들 보면 학교에서 하는 모습이랑 레즈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랑 달라요. 완전 달르던데. 나는 똑같지만. 나는 이미 아니까 똑같지만. 일차를 과대평가하면 나를 찾을 수 있는데 잖아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적성검사보다 나은 것 같아. 솔직히, 학교에서 하는 적성검사나, 나를 찾겠다고. 존나 상담하고 이런 거 한심한 말들 밖에 안하잖아요. 다 똑같은 말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 피부로 느끼는 건데. 정말 나를 찾을 수 있는 것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빠진 거 일지 몰라요. 저는 갇혀 살았거든요. 되게 개방적인데, 일단 공부를 해야되니까. 나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심했어요. 운동도 하고. [(가)가빈, 20세, 2007 물보라 작전 당시]

가빈이는 인터뷰에서 신촌공원이 '안전한 터'같다며 학교와 집에서 자신들이 숨겨야했던 가면을 벗는 공간으로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기존 사회적 규범과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대명'이라는 이반 커뮤니티 안에서 사용하는 가명을 만든다. 이는 신분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선망 등을 담아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명과 더불어 그들은 친밀한 관계의 표현으로 '가문'[38]을 구성한다.

이렇게(일차를 하면서) 긴 시간을 거의 매일보고 놀게 되니 친분이 두터워 지는데 이때 가족문화가 많이 생긴다. 친한 언니, 친구, 동생한테 실제 가족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딸, 아들 같은 실제 가족 구성원처럼 친(親) 을 맺는 다고 한다. 이때 10대여성이반 친구들 실제 가족 안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나 고민을 서로 얘기하며 지지해주고 의지해주고 의지 받으며 정이 더 두터워 진다. 이렇기 때문에 10대여성이반에게는 친구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도 많다. 친구 따라 가출하거나 친구 따라 외박한다던지 이것은 일반 10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10대여성이반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가족애가 매우 두텁다. 신공에 나오는 친구들은 일차 문화, 가족 문화를 하면서 실제 혈연관계나 학교친구에게서 얻지 못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이 일어나거나 다투더라도, 신공이란 곳에서는 숨기거나 차별받지 않으니까 그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계속 신공에 나오게 된다.[39]

---

38) '가문'은 10대여성이반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는 가족이 확장된 형태로 같은 가문의 사람들은 같은 성씨를 쓰게 된다. 이반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나 등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대명이 아닌 그런 '호칭'(아버지, 어머니)을 붙여 부른다. 가족 관계를 통한 '인맥 관리'를 통해서 10대여성이반들은 기존 관계들을 확장하거나, 친밀성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삼기도 한다.

39) 천유성, '10대여성이반의 성과 문화',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아카데미 - 10대 성소수 여성의 이해와 상담을 위한 우리안의 이성애주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8.

마지막으로 '탈반 문화'[40]가 있다. 탈반을 바라보는 10대여성이반 내부 시선은 양가적인 것으로 보인다. 신공에 남아있는 10대들은 탈반을 하는 친구들은 '개념 없다.' '그런 애들 때문에 욕 먹는다' 등의 비난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지만 다들 (사정이)비슷비슷 하고, 어쩔 수 없다.' '일반사회에 적응하거나 또는 속내를 편히 말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표출하지 못한 체 숨어서 지내니 탈반을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거나 '전혀 네트워크 없이 10대끼리만 뭉치고 살던 친구들이 탈반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탈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10대여성이반을 둘러싼 차별적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으로 논의를 옮겨가야하지 않을까? 이들의 가문 문화나 가족 문화는 그들의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끈끈함과 친밀성을 과시하지만 그것의 생명력은 20대 초반까지다. 성별 구분의 엄격한 범주에서 벗어나 10대로서 신촌공원과 인터넷을 통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놀이'와 '모험'하는 공간으로서는 충분하지만, 사회에서 호명하는 '20대 여자'와 '20대 이반'의 정체성은 충돌하고, 어떻게 '이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이들에게 탈반은 유일한 미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한 때 그들의 딸이었고, 남동생으로 끈끈한 또 다른 '가족'을 형성했던 이들에게는 가슴 한 귀퉁이 상처로 남아있다. "20대가 되버리면 다들 흔적조차 없어지거나 탈반을 한다. 결국, 계속해서 나오는 친구들은 계속 10대여성이다. 10대여성이반친구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네트워크도 없는데 얼마 전까지 함께하던 언니들은 20살이 되니까 탈반하고 사라지고. 결국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41]

하지만 성 정체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이 미시적으로 내부 문화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적 현실보다는 신촌공원 생활을 정리하거나 벗어나는, 그 공간에서의 관계와 지역을 떠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볼 때, 내부 관계에서 얽힌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벗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탈반을 하게 되는 내/외부의 직접적인 동기와 이유, 그리고 그것이 전체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삶에서 '신촌공원' 생활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떤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 전반적으로 점점 가시화되는 10대 LGBTQ(Questioning)에 대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의 등장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10대여성이반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환경에 대한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10대여성이반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민을 함께 듣고, 지원해야할 사항도 있지만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거

40) 탈반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10대여성이반은 '이반을 탈퇴한다. 즉, 일반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성 정체성과 연관하여 해석하지만, 또 다르게 '신촌공원' 생활을 정리하거나 벗어나는, 그 공간에서의 관계와 지역을 떠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그러나, 탈반이 일어나는 시기는 대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로 넘어갈 때와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갈 때 많이 발생한다. 이들이 탈반하는 방식은 기존에 관계맺는 친구들에게 휴대폰이나 버디 버디 아이디로 탈반을 한다고 전체문자를 보내고, 번호를 지워달라며 인연을 끊자고 말한다고 한다.

41) 천유성, '10대여성이반의 성과 문화',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아카데미 - 10대 성소수 여성의 이해와 상담을 위한 우리안의 이성애주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8.

시적인 환경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같다.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소극적인 전략으로 한계가 있다, 이들 내부 커뮤니티가 '일일차집'과 같은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 생산자로서, 지지집단으로 생존하고 있는 면은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내부 관계 갈등에 따른 '상처'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이 일상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가족, 학교, 일반 친구,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의 의미는 성소수자 운동단체에서 10대 당사자에게 비빌 수 있는 언덕, 삶의 롤 모델로 힘을 실어주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전략이 필요하지만, 또 대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들과 지속적인 노력과 소통으로 10대성소수자의 이슈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려내는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이들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청소년 단체와 연합 활동을(서울YMCA청소년쉼터, 학교밖 자립지원센터 '틔움', 새날을 여는 내일여성센터 '탁틴') 통해서, 비단 10대 당사자를 만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위치는, 성소수자 단체는 내/외부적으로 협상과 소통하는 주체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과 이들을 설득과 동시에 동려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이 강화되고 탄탄해짐을 느끼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에 10대성소수자를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지, 어떠한 문화 컨텐츠가 필요한지 요구 할 수 있는 밑그림이 될 것이다. 현재 각 단체가 만나고 있는 10대 당사자, 커뮤니티 내/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들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단계적 그림을 그려가고 향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참고자료 -

1. 강별철· 김지혜(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 이지은(2006), "십대여성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여성학 석사 논문.
3. 민가영(2003), 「가출, 지금 거리에 '소녀'는 없다」, 우리교육.
4.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2007), 10대여성이반거리이동상담 실태조사 "물보라 작전 보고서".(내부 자료)
5.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2008), 10대여성이반거리이동상담 "퀴어뱅 활동 보고서".(내부 자료)
6.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2008),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아카데미 - 10대 성소수 여성의 이해와 상담을 위한 우리안의 이성애주의".
7.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브릿지 프로젝트 모니터링팀(2009),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10대여성이반거리이동상담 2차 슈퍼비젼 보고서.(내부 자료)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률상담
법률지원에 대한 고민

발제·글 | 장서연 변호사

1. 법률상담의 내용으로 비춰본 한국사회 레즈비언들의 현주소

상담소의 법률자문을 해 온지 2년이 조금 넘었다. 여러 가지 상담사례들 중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즉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상담사례들은 비교적 답이 간단하고, 개인적으로 기다려지는(?) 케이스다. 만약 이런 상담이 들어온다면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를 구하는 소송이나 위법한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은 의외로(?) 거의 없다. 딱 한 번 있었다. 외국에서 온 교포가 학원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것이다. 상담소를 통해 법률자문을 메일로만 했었는데, 그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이 거의 없다는 것, 아웃팅 협박이 법률상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동성애자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숨 막히는 사회, 동성애자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 차별, 비정상이라는 낙인.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나 범죄구성요건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일상생활에서의 혐오, 차별, 괴롭힘을 마주해야 하는 공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특히 가족, 직장동료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웃팅일수록 그 공포는 더욱 커진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현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적지 않은 운동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러한 운동성과들이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고민이 든다.

2. "아웃팅 협박"에 대한 상담들

법률상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웃팅 협박". “아웃팅 협박”과 관련한 상담의 어려움은 아웃팅 협박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보호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한국형법은 "아웃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스토킹"을 범죄로 구성하는 직접적인 규정도 없는데, 그래서 아웃팅과 스토킹이 결합된 사례가 사실상 가장 해결이 어려

운 사례다. '아웃팅' 자체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명예훼손죄'라는 범죄구성요건을 빌려야 하는데 이것이 딜레마이다.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악화시켰을 때 처벌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OO는 레즈비언이야"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물론 아웃팅을 매개로 한 협박, 공갈, 성폭력 등은 협박죄, 공갈죄, 성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상 '아웃팅' 자체 보다는 아웃팅을 매개로 한 '협박'이 아웃팅과 관련한 상담사례들의 본질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 특히 아웃팅 공포에 대한 몰이해는 성소수자들이 "아웃팅 협박"으로 인한 피해를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상담소의 사건지원, 경찰서 동행 등의 활동들은 성소수자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데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 단호한 대처만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위기 상황이 종결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아웃팅 협박'의 가해자들 역시 자신의 성적지향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소수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어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법률자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법률지원에 소극적이 될 때가 있는데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때이다. 이런 경우는 어느 일방의 말만 듣고 무조건 지지하거나 법률지원을 해주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다.

아웃팅 협박에 대한 상담은 형사절차를 통한 해결도 있겠지만,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상담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물론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심리 상담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려수 활동가가 지적하였듯이 아웃팅이나 커밍아웃보다 아웃팅 협박을 겪고 있는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 '아웃팅'에 대한 공포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피해자가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전애인과의 금전문제"로 인한 상담들

아웃팅 협박으로 인한 상담 다음으로 많은 것이 전애인과의 금전문제로 인한 상담들이다. 금전문제, 채무문제로 전애인의 가족까지 관련이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기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다거나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들이다. 전애인과의 금전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은 동성 파트너십의 인정에 대한 법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동성 파트너십에 관한 법제도는 파트너의 관계가 성립해서 유지할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파트너십 관계를 해소시킬 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기여한 재산형성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라든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법제도가 없다보니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이런 사건에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만한 사건을 기획 소송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소송결과도 중요하지만, 문제제기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용기와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언장 쓰기' 캠페인처럼 싱글이나 커플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와 이별할 때, 헤어질 때를 대비한 재산, 채무 관련 청산문제, 금전문제와 관련한 대중적인 캠페인이나 법률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4. '폭력'과 관련한 상담들

개인적으로 폭력과 관련한 상담들을 접한 경우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 원인이 폭력문제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폭력 피해자의 상담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폭력과 관련한 상담들이 있다면 그 문제만큼은 상담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도 범죄이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폭력, 학대, 정신병원 입원 등과 같은 문제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적 한계는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5.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고민

마지막으로 상담소가 15주년이나 되었다니, 그동안 상담소 활동가들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첩첩산중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에 대한 보람, 만족감을 위해서는 상담이나 사건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담 이후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물론 상담소에서 상담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지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창립 15주년 기념 토론회

레즈비언 상담의 길 찾기

- 다양한 갈래의 고민들 -

초　판 | 2009년 11월 28일
개정판 | 2013년 4월 15일

엮은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편　집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

펴낸곳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사무 | 02-703-3542　　메일 | lsangdam@lsangdam.org
상담 | 02-718-3542　　팩스 | 02-703-3543
홈페이지 | lsangdam.org